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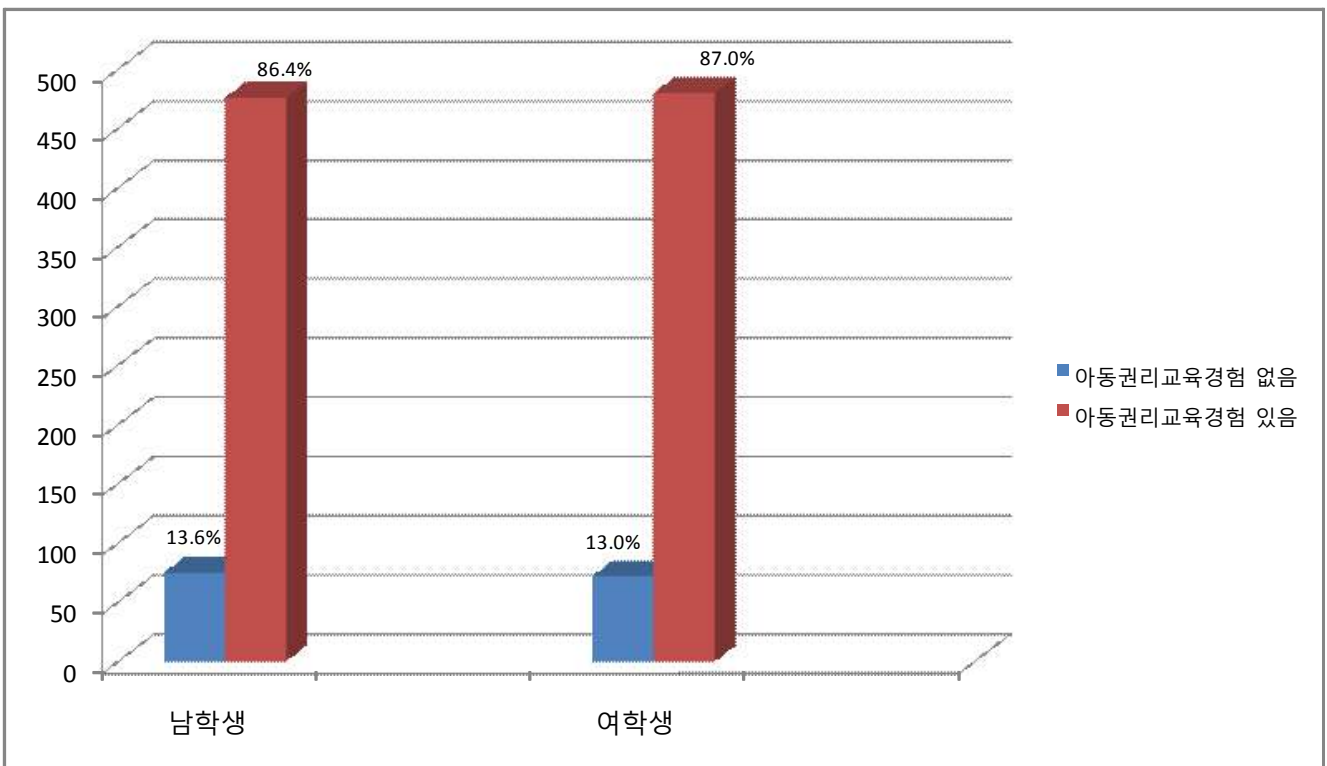
## 설문항목별 세부분석 자료

### 1. 아동권리교육 경험 여부

#### 성별 아동권리교육 경험여부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권리교육경험		전체
		없음	있음	
성별	남학생	75 13.6%	476 86.4%	551 100.0%
	여학생	72 13.0%	480 87.0%	552 100.0%
전 체		147 13.3%	956 86.7%	1,103 100.0%



- 성별 아동권리교육 경험여부를 보면 남학생 86.4% , 여학생 87%가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있으며, 전체적으로 86.7%가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있으며, 13.3%는 아동권리교육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

## 학년별 아동권리교육 경험여부

(단위 : 명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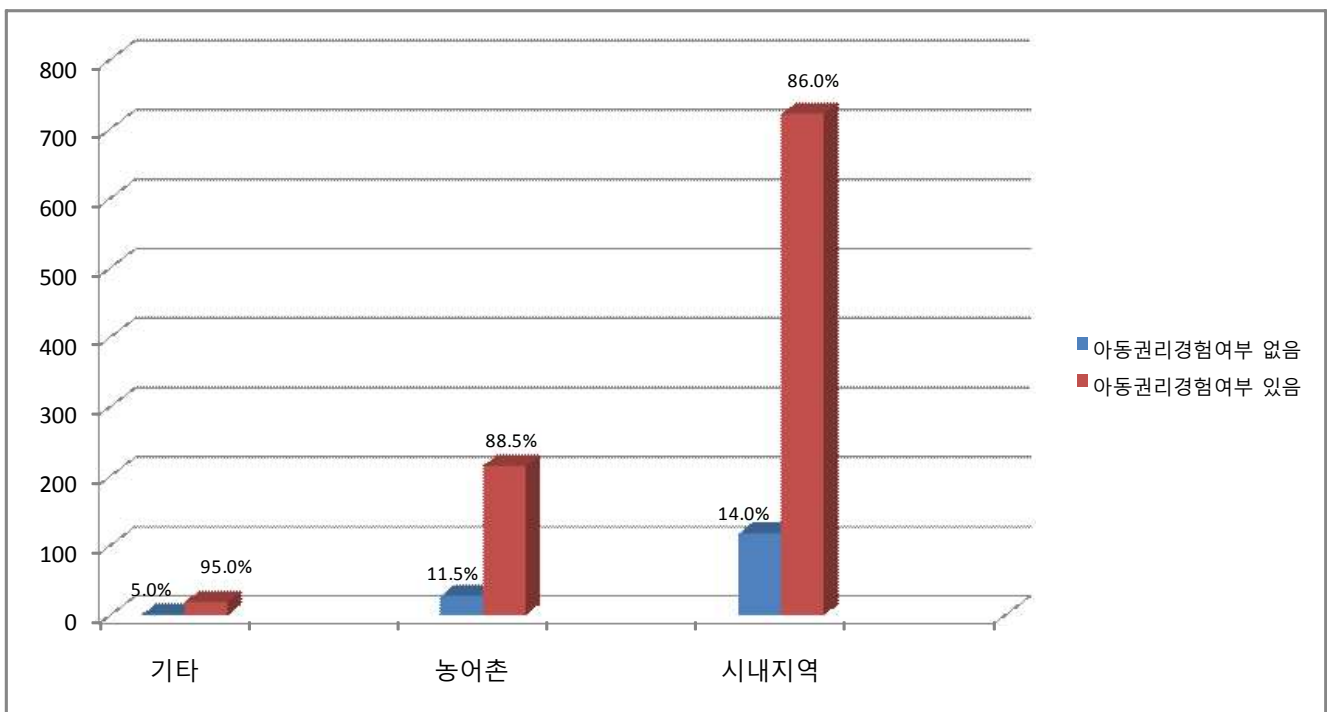
구 분		아동권리경험여부		전체
		없음	있음	
학 년	고 등 학 생	7	31	38
		18.4%	81.6%	100.0%
	중 학 생	18	154	172
		10.5%	89.5%	100.0%
	초 등 학 생	122	771	893
		13.7%	86.3%	100.0%
전체		147	956	1,103
		13.3%	86.7%	100.0%

- 학년별 아동권리교육 경험여부를 보면 고등학생 81.6%, 중학생 89.5%, 초등학생 86.3%가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있으며, 전체적으로 86.7%가 아동권리교육경험이 있으며, 13.3%는 아동권리교육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

## 거주지별 아동권리교육 경험여부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권리교육경험여부		전체
		없음	있음	
거주지	기타	1	19	20
		5.0%	95.0%	100.0%
	농어촌	28	215	243
		11.5%	88.5%	100.0%
	시내지역	118	722	840
		14.0%	86.0%	100.0%
전체		147	956	1,103
		13.3%	86.7%	100.0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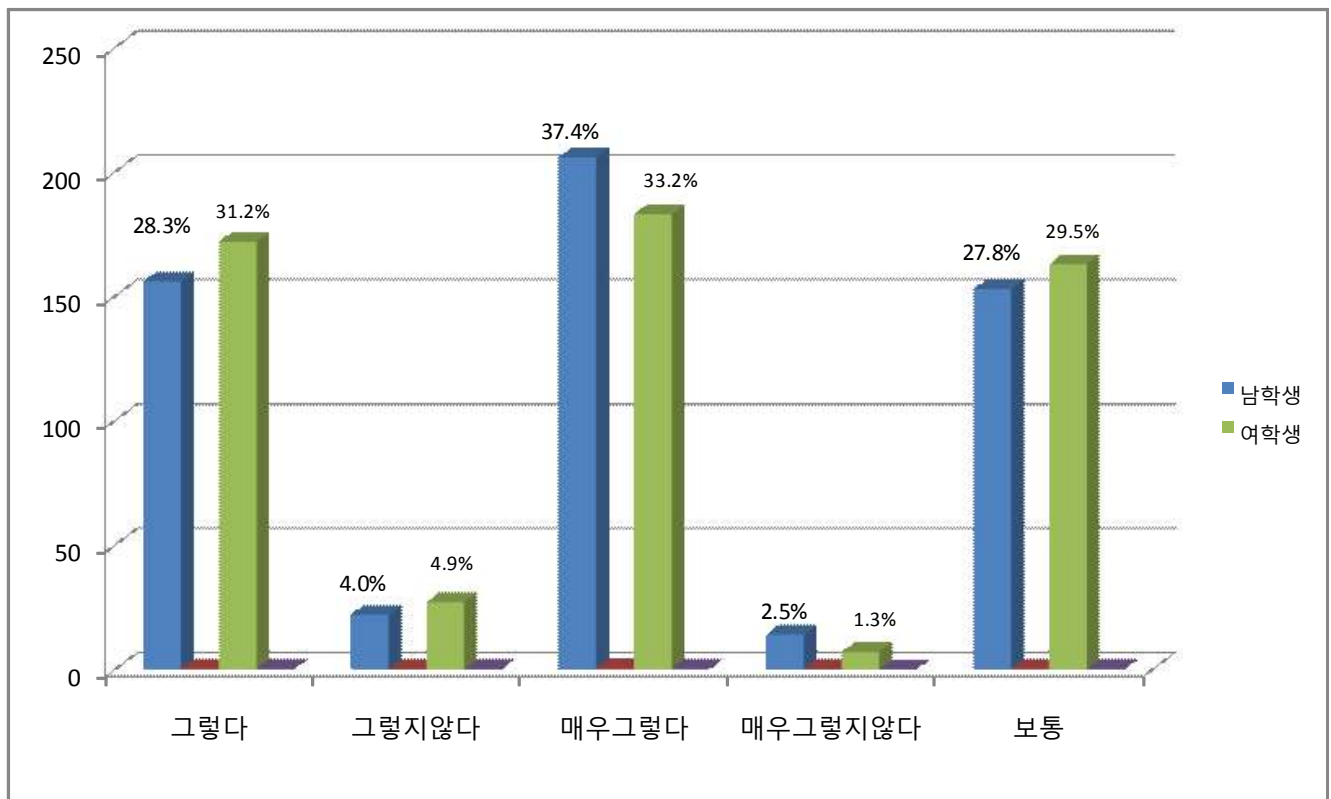
- 거주지별 아동권리교육 경험여부를 보면 시내지역 86%, 농어촌 88.5%, 기타 95%가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있으며, 전체적으로 86.7%가 아동권리교육경험이 있으며, 13.3%는 아동권리교육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

## 2. 『아동의식주를 부모·군산시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』에 대한 의견

### 아동의식주 책임에 대한 성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모든 아동의식주를 부모와 군산시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					전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성별	남학생	156 28.3%	22 4.0%	206 37.4%	14 2.5%	153 27.8%	551 100.0%
	여학생	172 31.2%	27 4.9%	183 33.2%	7 1.3%	163 29.5%	552 100.0%
전체		328 29.7%	49 4.4%	389 35.3%	21 1.9%	316 28.6%	1,103 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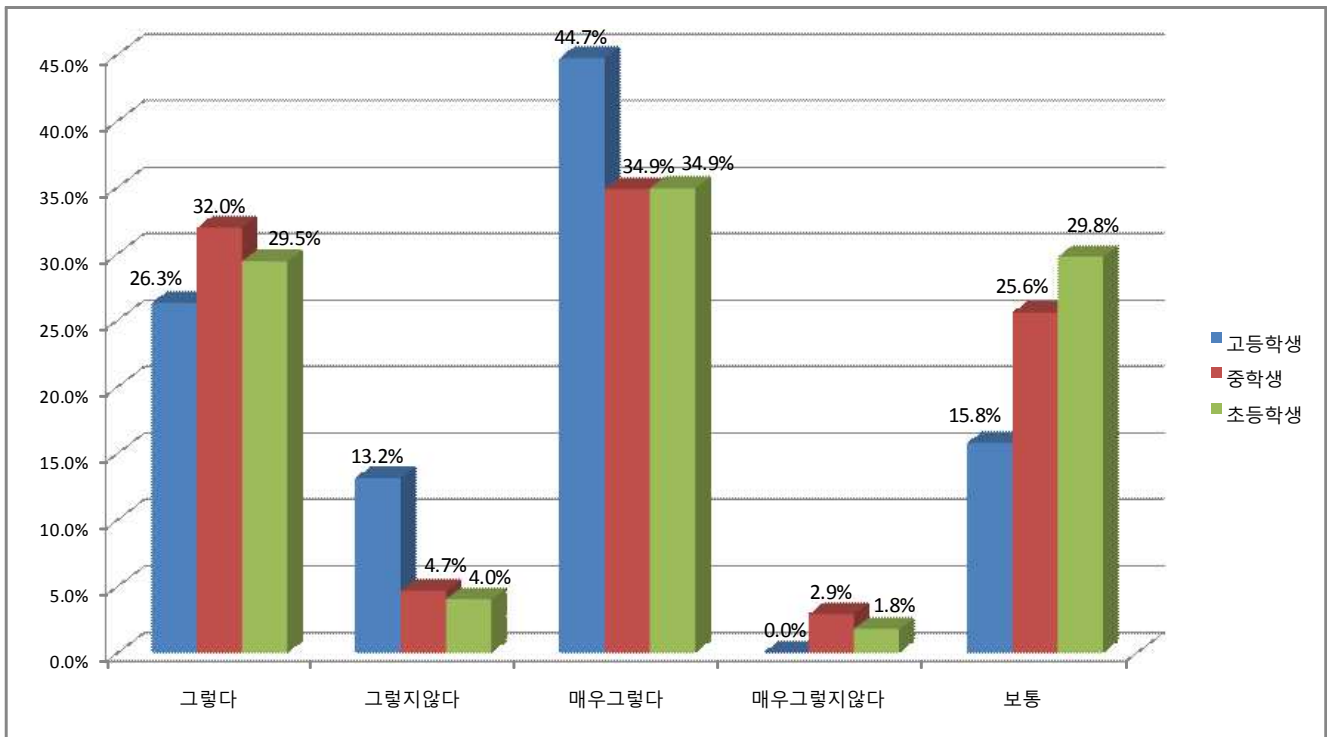


- ‘모든 아동의식주를 부모와 군산시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’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남학생 37.4%, 여학생 33.2%가 ‘매우그렇다’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35.3%가 ‘매우그렇다’, 29.7%가 ‘그렇다’라고 응답하였음

## 아동의식주 책임에 대한 학년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모든 아동의식주를 부모와 군산시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					전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학년	고등학생	10	5	17	0	6	38
		26.3%	13.2%	44.7%	0.0%	15.8%	100.0%
	중학생	55	8	60	5	44	172
		32.0%	4.7%	34.9%	2.9%	25.6%	100.0%
	초등학생	263	36	312	16	266	893
		29.5%	4.0%	34.9%	1.8%	29.8%	100.0%
전체		328	49	389	21	316	1103
		29.7%	4.4%	35.3%	1.9%	28.6%	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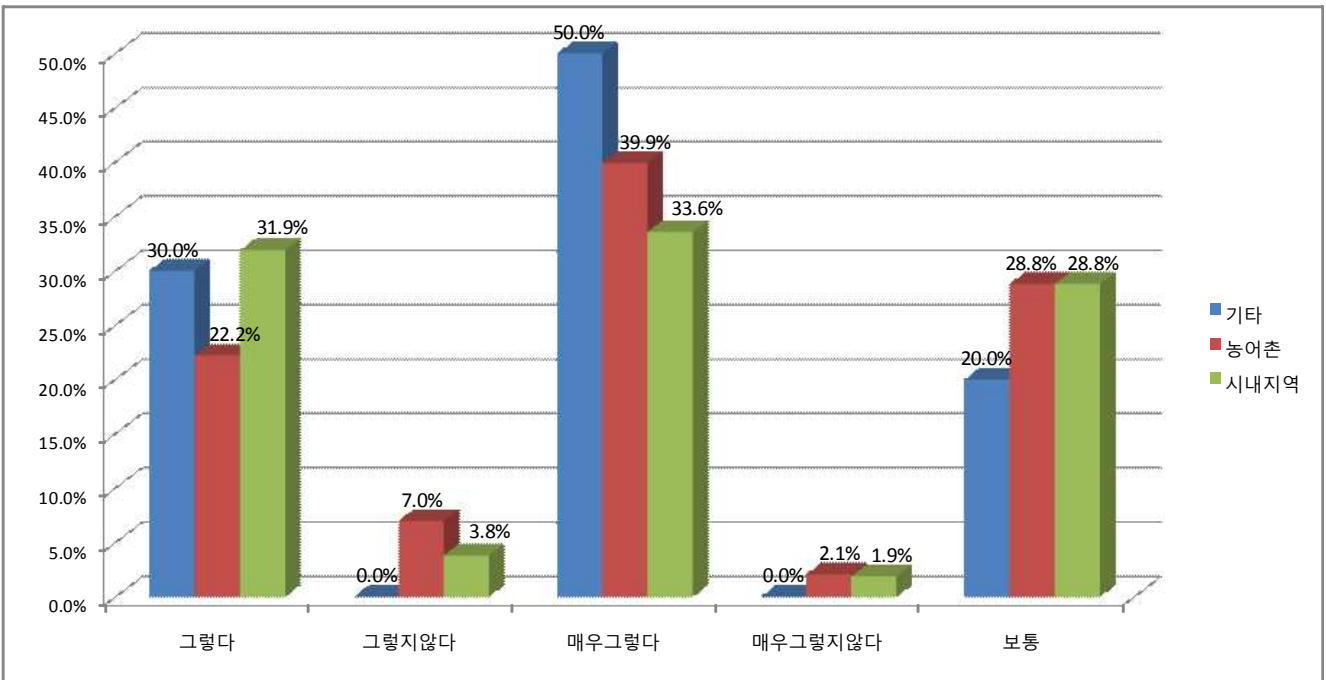


- '모든 아동의식주를 부모와 군산시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'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고등학생 44.7%, 중학생 34.9%, 초등학생 34.9%가 '매우 그렇다'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35.3%가 '매우그렇다', 29.7%가 '그렇다'라고 응답하였음

## 아동의식주 책임에 대한 거주지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모든 아동의식주를 부모와 군산시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					전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거주지	기 타	6	0	10	0	4	20
		30.0%	0.0%	50.0%	0.0%	20.0%	100.0%
	농어촌	54	17	97	5	70	243
		22.2%	7.0%	39.9%	2.1%	28.8%	100.0%
	시내지역	268	32	282	16	242	840
		31.9%	3.8%	33.6%	1.9%	28.8%	100.0%
전체		328	49	389	21	316	1103
		29.7%	4.4%	35.3%	1.9%	28.6%	100.0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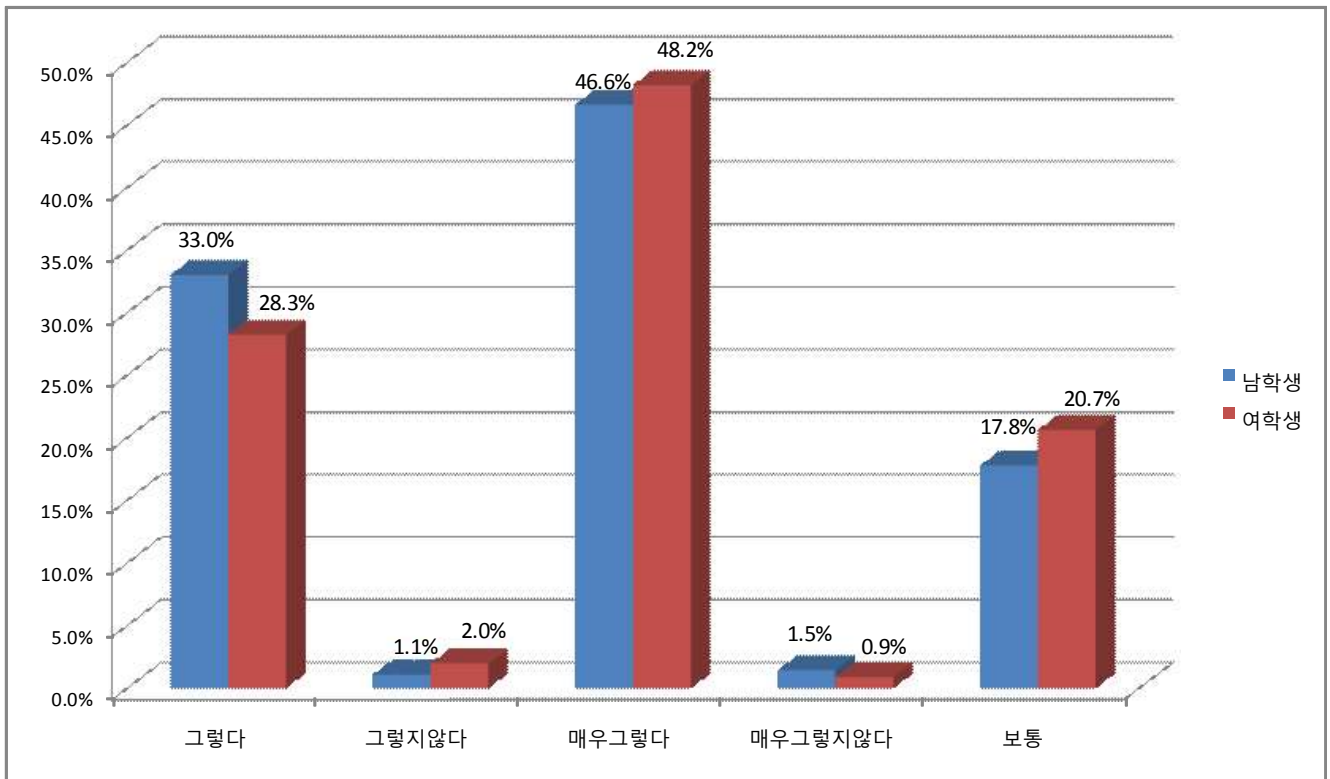
- '모든 아동의식주를 부모와 군산시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'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시내지역 33.6%, 농어촌 39.9%, 기타 50%가 '매우 그렇다'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35.3%가 '매우그렇다', 29.7%가 '그렇다'라고 응답하였음

### 3. 『아동의 건강을 위해 부모·군산시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』에 대한 의견

#### 아동의 몸과 마음에 건강에 대한 성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부모·군산시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					전 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성별	남학생	182 33.0%	6 1.1%	257 46.6%	8 1.5%	98 17.8%	551 100.0%
	여학생	156 28.3%	11 2.0%	266 48.2%	5 0.9%	114 20.7%	552 100.0%
전 체		338 30.6%	17 1.5%	523 47.4%	13 1.2%	212 19.2%	1,103 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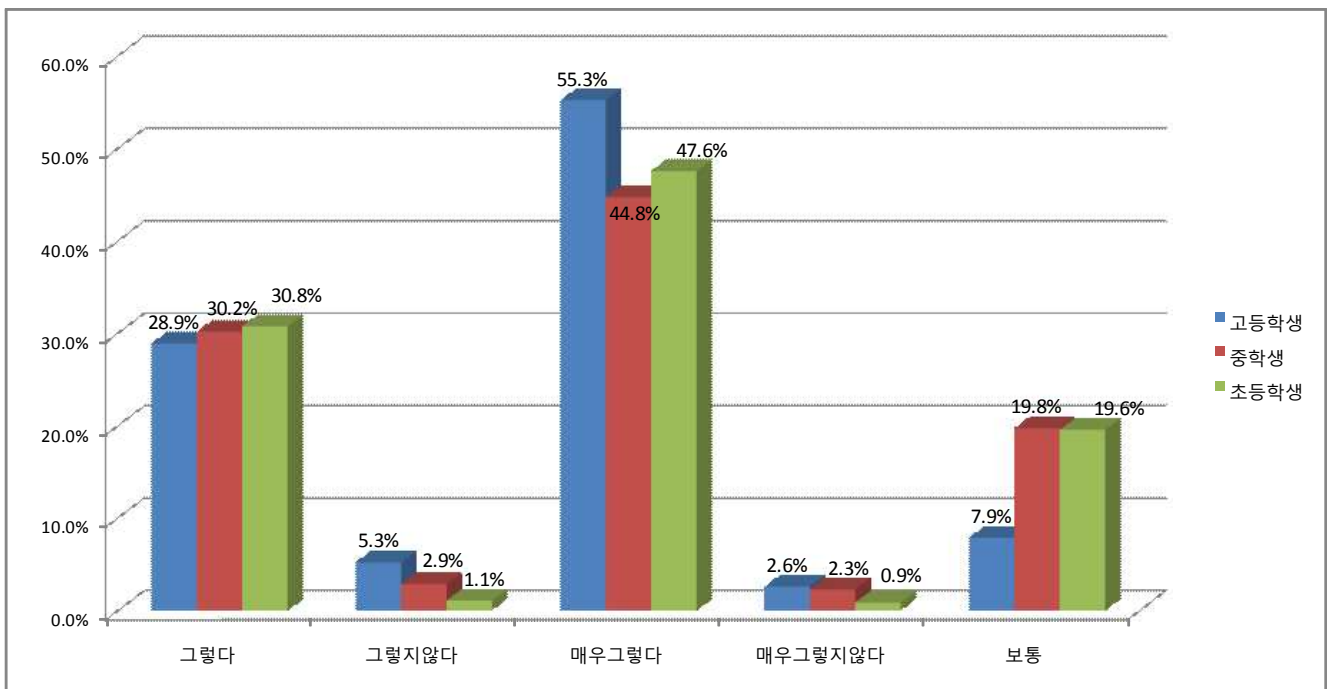


- '아동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부모와 군산시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'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 46.6%, 여학생 48.2%가 '매우 그렇다'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47.4%가 '매우그렇다', 30.6%가 '그렇다'라고 응답하였음

## 아동의 몸과 마음에 건강에 대한 학년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아동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부모·군산시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					전 체	
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	
학년	고등학생	11	2	21	1	3	38
		28.9%	5.3%	55.3%	2.6%	7.9%	100.0%
	중학생	52	5	77	4	34	172
	30.2%	2.9%	44.8%	2.3%	19.8%	100.0%	
	초등학생	275	10	425	8	175	893
	30.8%	1.1%	47.6%	0.9%	19.6%	100.0%	
전체	338	17	523	13	212	1103	
	30.6%	1.5%	47.4%	1.2%	19.2%	100.0%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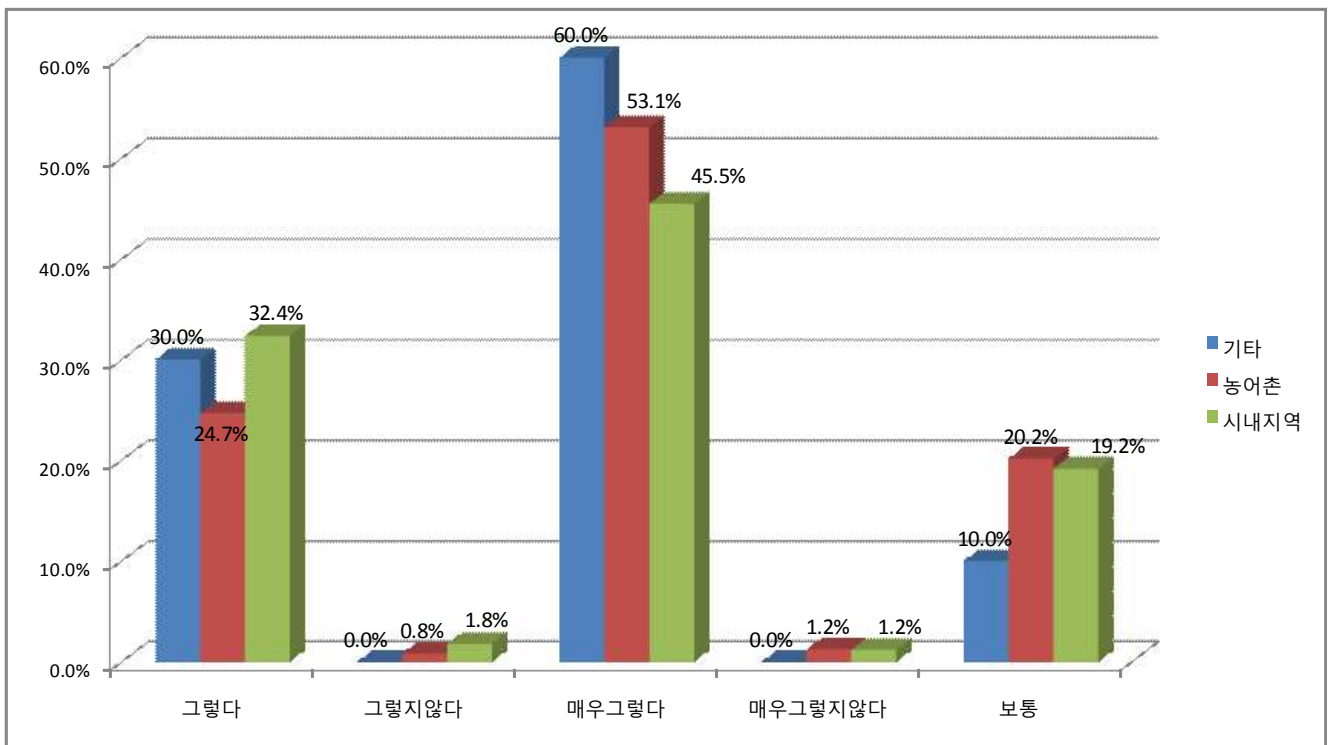


- '아동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부모와 군산시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'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고등학생 55.3%, 중학생 44.8%, 초등학생 47.6%가 '매우 그렇다'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47.4%가 '매우 그렇다', 30.6%가 '그렇다'라고 응답하였음

## 아동의 몸과 마음에 건강에 대한 거주지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부모·군산시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					전 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거주지	기타	6	0	12	0	2	20
		30.0%	0.0%	60.0%	0.0%	10.0%	100.0%
	농어촌	60	2	129	3	49	243
		24.7%	0.8%	53.1%	1.2%	20.2%	100.0%
	시내지역	272	15	382	10	161	840
		32.4%	1.8%	45.5%	1.2%	19.2%	100.0%
전체		338	17	523	13	212	1,103
		30.6%	1.5%	47.4%	1.2%	19.2%	100.0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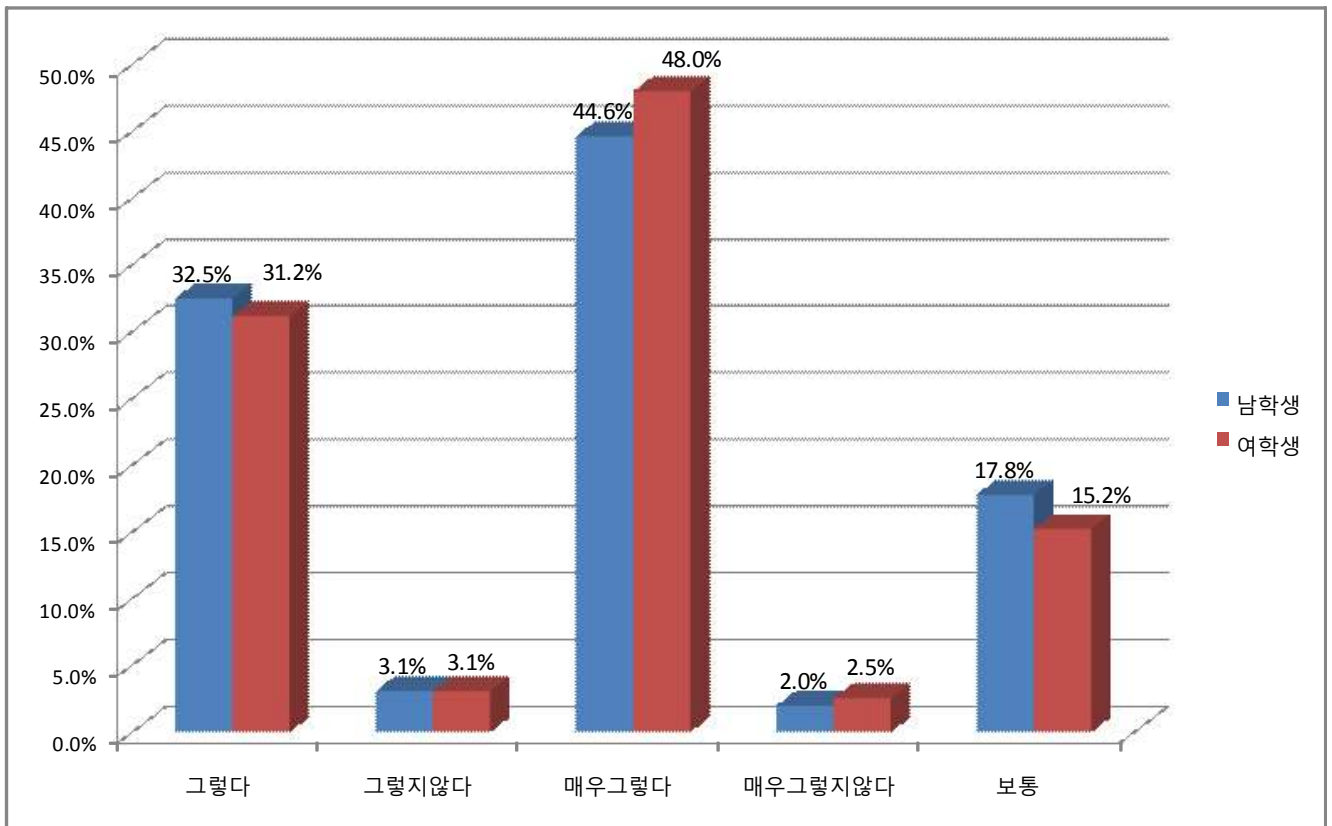
- '아동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부모와 군산시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'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시내지역 45.5%, 농어촌 53.1%, 기타 60%가 '매우 그렇다'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47.4%가 '매우 그렇다', 30.6%가 '그렇다'라고 응답하였음

#### 4. 『아동이 친부모와 살 수 없을 경우 친부모 알권리』에 대한 의견

##### 아동이 친부모 알권리에 대한 성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이 친부모와 살 수 없을 경우 친부모 알권리를 가진다					전 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성별	남학생	179	17	246	11	98	551
		32.5%	3.1%	44.6%	2.0%	17.8%	100.0%
성별	여학생	172	17	265	14	84	552
		31.2%	3.1%	48.0%	2.5%	15.2%	100.0%
전체		351	34	511	25	182	1,103
		31.8%	3.1%	46.3%	2.3%	16.5%	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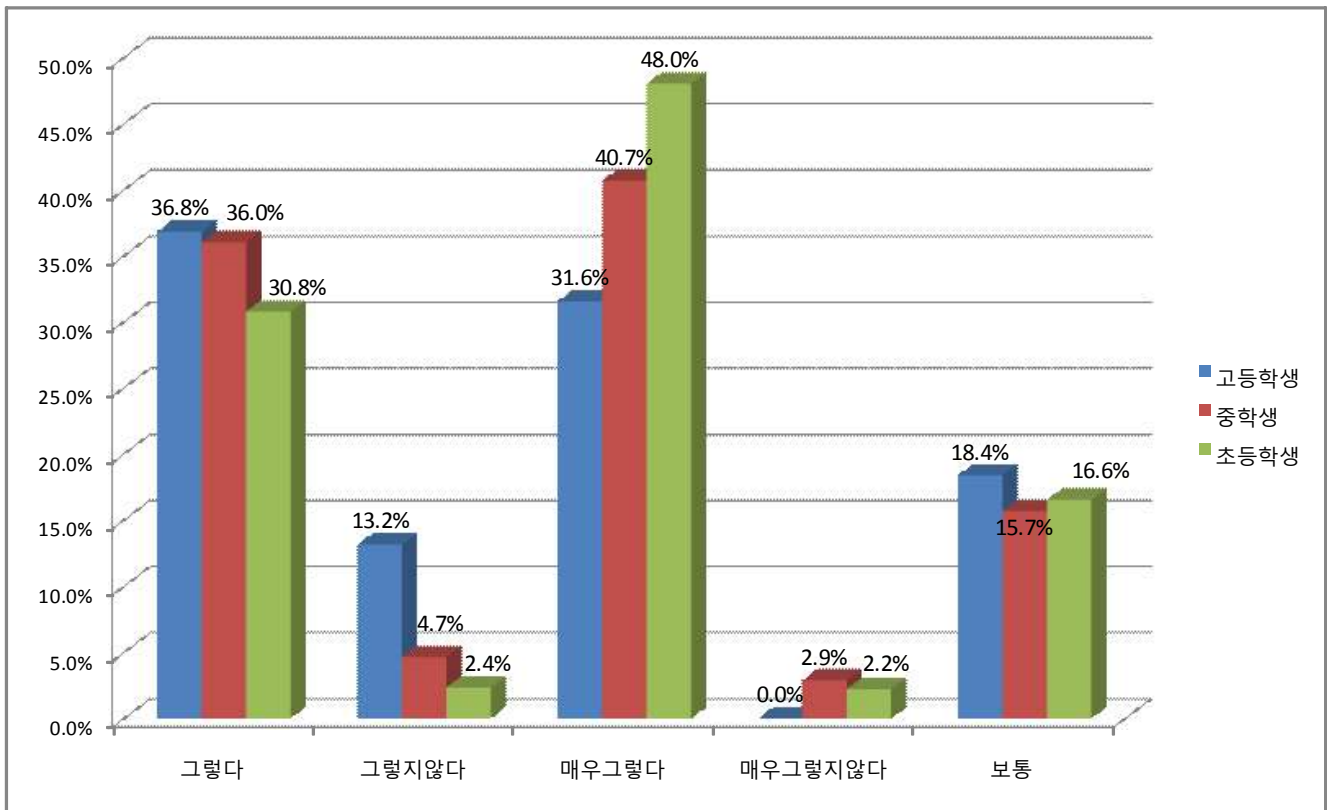


- ‘아동이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을 경우 자신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권리를 가진다’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 44.6%, 여학생 48%가 ‘매우 그렇다’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46.3%가 ‘매우 그렇다’, 31.8%가 ‘그렇다’라고 응답하였음

## 아동이 친부모 알권리에 대한 학년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이 친부모와 살 수 없을 경우 친부모 알권리를 가진다					전 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학년	고등학생	14	5	12	0	7	38
		36.8%	13.2%	31.6%	0.0%	18.4%	100.0%
	중학생	62	8	70	5	27	172
		36.0%	4.7%	40.7%	2.9%	15.7%	100.0%
	초등학생	275	21	429	20	148	893
		30.8%	2.4%	48.0%	2.2%	16.6%	100.0%
전체		351	34	511	25	182	1,103
		31.8%	3.1%	46.3%	2.3%	16.5%	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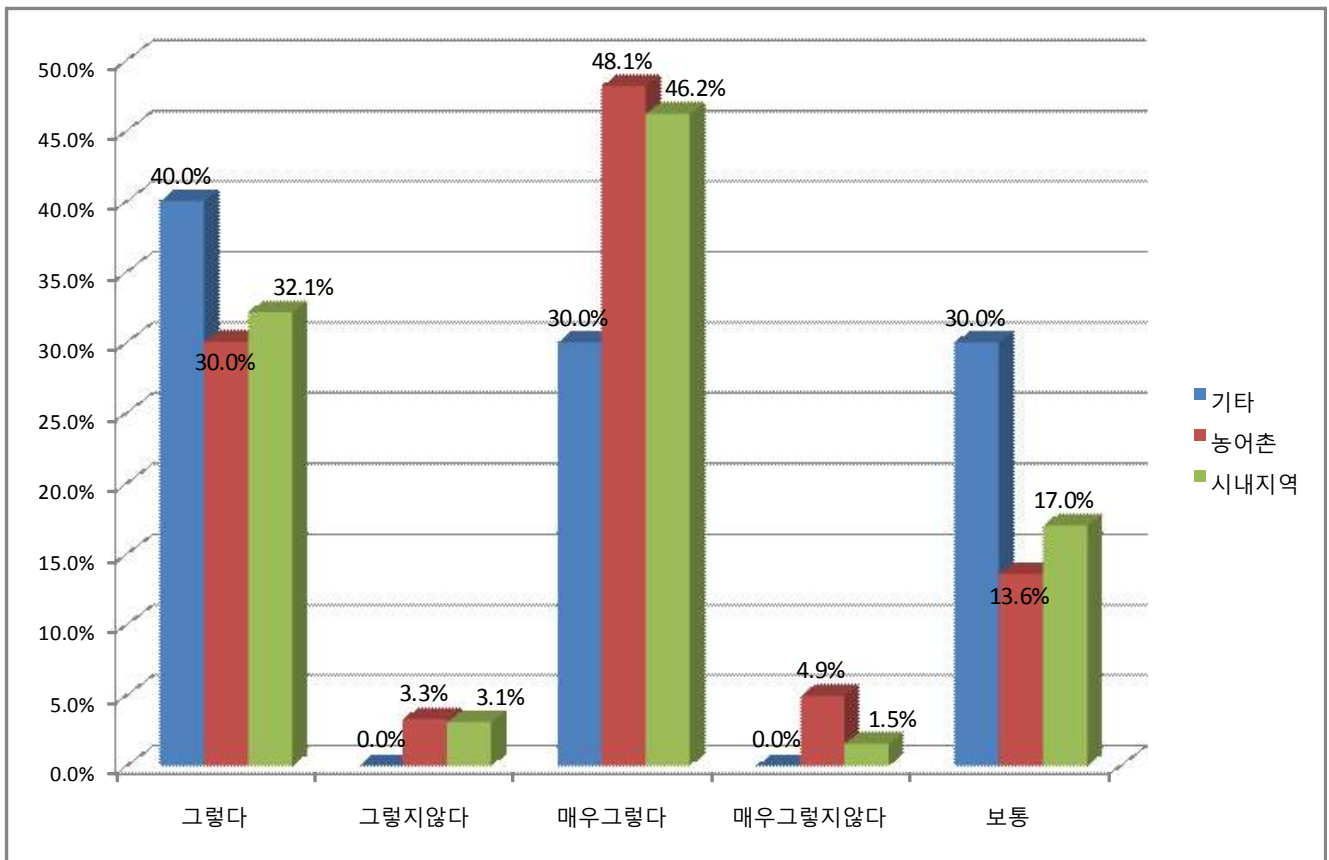


- ‘아동이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을 경우 자신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권리를 가진다’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고등학생 31.6%, 여학생 40.7%, 초등학생 48%가 ‘매우 그렇다’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46.3%가 ‘매우 그렇다’, 31.8%가 ‘그렇다’라고 응답하였음

## 아동이 친부모 알권리에 대한 거주지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이 친부모와 살 수 없을 경우 친부모 알권리를 가진다					전 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거주지	기타	8	0	6	0	6	20
		40.0%	0.0%	30.0%	0.0%	30.0%	100.0%
	농어촌	73	8	117	12	33	243
		30.0%	3.3%	48.1%	4.9%	13.6%	100.0%
	시내지역	270	26	388	13	143	840
		32.1%	3.1%	46.2%	1.5%	17.0%	100.0%
전체		351	34	511	25	182	1103
		31.8%	3.1%	46.3%	2.3%	16.5%	100.0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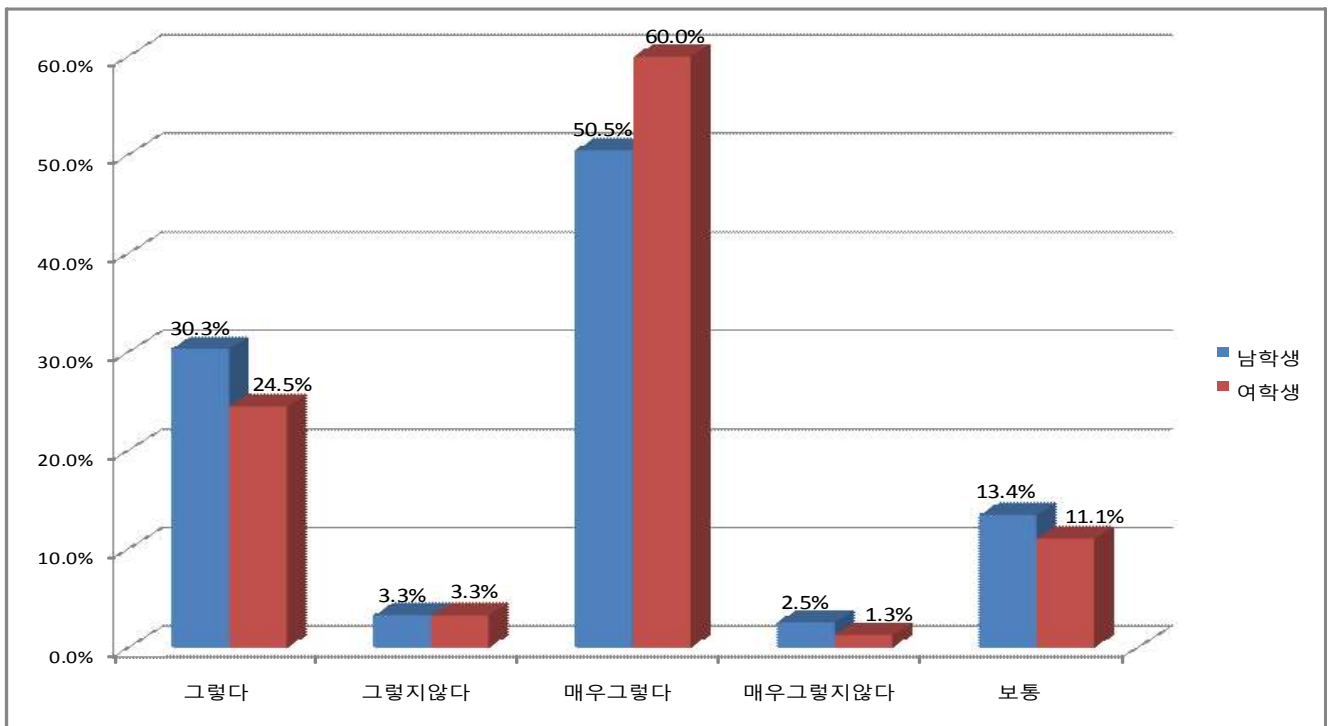
- '아동이 친부모와 함께 살수 없을 경우 자신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권리를 가진다'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시내지역 46.2%, 농어촌 48.1%, 기타 30%가 '매우 그렇다'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46.3%가 '매우 그렇다', 31.8%가 '그렇다'라고 응답하였음

## 5. 『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』에 대한 의견

###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성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					전 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성별	남학생	167 30.3%	18 3.3%	278 50.5%	14 2.5%	74 13.4%	551 100.0%
	여학생	135 24.5%	18 3.3%	331 60.0%	7 1.3%	61 11.1%	552 100.0%
전체		302 27.4%	36 3.3%	609 55.2%	21 1.9%	135 12.2%	1,103 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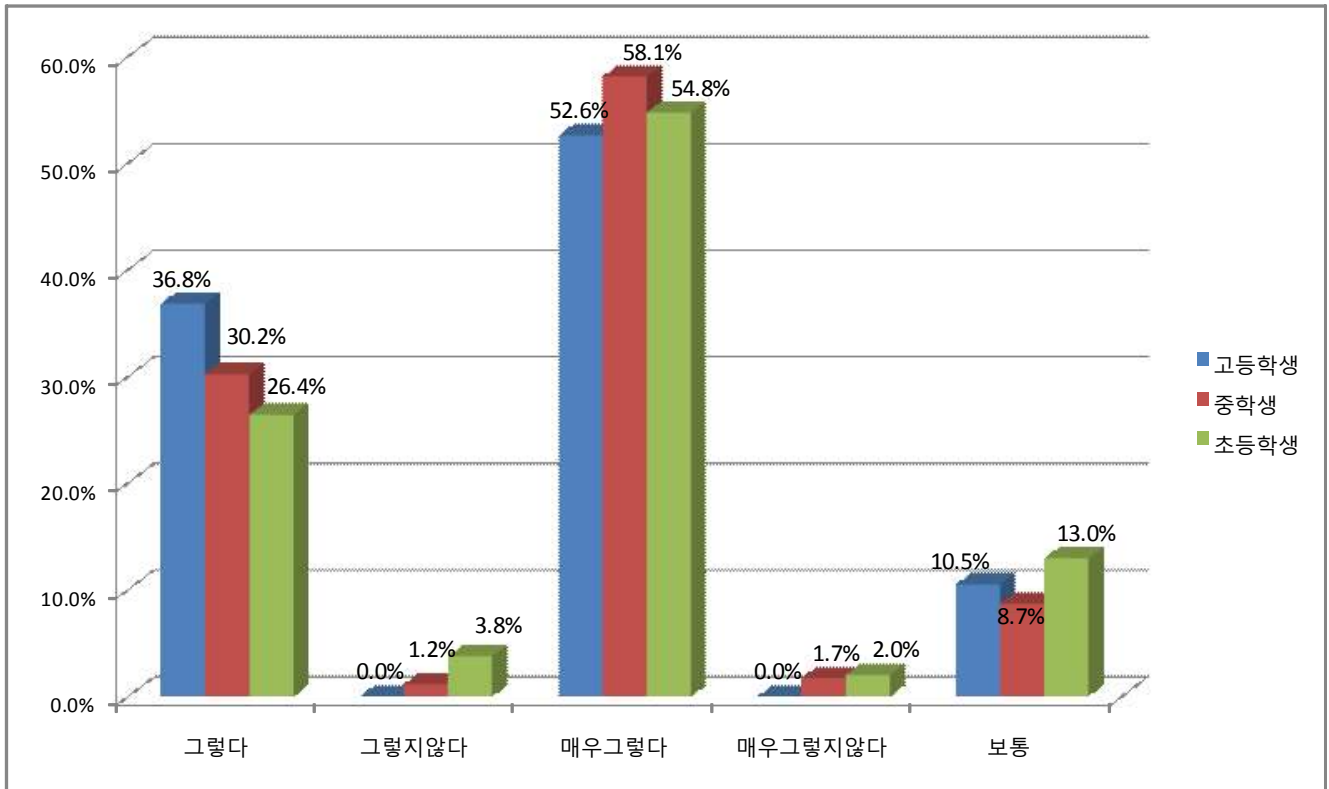


- ‘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’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남학생 50.5%, 여학생 60%가 ‘매우 그렇다’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55.2%가 ‘매우 그렇다’, 27.4%가 ‘그렇다’라고 응답하였음

##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학년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					전 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학년	고등학생	14	0	20	0	4	38
		36.8%	0.0%	52.6%	0.0%	10.5%	100.0%
	중학생	52	2	100	3	15	172
		30.2%	1.2%	58.1%	1.7%	8.7%	100.0%
	초등학생	236	34	489	18	116	893
		26.4%	3.8%	54.8%	2.0%	13.0%	100.0%
전체		302	36	609	21	135	1,103
		27.4%	3.3%	55.2%	1.9%	12.2%	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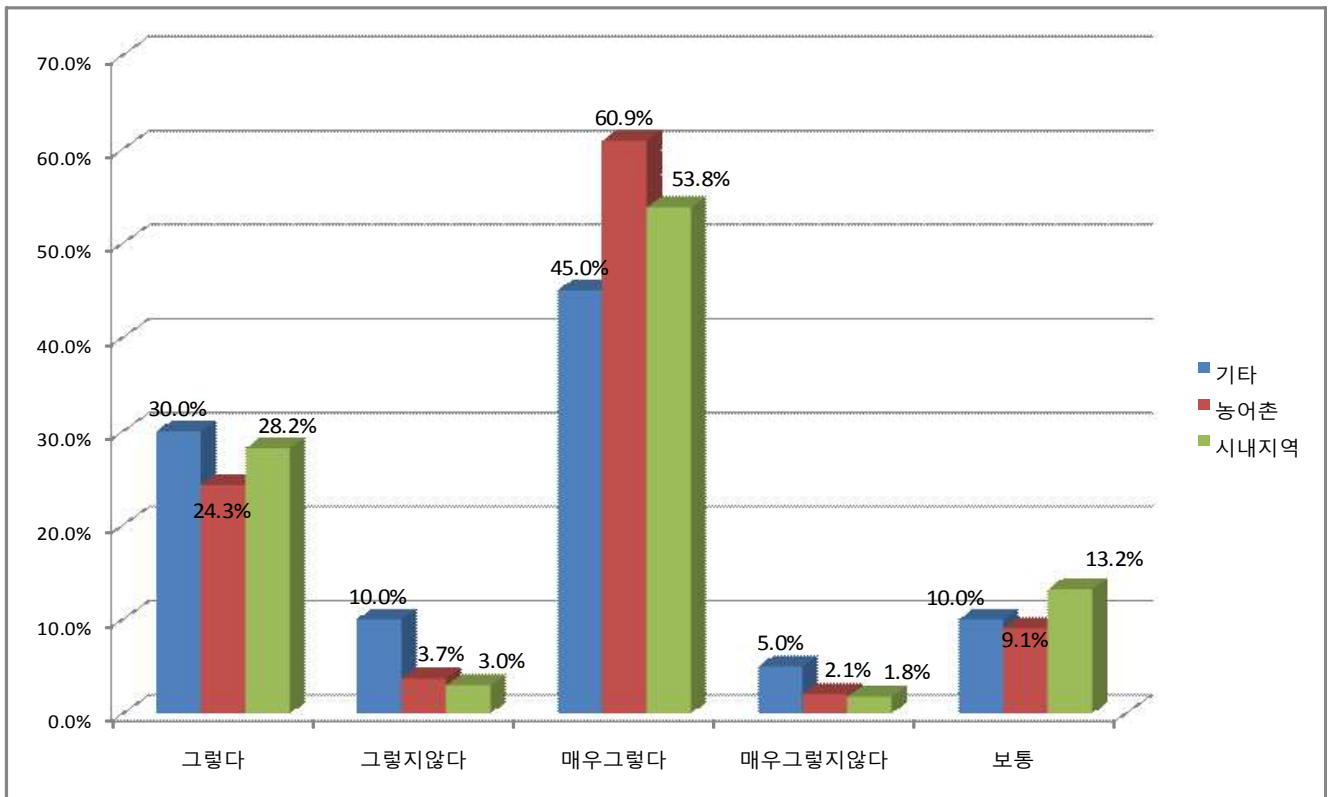


- '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'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고등학생 52.6%, 중학생 58.1%, 초등학생 54.8%가 '매우 그렇다'라고 응답 했으며, 전체적으로 55.2%가 '매우 그렇다', 27.4%가 '그렇다'라고 응답하였음

##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거주지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					전 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거주지	기 타	6	2	9	1	2	20
		30.0%	10.0%	45.0%	5.0%	10.0%	100.0%
	농어촌	59	9	148	5	22	243
		24.3%	3.7%	60.9%	2.1%	9.1%	100.0%
시내지역	237	25	452	15	111	840	
	28.2%	3.0%	53.8%	1.8%	13.2%	100.0%	
전체		302	36	609	21	135	1,103
		27.4%	3.3%	55.2%	1.9%	12.2%	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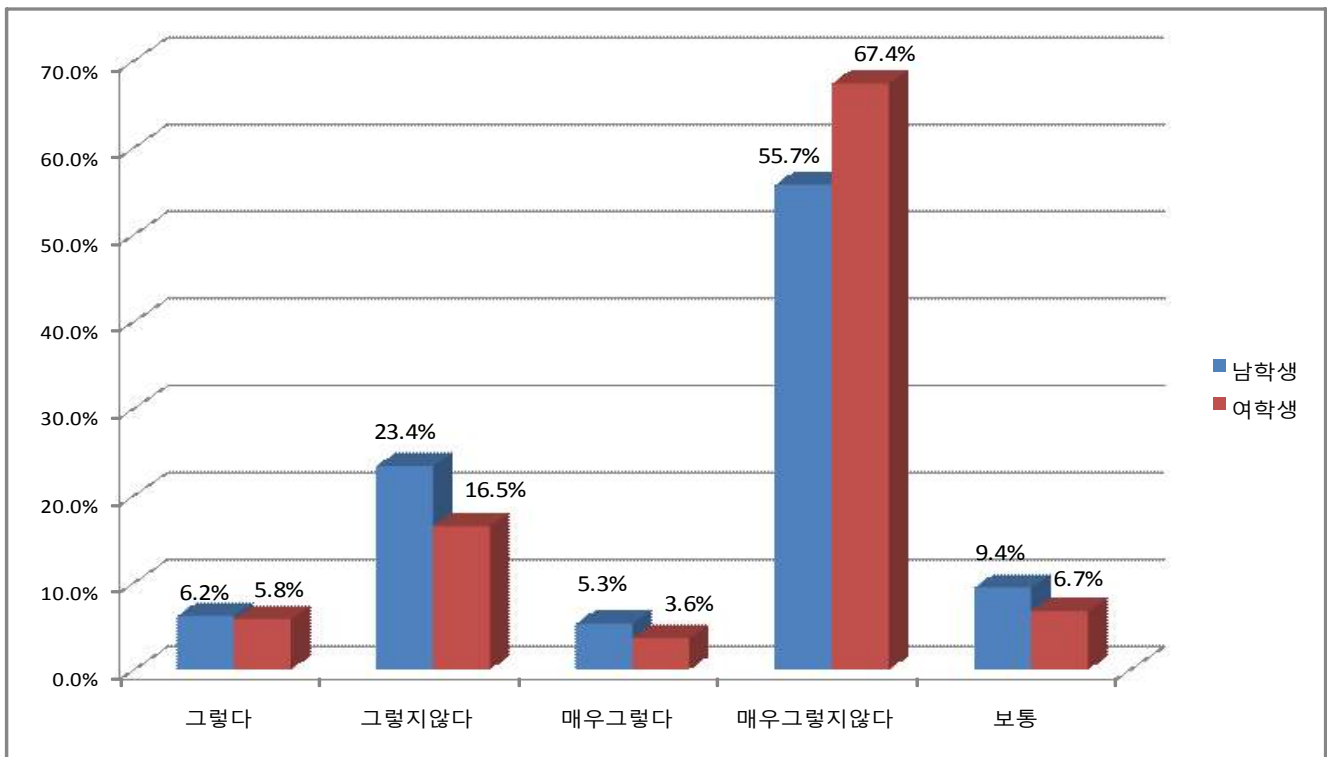


- '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'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시내지역 53.8%, 농어촌 60.9%, 기타 45%가 '매우 그렇다'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55.2%가 '매우 그렇다', 27.4%가 '그렇다'라고 응답하였음

## 6. 『피부색·종교·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』에 대한 의견

### 피부색·종교·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성별의견 (단위 : 명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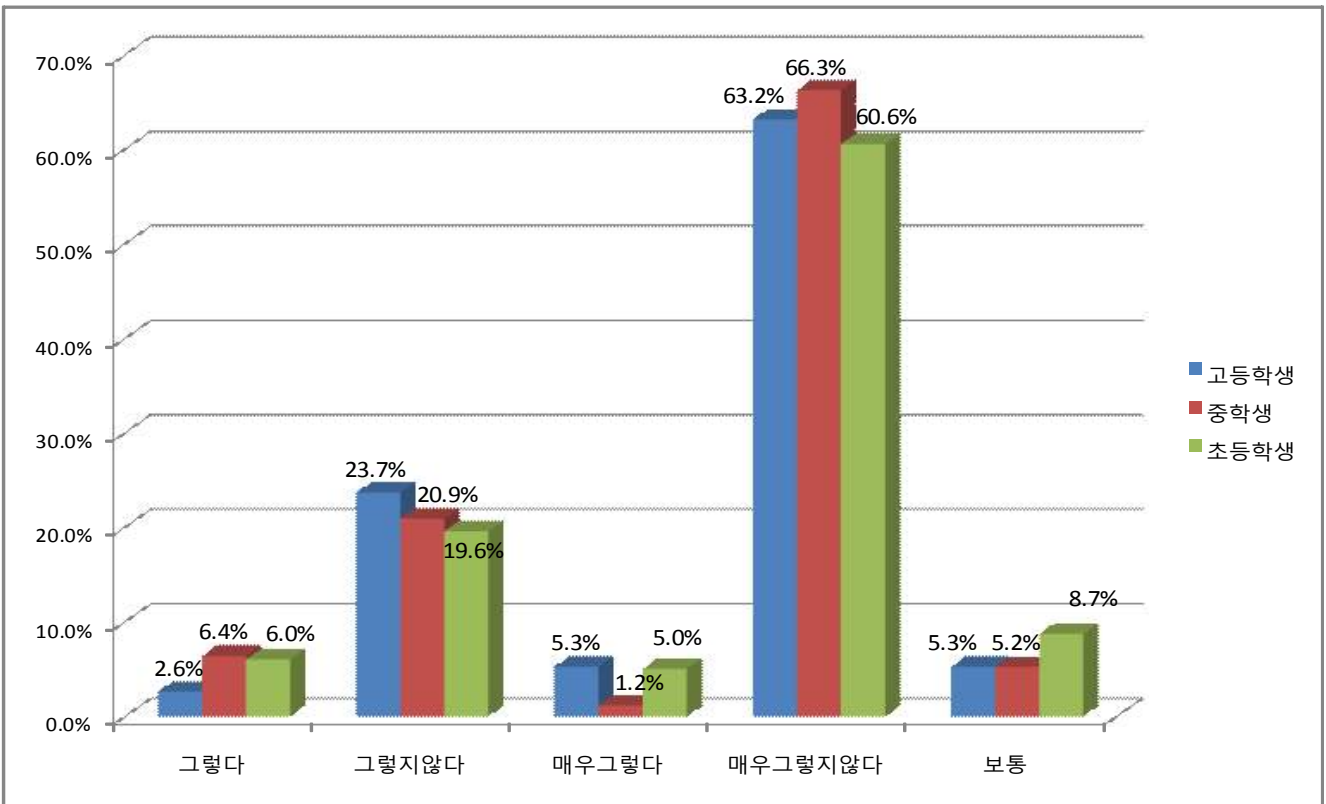
구 분		아동이 피부색이 다르거나 부모가 가난하거나 종교가 다르다면 차별받아야 한다					전 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성별	남학생	34 6.2%	129 23.4%	29 5.3%	307 55.7%	52 9.4%	551 100.0%
	여학생	32 5.8%	91 16.5%	20 3.6%	372 67.4%	37 6.7%	552 100.0%
전체		66 6.0%	220 19.9%	49 4.4%	679 61.6%	89 8.1%	1,103 100.0%



- ‘아동의 피부색과 종교가 다르거나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 받아야 한다’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 55.7%, 여학생 67.4%가 ‘매우 그렇지 않다’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61.6%가 ‘매우 그렇지 않다’, 19.9%가 ‘그렇지 않다’라고 응답하였음

**피부색·종교·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학년별 의견**  
(단위 : 명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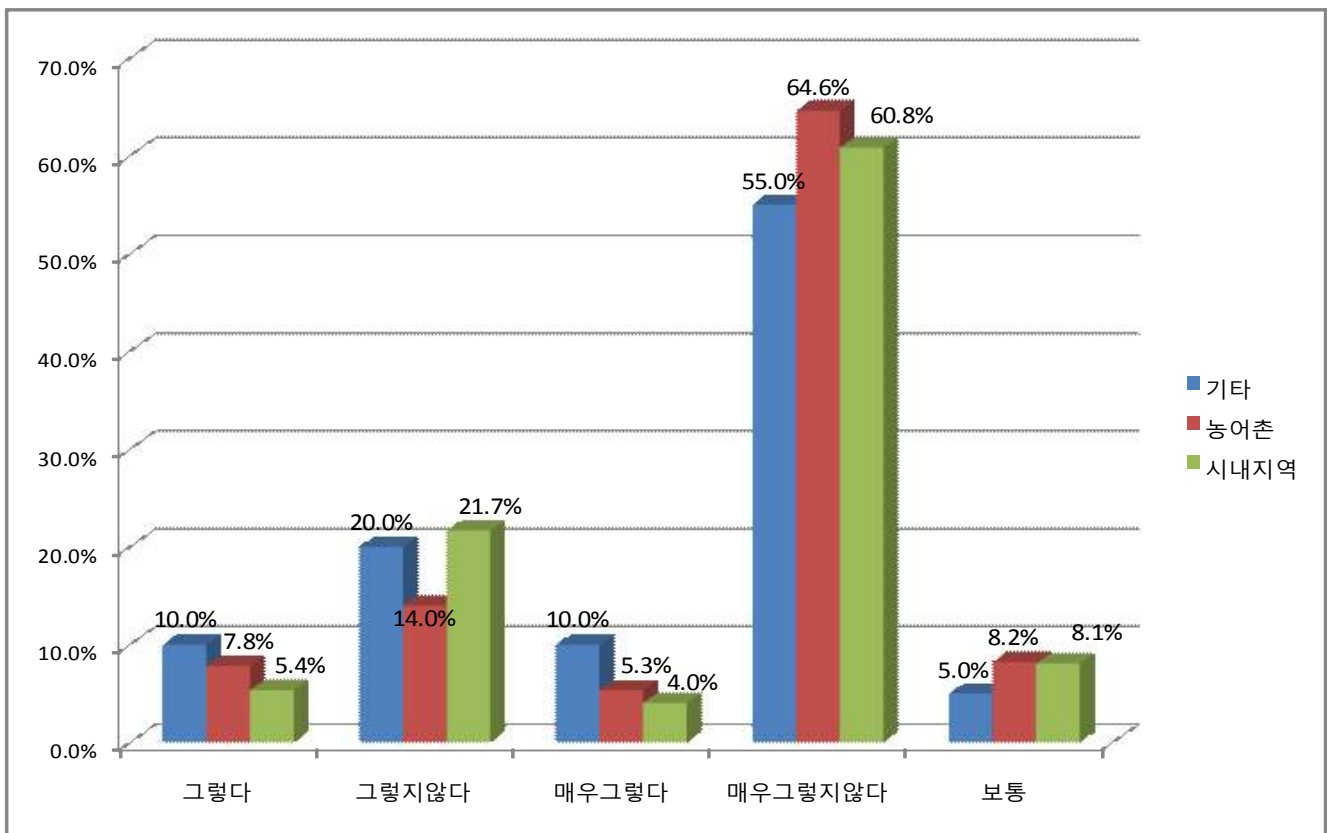
구 분	아동이 피부색이 다르거나 부모가 가난하거나 종교가 다르면 차별받아야 한다					전 체	
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	
학년	고등학생	1 2.6%	9 23.7%	2 5.3%	24 63.2%	2 5.3%	38 100.0%
	중학생	11 6.4%	36 20.9%	2 1.2%	114 66.3%	9 5.2%	172 100.0%
	초등학생	54 6.0%	175 19.6%	45 5.0%	541 60.6%	78 8.7%	893 100.0%
전체		66	220	49	679	89	1,103
		6.0%	19.9%	4.4%	61.6%	8.1%	100.0%



- ‘아동의 피부색과 종교가 다르거나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 받아야 한다’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고등학생 63.2%, 중학생 66.3%, 초등학생 60.6%가 ‘매우 그렇지 않다’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61.6%가 ‘매우 그렇지 않다’, 19.9%가 ‘그렇지 않다’라고 응답하였음

**피부색·종교·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거주지별 의견**  
(단위 : 명, %)

구 분	아동이 피부색이 다르거나 부모가 가난하거나 종교가 다르면 차별받아야 한다					전 체	
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	
거주지	기타	2 10.0%	4 20.0%	2 10.0%	11 55.0%	1 5.0%	20 100.0%
	농어촌	19 7.8%	34 14.0%	13 5.3%	157 64.6%	20 8.2%	243 100.0%
	시내지역	45 5.4%	182 21.7%	34 4.0%	511 60.8%	68 8.1%	840 100.0%
전체		66 6.0%	220 19.9%	49 4.4%	679 61.6%	89 8.1%	1103 100.0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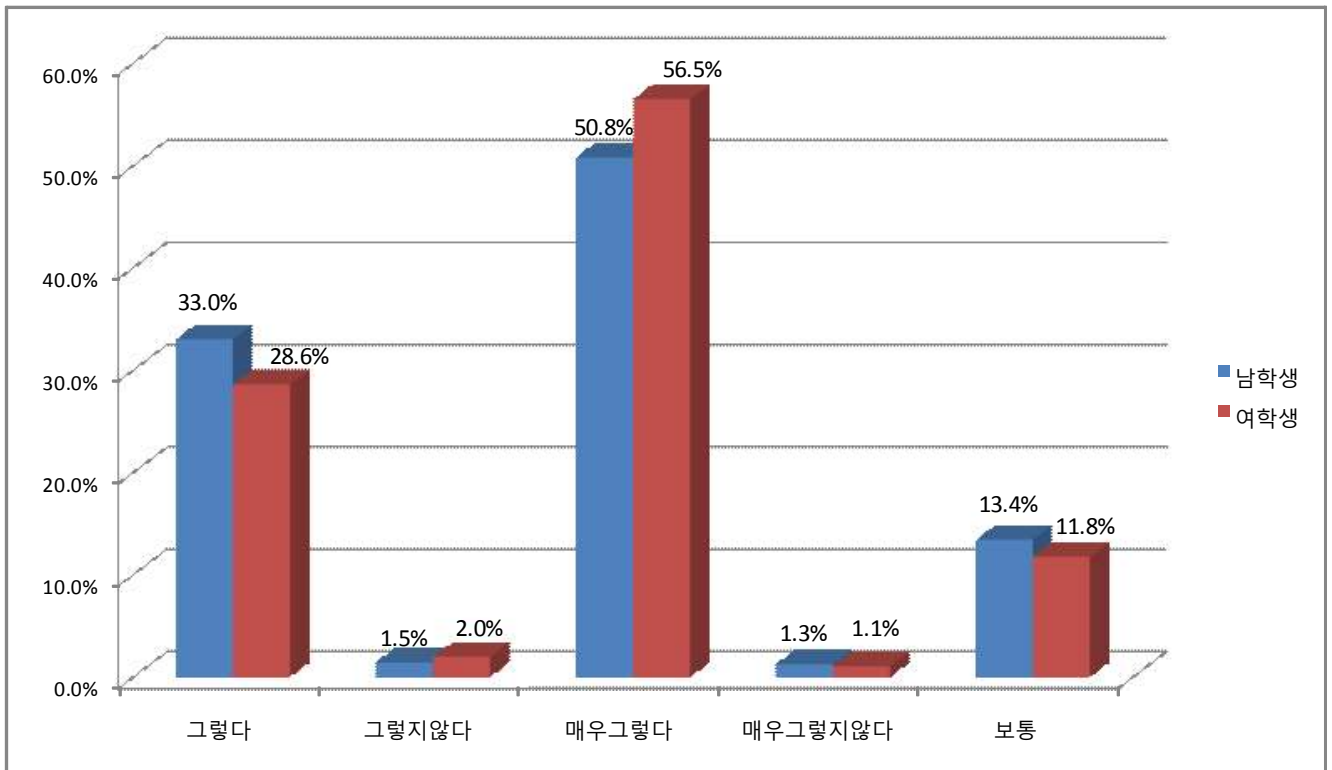
- ‘아동의 피부색과 종교가 다르거나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한다’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시내지역 60.8%, 농어촌 64.6%, 기타 55%가 ‘매우 그렇지 않다’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61.6%가 ‘매우 그렇지 않다’, 19.9%가 ‘그렇지 않다’라고 응답하였음

## 7. 『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』에 대한 의견

### 아동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에 대한 성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					전 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성별	남학생	182	8	280	7	74	551
		33.0%	1.5%	50.8%	1.3%	13.4%	100.0%
성별	여학생	158	11	312	6	65	552
		28.6%	2.0%	56.5%	1.1%	11.8%	100.0%
전체		340	19	592	13	139	1103
		30.8%	1.7%	53.7%	1.2%	12.6%	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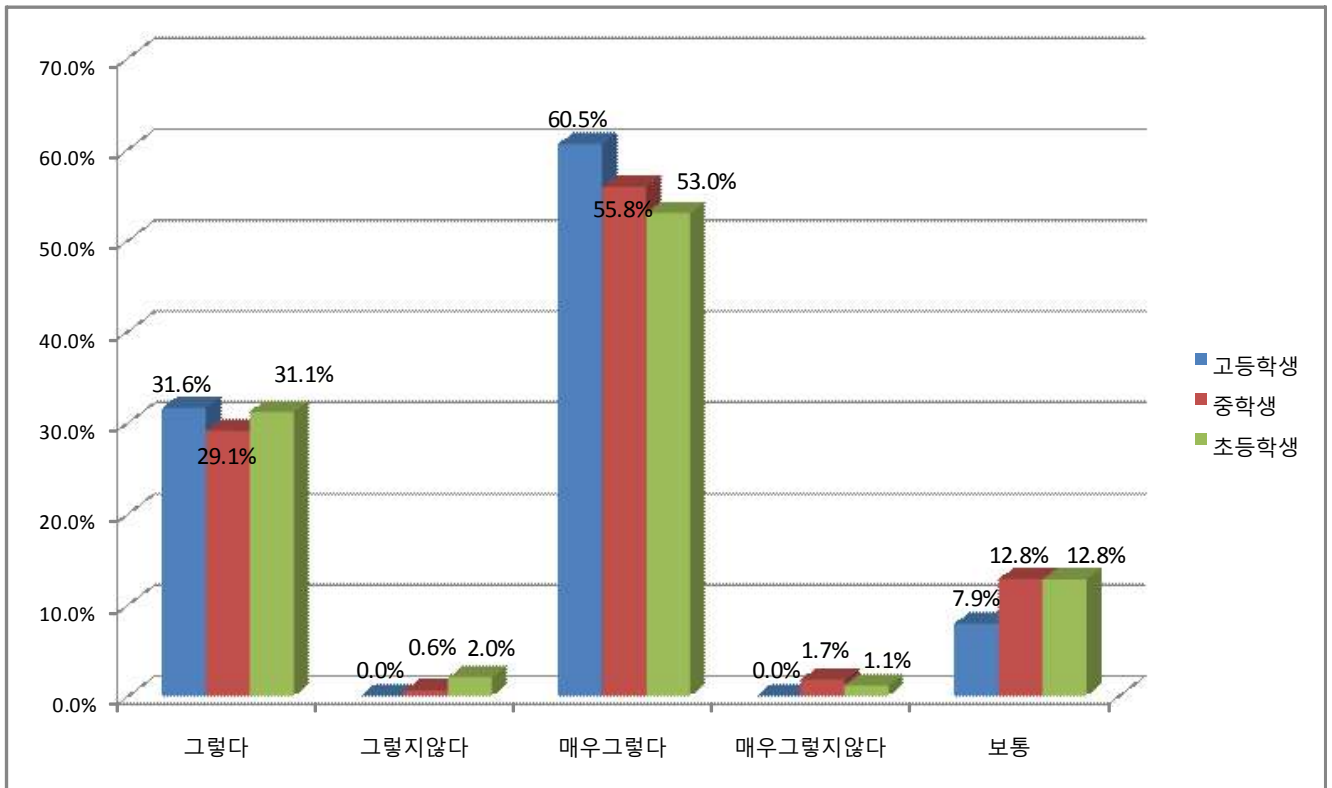


- ‘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’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남학생 50.8%, 여학생 56.5%가 ‘매우 그렇다’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53.7%가 ‘매우 그렇다’, 30.8%가 ‘그렇다’라고 응답하였음

## 아동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에 대한 학년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					전 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학년	고등학생	12	0	23	0	3	38
		31.6%	0.0%	60.5%	0.0%	7.9%	100.0%
	중학생	50	1	96	3	22	172
		29.1%	0.6%	55.8%	1.7%	12.8%	100.0%
	초등학생	278	18	473	10	114	893
		31.1%	2.0%	53.0%	1.1%	12.8%	100.0%
전체		340	19	592	13	139	1,103
		30.8%	1.7%	53.7%	1.2%	12.6%	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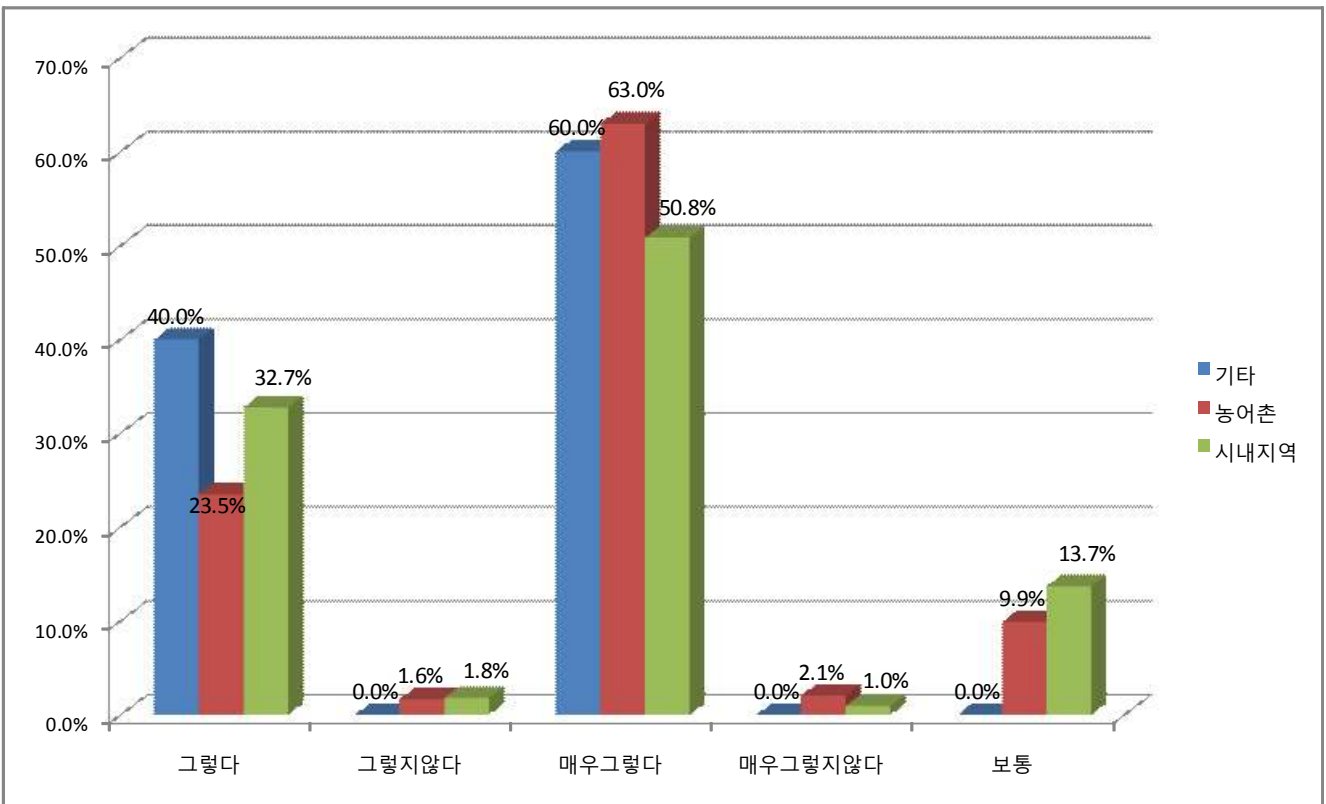


- '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'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고등학생 60.5%, 중학생 55.8%, 초등학생 53%가 '매우 그렇다'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53.7%가 '매우 그렇다', 30.8%가 '그렇다'라고 응답하였음

## 아동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에 대한 거주지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					전 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거주지	기타	8	0	12	0	0	20
		40.0%	0.0%	60.0%	0.0%	0.0%	100.0%
	농어촌	57	4	153	5	24	243
		23.5%	1.6%	63.0%	2.1%	9.9%	100.0%
	시내지역	275	15	427	8	115	840
		32.7%	1.8%	50.8%	1.0%	13.7%	100.0%
전체		340	19	592	13	139	1,103
		30.8%	1.7%	53.7%	1.2%	12.6%	100.0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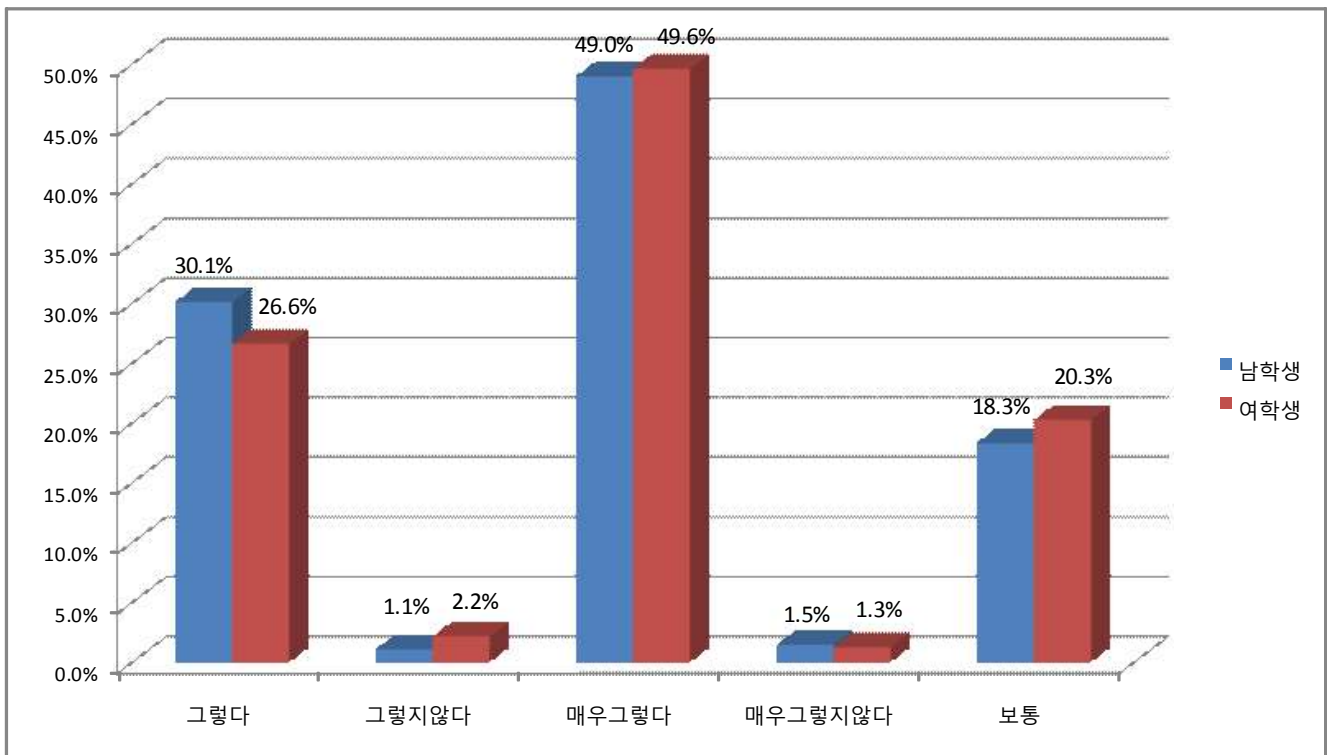
- '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'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시내지역 50.8%, 농어촌 63%, 기타 60%가 '매우 그렇다'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53.7%가 '매우 그렇다', 30.8%가 '그렇다'라고 응답하였음

## 8. 『아동의 놀 권리 보장』에 대한 의견

###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성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의 놀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					전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성별	남학생	166 30.1%	6 1.1%	270 49.0%	8 1.5%	101 18.3%	551 100.0%
	여학생	147 26.6%	12 2.2%	274 49.6%	7 1.3%	112 20.3%	552 100.0%
전체		313 28.4%	18 1.6%	544 49.3%	15 1.4%	213 19.3%	1,103 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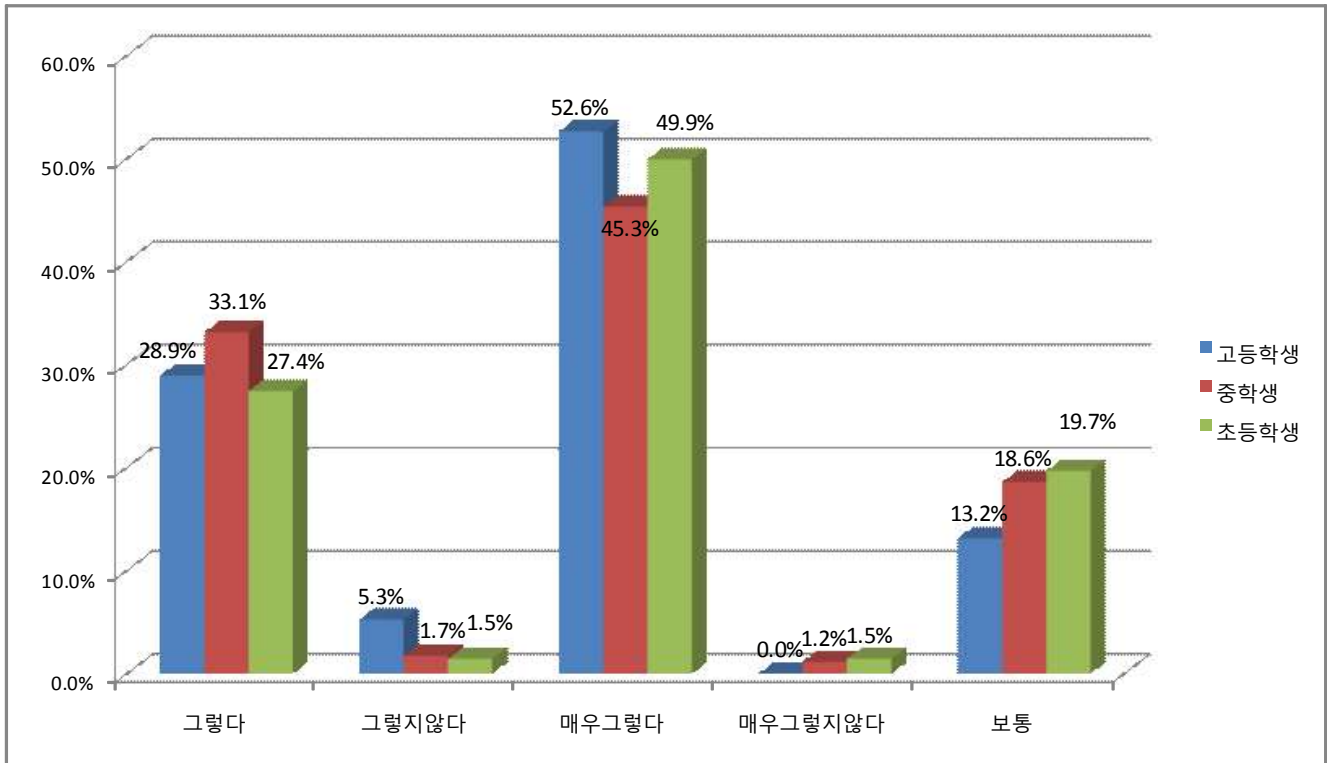


- '아동의 놀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'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 49%, 여학생 49.6%가 '매우 그렇다'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49.3%가 '매우 그렇다', 28.4%가 '그렇다'라고 응답하였음

##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학년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의 놀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					전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학년	고등학생	11	2	20	0	5	38
		28.9%	5.3%	52.6%	0.0%	13.2%	100.0%
	중학생	57	3	78	2	32	172
		33.1%	1.7%	45.3%	1.2%	18.6%	100.0%
초등학생	245	13	446	13	176	893	
	27.4%	1.5%	49.9%	1.5%	19.7%	100.0%	
전체		313	18	544	15	213	1,103
		28.4%	1.6%	49.3%	1.4%	19.3%	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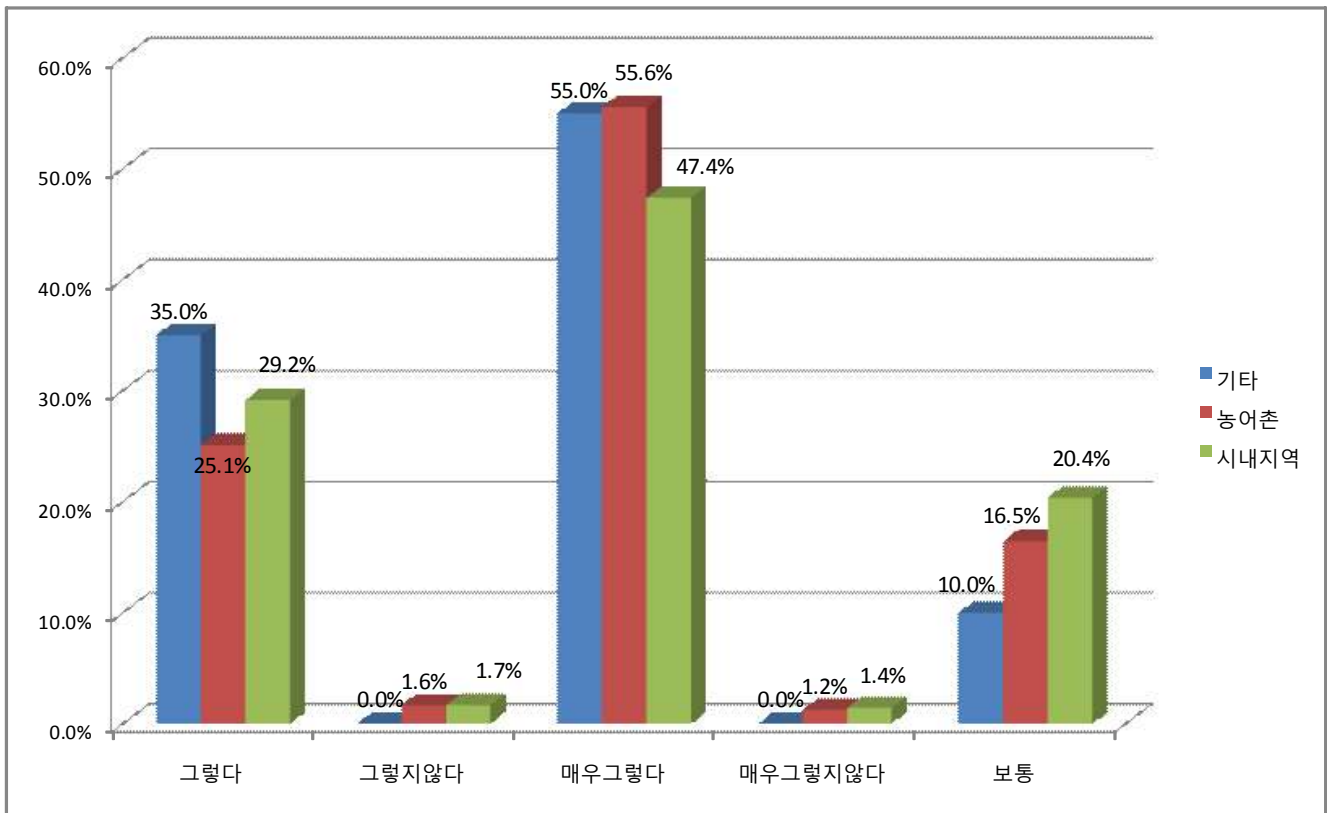


- ‘아동의 놀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’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고등학생 52.6%, 중학생 45.3%, 초등학생 49.9%가 ‘매우 그렇다’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49.3%가 ‘매우 그렇다’, 28.4%가 ‘그렇다’라고 응답하였음

##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거주지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의 놀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					전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거주지	기타	7	0	11	0	2	20
		35.0%	0.0%	55.0%	0.0%	10.0%	100.0%
	농어촌	61	4	135	3	40	243
		25.1%	1.6%	55.6%	1.2%	16.5%	100.0%
시내지역	245	14	398	12	171	840	
	29.2%	1.7%	47.4%	1.4%	20.4%	100.0%	
전체		313	18	544	15	213	1,103
		28.4%	1.6%	49.3%	1.4%	19.3%	100.0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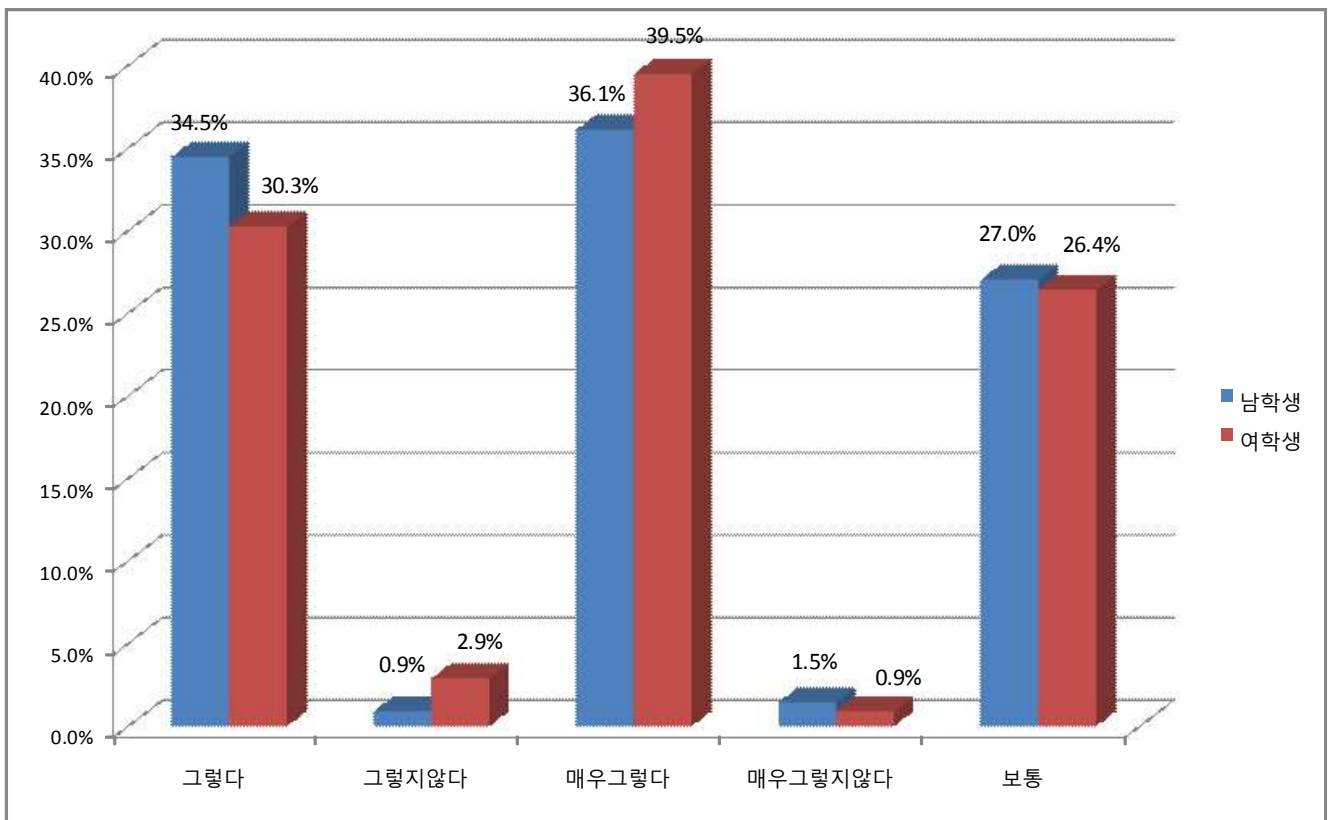
- '아동의 놀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'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시내지역 47.4%, 농어촌 55.6%, 기타 55%가 '매우 그렇다'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49.3%가 '매우 그렇다', 28.4%가 '그렇다'라고 응답하였음

## 9. 『아동에 관한 지원 및 활동을 할 때 아동의 입장 고려』에 대한 의견

### 아동의 입장 고려에 대한 성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지역사회에서 아동에 관한 지원 및 활동을 할 때 아동의 입장을 가장먼저 고려해야 한다					전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성별	남학생	190 34.5%	5 0.9%	199 36.1%	8 1.5%	149 27.0%	551 100.0%
	여학생	167 30.3%	16 2.9%	218 39.5%	5 0.9%	146 26.4%	552 100.0%
전체		357 32.4%	21 1.9%	417 37.8%	13 1.2%	295 26.7%	1103 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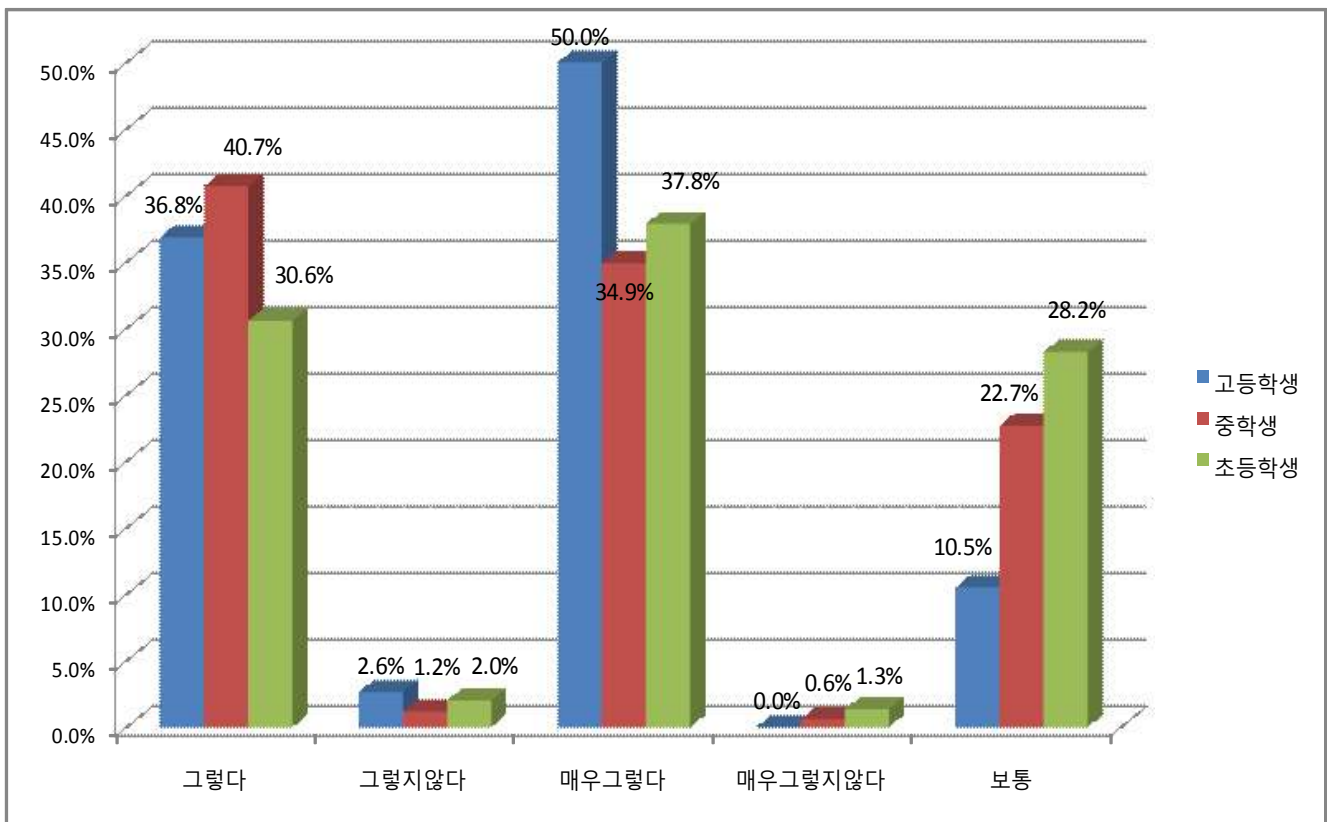


- '지역사회에서 아동에 관한 지원 및 활동을 할 때 아동의 입장을 가장먼저 고려해야 한다'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 36.1%, 여학생 39.5%가 '매우 그렇다'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37.8%가 '매우 그렇다', 32.4%가 '그렇다'라고 응답하였음

## 아동의 입장 고려에 대한 학년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지역사회에서 아동에 관한 지원 및 활동을 할 때 아동의 입장을 가장먼저 고려해야 한다					전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학년	고등학생	14 36.8%	1 2.6%	19 50.0%	0 0.0%	4 10.5%	38 100.0%
	중학생	70 40.7%	2 1.2%	60 34.9%	1 0.6%	39 22.7%	172 100.0%
	초등학생	273 30.6%	18 2.0%	338 37.8%	12 1.3%	252 28.2%	893 100.0%
전체		357 32.4%	21 1.9%	417 37.8%	13 1.2%	295 26.7%	1103 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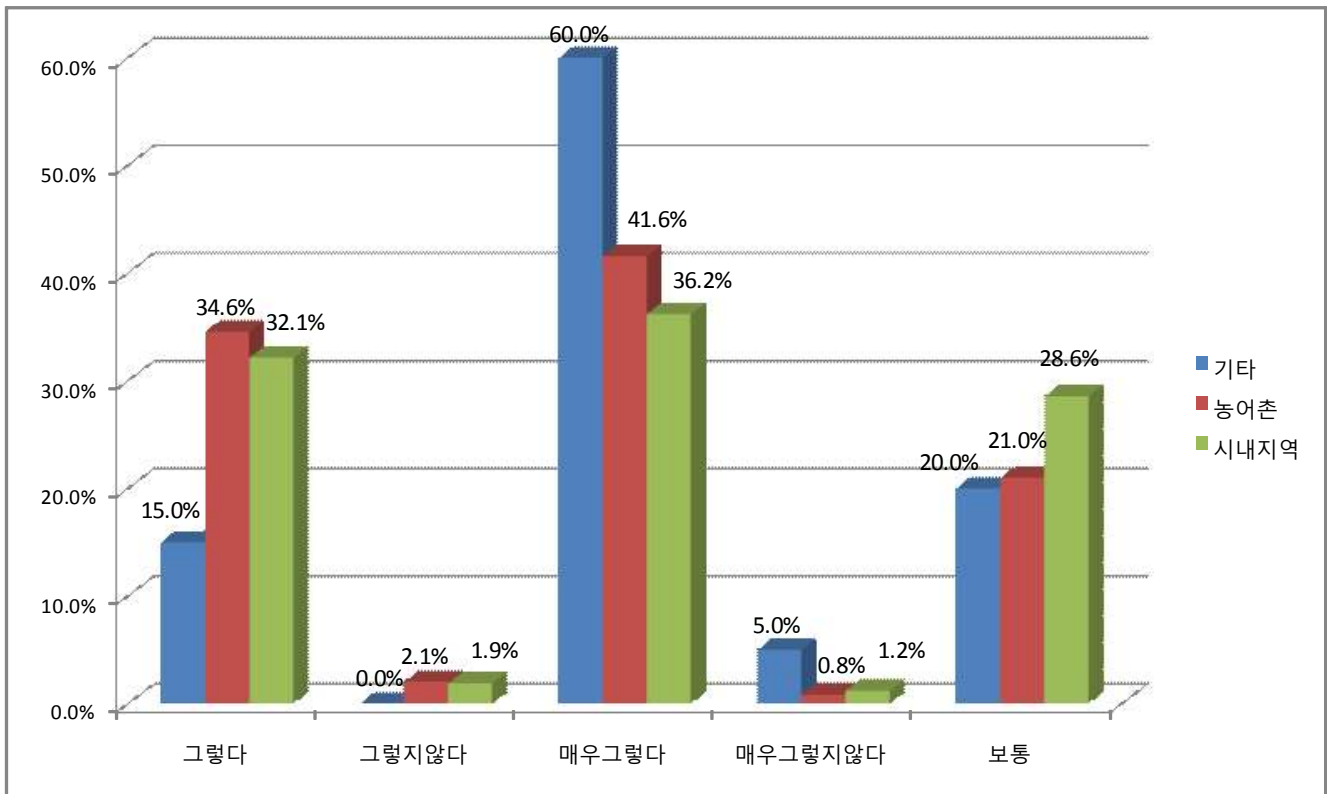


- '지역사회에서 아동에 관한 지원 및 활동을 할 때 아동의 입장을 가장먼저 고려해야 한다'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고등학생 50.0%, 중학생 34.9%, 초등학생 37.8%가 '매우 그렇다'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37.8%가 '매우 그렇다', 32.4%가 '그렇다' 라고 응답하였음

## 아동의 입장 고려에 대한 거주지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지역사회에서 아동에 관한 지원 및 활동을 할 때 아동의 입장을 가장먼저 고려해야 한다					전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거주지	기타	3	0	12	1	4	20
		15.0%	0.0%	60.0%	5.0%	20.0%	100.0%
	농어촌	84	5	101	2	51	243
		34.6%	2.1%	41.6%	.8%	21.0%	100.0%
시내지역	270	16	304	10	240	840	
	32.1%	1.9%	36.2%	1.2%	28.6%	100.0%	
전체		357	21	417	13	295	1103
		32.4%	1.9%	37.8%	1.2%	26.7%	100.0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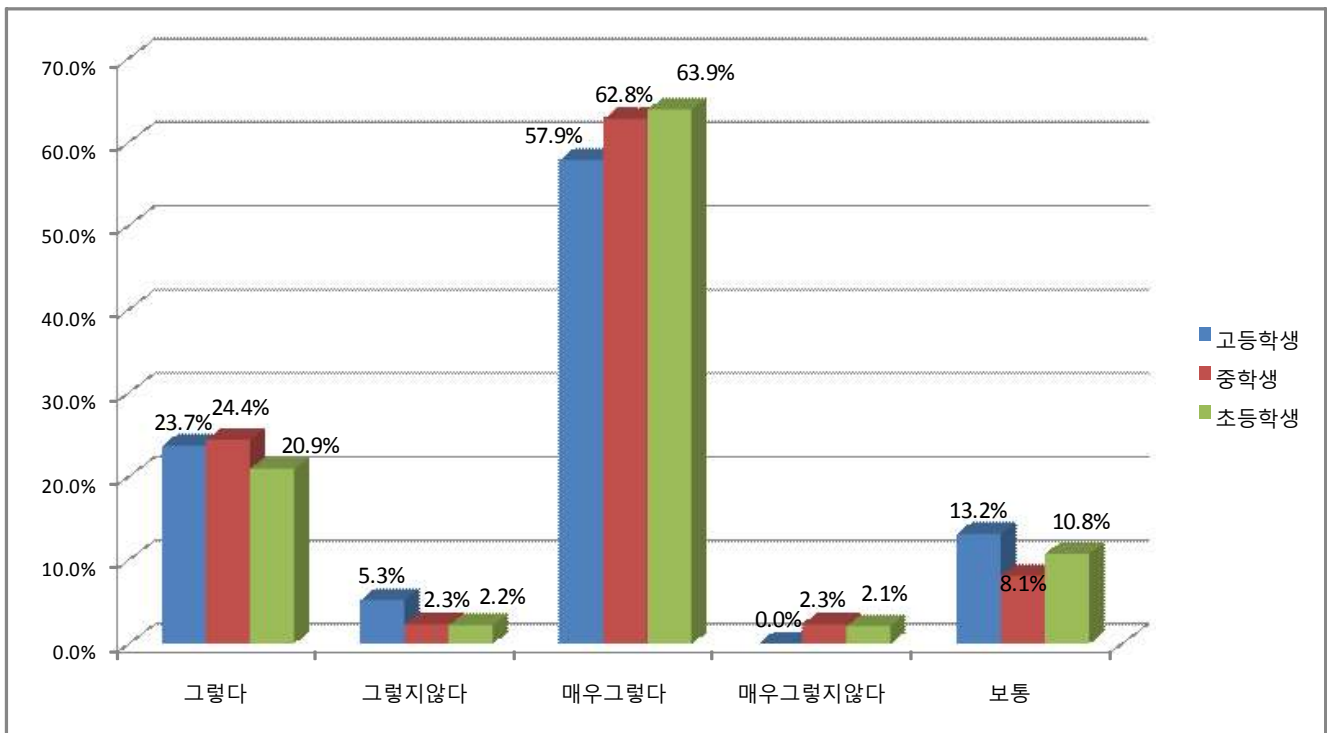
- '지역사회에서 아동에 관한 지원 및 활동을 할 때 아동의 입장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'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시내지역 36.2%, 농어촌 41.6%, 기타 60%가 '매우 그렇다'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37.8%가 '매우 그렇다', 32.4%가 '그렇다'라고 응답하였음

## 10. 『아동은 신체·정신적 폭력, 학대를 받아서는 안된다』에 대한 의견

### 신체·정신적 폭력, 학대에 대한 학년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은 신체·정신적 폭력, 학대를 받아서는 안된다					전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학년	고등학생	9	2	22	0	5	38
		23.7%	5.3%	57.9%	0.0%	13.2%	100.0%
	중학생	42	4	108	4	14	172
		24.4%	2.3%	62.8%	2.3%	8.1%	100.0%
초등학생	187	20	571	19	96	893	
	20.9%	2.2%	63.9%	2.1%	10.8%	100.0%	
전체		238	26	701	23	115	1,103
		21.6%	2.4%	63.6%	2.1%	10.4%	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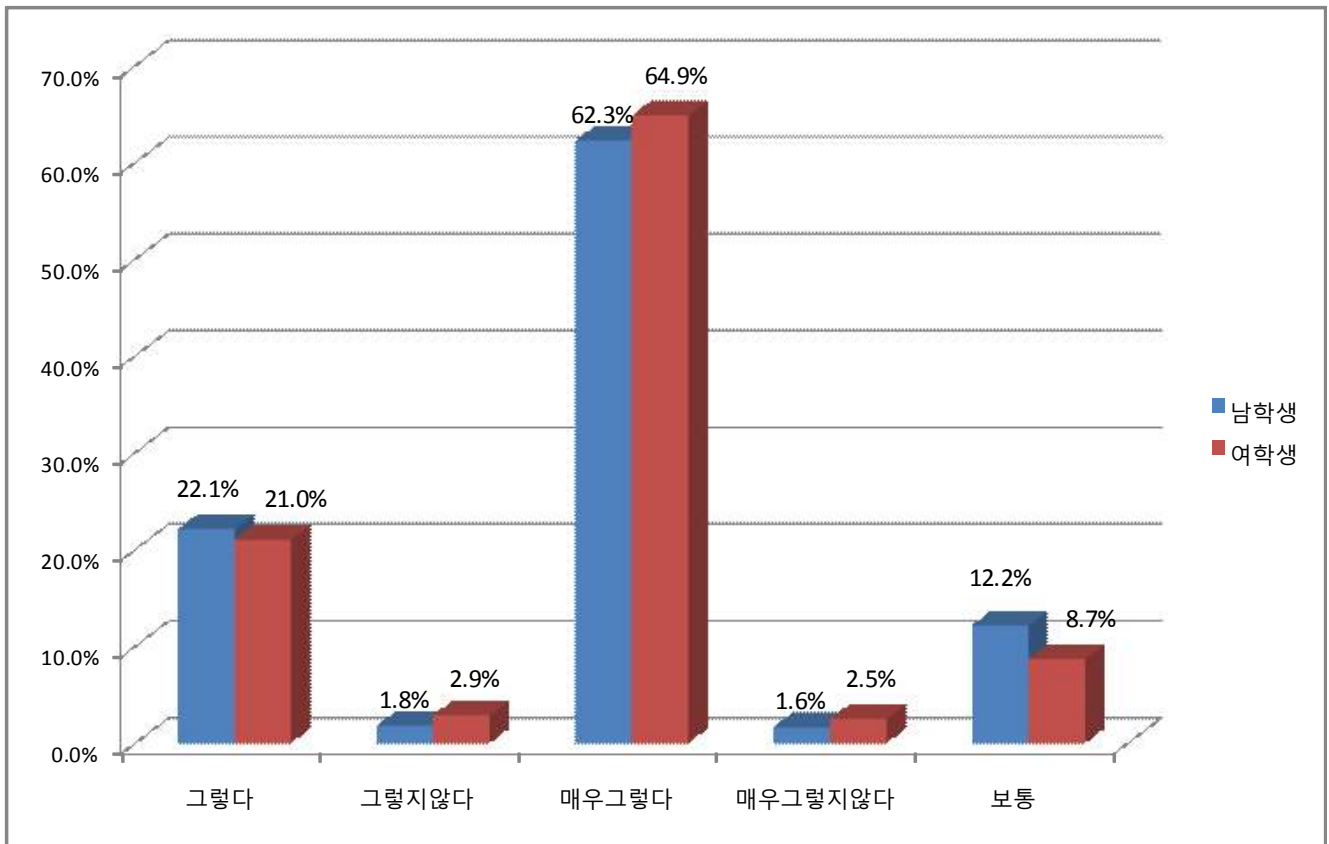


- ‘아동은 어떠한 경우라도 신체적·정신적 폭력, 학대를 절대 받아서는 안된다’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고등학생 57.9%, 중학생 62.8%, 초등학생 63.9%가 ‘매우 그렇다’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63.6%가 ‘매우 그렇다’, 21.6%가 ‘그렇다’라고 응답하였음

## 신체·정신적 폭력, 학대에 대한 성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은 신체·정신적 폭력, 학대를 받아서는 안된다					전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성별	남학생	122 22.1%	10 1.8%	343 62.3%	9 1.6%	67 12.2%	551 100.0%
	여학생	116 21.0%	16 2.9%	358 64.9%	14 2.5%	48 8.7%	552 100.0%
전체		238 21.6%	26 2.4%	701 63.6%	23 2.1%	115 10.4%	1103 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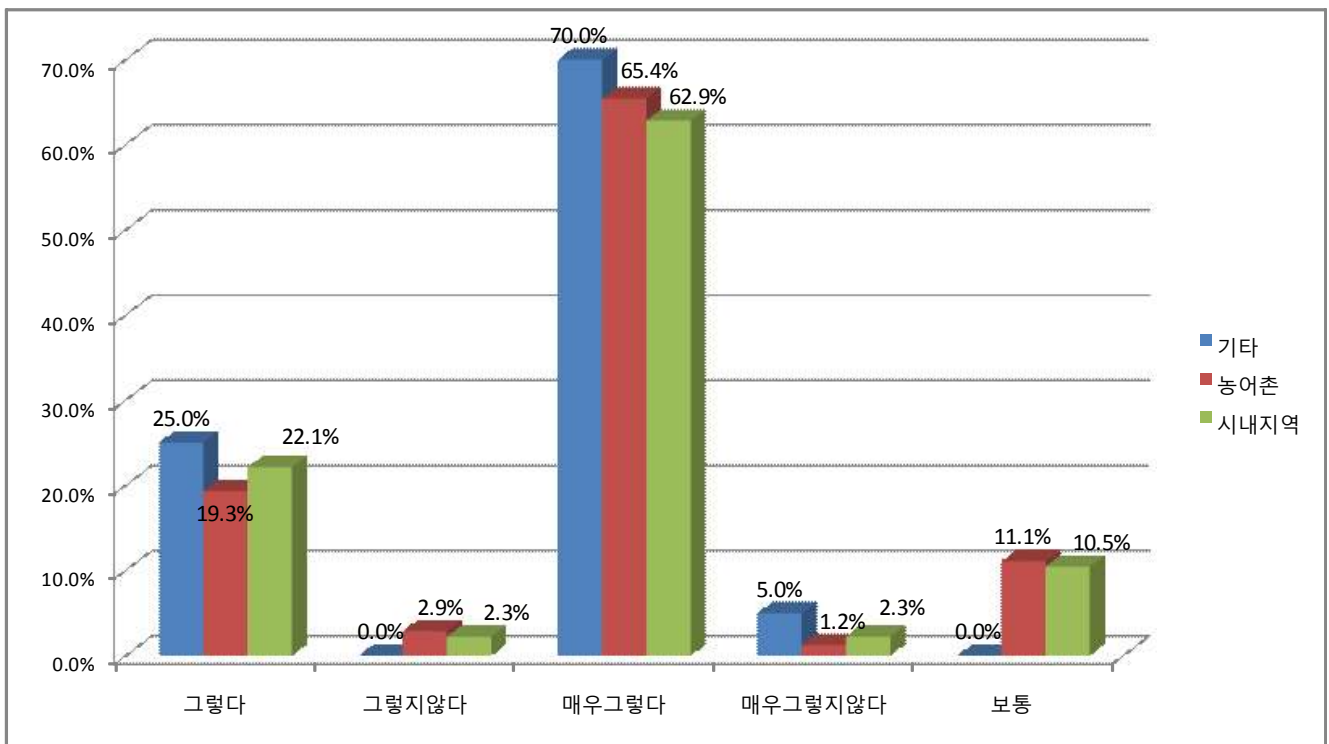


- '아동은 어떠한 경우라도 신체적·정신적 폭력, 학대를 절대 받아서는 안된다'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 62.3%, 여학생 64.9%가 '매우 그렇다'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63.6%가 '매우 그렇다', 21.6%가 '그렇다'라고 응답하였음

## 신체·정신적 폭력, 학대에 대한 거주지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은 신체·정신적 폭력, 학대를 받아서는 안된다					전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거주지	기타	5	0	14	1	0	20
		25.0%	0.0%	70.0%	5.0%	0.0%	100.0%
	농어촌	47	7	159	3	27	243
		19.3%	2.9%	65.4%	1.2%	11.1%	100.0%
	시내지역	186	19	528	19	88	840
		22.1%	2.3%	62.9%	2.3%	10.5%	100.0%
전체		238	26	701	23	115	1103
		21.6%	2.4%	63.6%	2.1%	10.4%	100.0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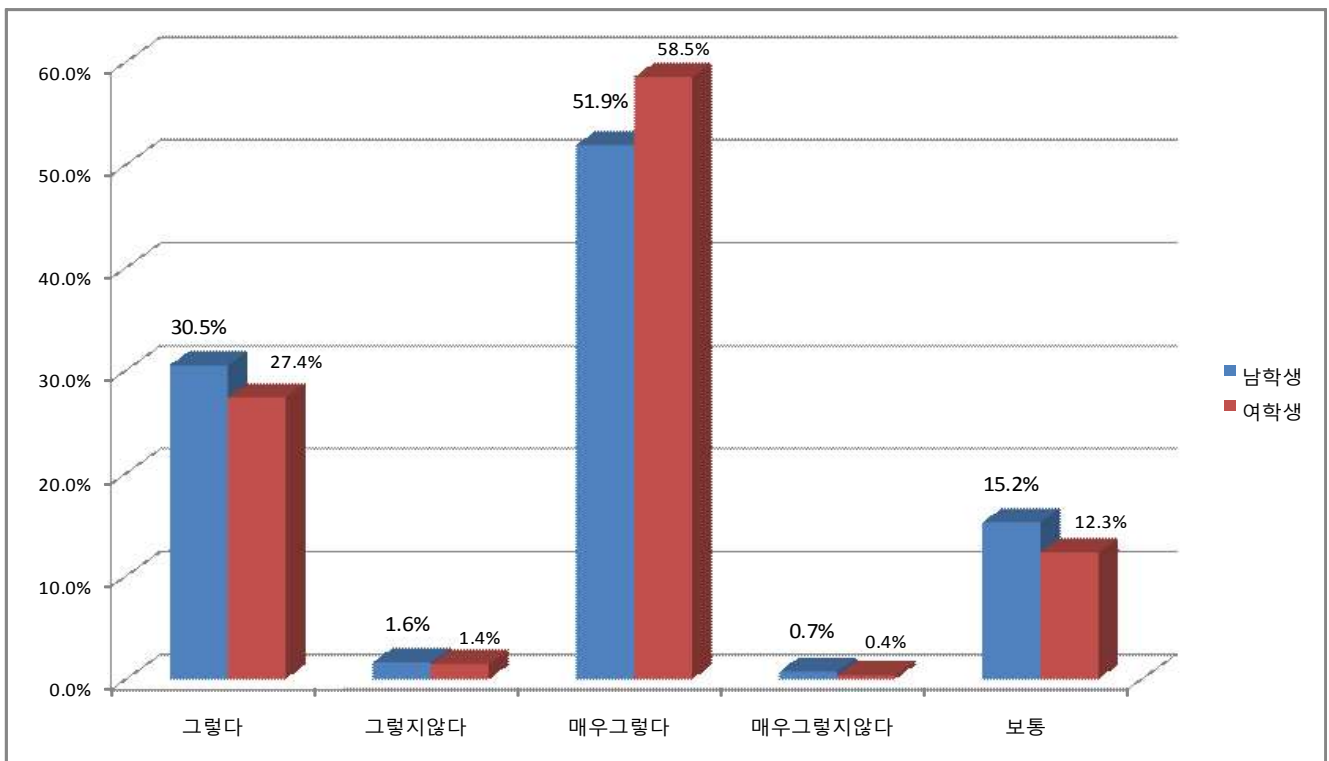
- '아동은 어떠한 경우라도 신체적·정신적 폭력, 학대를 절대 받아서는 안된다'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시내지역 62.9%, 농어촌 65.4%, 기타 70.0%가 '매우 그렇다'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63.6%가 '매우 그렇다', 21.6%가 '그렇다'라고 응답하였음

## 11. 『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시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』에 대한 의견

### 장애아동 무차별에 대한 성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성장하도록 국가·군산시가 함께 최선을 노력을 해야한다					전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성별	남학생	168 30.5%	9 1.6%	286 51.9%	4 0.7%	84 15.2%	551 100.0%
	여학생	151 27.4%	8 1.4%	323 58.5%	2 0.4%	68 12.3%	552 100.0%
전체		319 28.9%	17 1.5%	609 55.2%	6 0.5%	152 13.8%	1103 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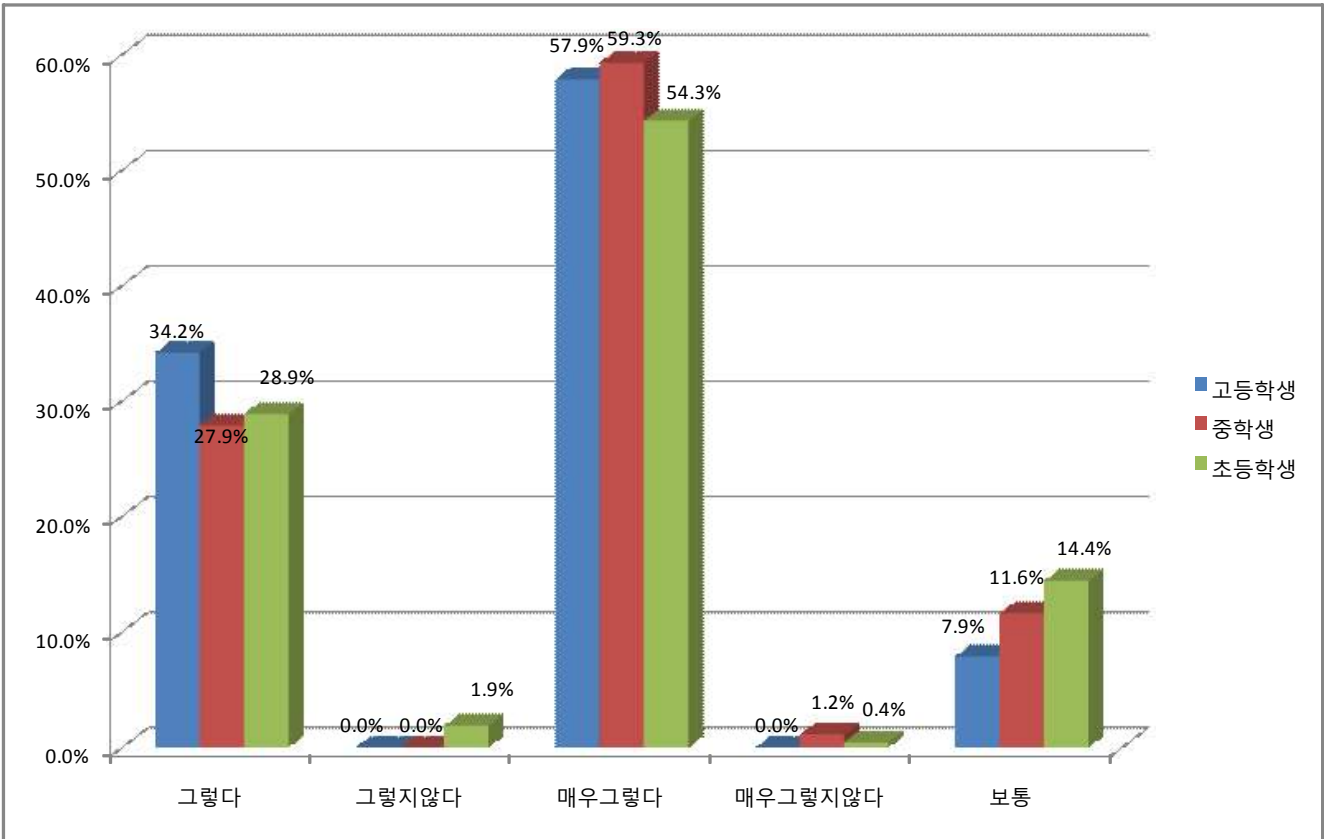


- ‘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성장하도록 국가·군산시가 함께 최선을 노력을 해야한다’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 51.9%, 여학생 58.5%가 ‘매우 그렇다’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55.2%가 ‘매우 그렇다’, 28.9%가 ‘그렇다’라고 응답하였음

## 장애아동 무차별에 대한 학년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성장하도록 국가·군산시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					전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학년	고등학생	13	0	22	0	3	38
		34.2%	0.0%	57.9%	0.0%	7.9%	100.0%
	중학생	48	0	102	2	20	172
27.9%		0.0%	59.3%	1.2%	11.6%	100.0%	
초등학생	258	17	485	4	129	893	
	28.9%	1.9%	54.3%	0.4%	14.4%	100.0%	
전체		319	17	609	6	152	1,103
		28.9%	1.5%	55.2%	0.5%	13.8%	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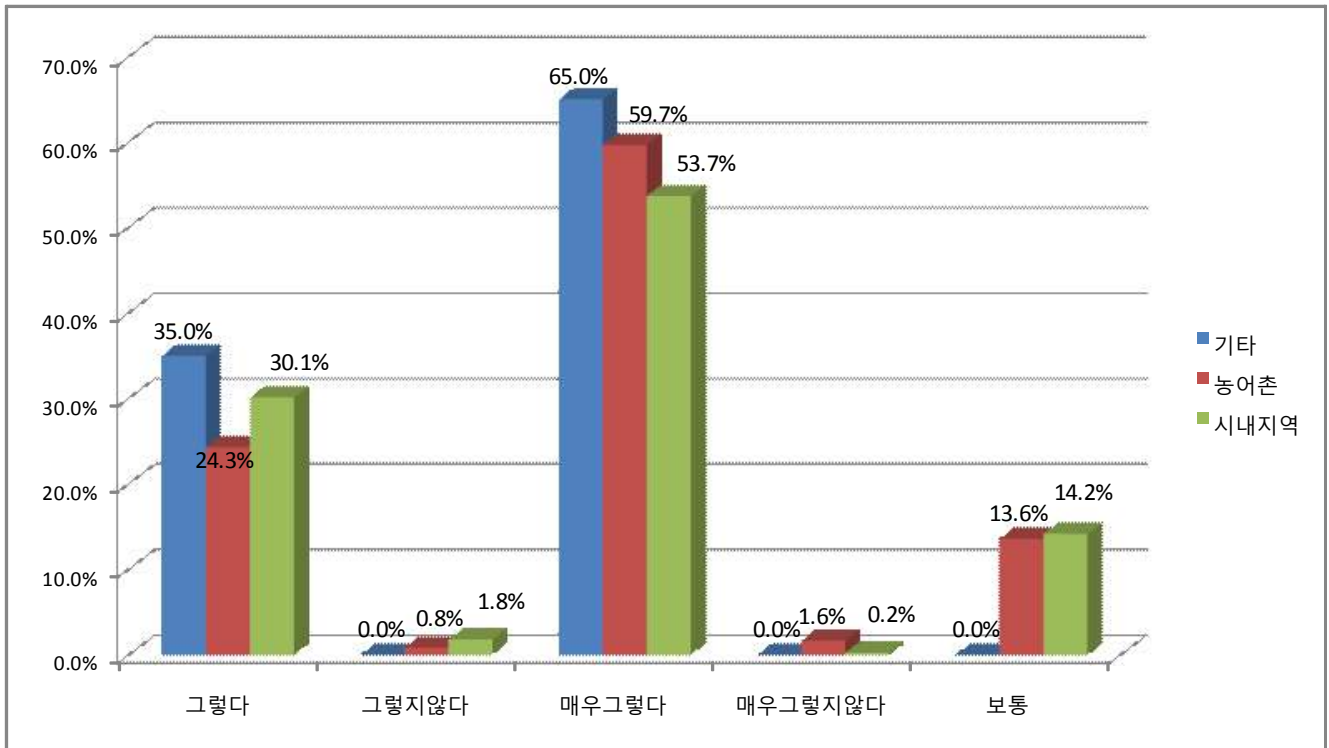


- '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성장하도록 국가·군산시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'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고등학생 57.9%, 중학생 59.3%, 초등학생 54.3%가 '매우 그렇다'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55.2%가 '매우 그렇다', 28.9%가 '그렇다'라고 응답하였음

## 장애아동 무차별에 대한 거주지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성장하도록 국가·군산시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					전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거주지	기타	7	0	13	0	0	20
		35.0%	0.0%	65.0%	0.0%	0.0%	100.0%
	농어촌	59	2	145	4	33	243
		24.3%	0.8%	59.7%	1.6%	13.6%	100.0%
	시내지역	253	15	451	2	119	840
		30.1%	1.8%	53.7%	0.2%	14.2%	100.0%
전체		319	17	609	6	152	1103
		28.9%	1.5%	55.2%	0.5%	13.8%	100.0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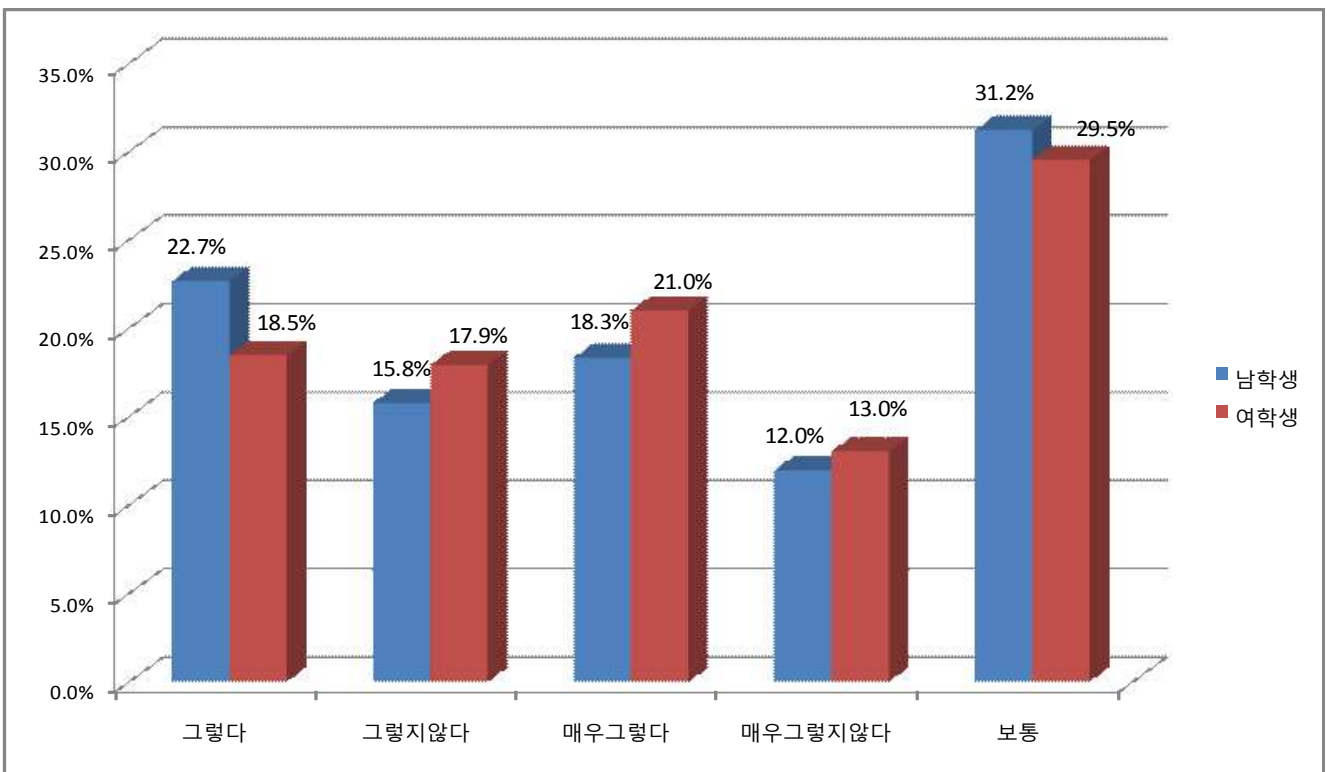
- '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성장하도록 국가·군산시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'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시내지역 53.7%, 농어촌 59.7%, 기타 65.0%가 '매우 그렇다'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55.2%가 '매우 그렇다', 28.9%가 '그렇다'라고 응답하였음

## 12. 『아동범죄는 성인과 동일하게 대하거나 다뤄져야 한다』에 대한 의견

### 아동범죄 관련 성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대하거나 다뤄져야 한다					전 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성별	남학생	125 22.7%	87 15.8%	101 18.3%	66 12.0%	172 31.2%	551 100.0%
	여학생	102 18.5%	99 17.9%	116 21.0%	72 13.0%	163 29.5%	552 100.0%
전체		227 20.6%	186 16.9%	217 19.7%	138 12.5%	335 30.4%	1103 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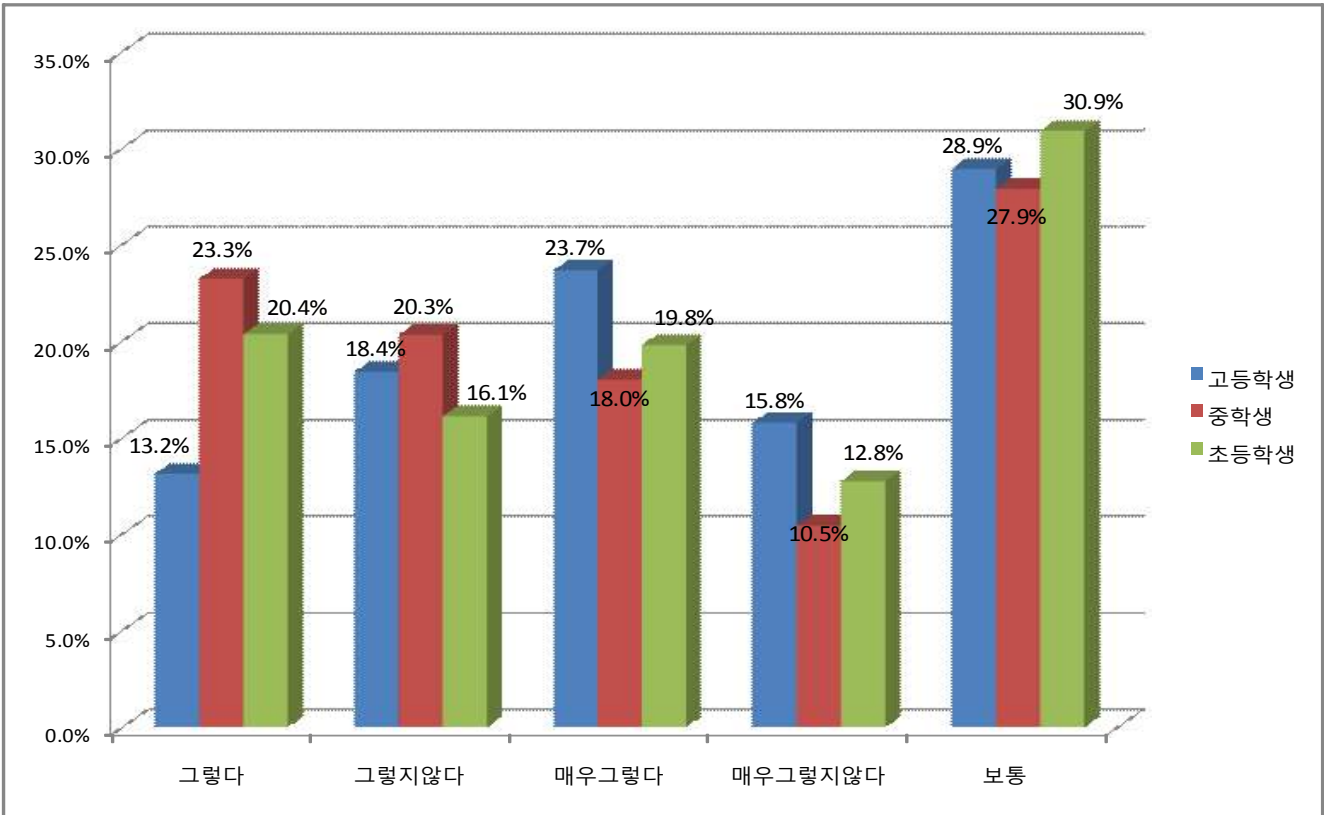


- ‘아동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과 동등하게 대하거나 다뤄져야 한다’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 18.3%, 여학생 21.0%가 ‘매우 그렇다’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30.4%가 ‘보통’, 20.6%가 ‘그렇다’라고 응답하였음

## 아동범죄 관련 학년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대하거나 다뤄져야 한다					전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학년	고등학생	5 13.2%	7 18.4%	9 23.7%	6 15.8%	11 28.9%	38 100.0%
	중학생	40 23.3%	35 20.3%	31 18.0%	18 10.5%	48 27.9%	172 100.0%
	초등학생	182 20.4%	144 16.1%	177 19.8%	114 12.8%	276 30.9%	893 100.0%
전체		227 20.6%	186 16.9%	217 19.7%	138 12.5%	335 30.4%	1103 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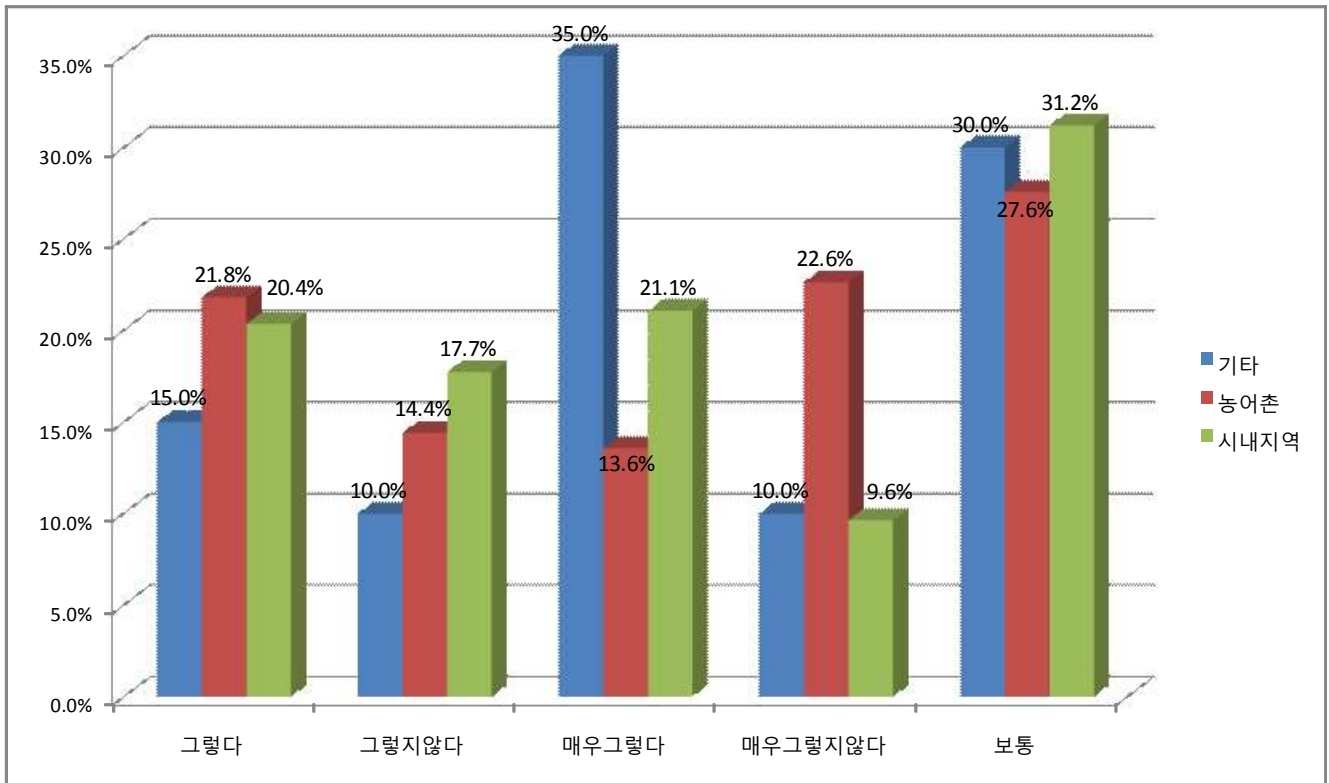


- ‘아동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과 동등하게 대하거나 다뤄져야 한다’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고등학생 23.7%, 중학생 18.0%, 초등학생 19.8%가 ‘매우 그렇다’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30.4%가 ‘보통’, 20.6%가 ‘그렇다’라고 응답하였음

## 아동범죄 관련 거주지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대하거나 다뤄져야 한다					전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거주지	기타	3	2	7	2	6	20
		15.0%	10.0%	35.0%	10.0%	30.0%	100.0%
	농어촌	53	35	33	55	67	243
		21.8%	14.4%	13.6%	22.6%	27.6%	100.0%
	시내지역	171	149	177	81	262	840
		20.4%	17.7%	21.1%	9.6%	31.2%	100.0%
전체		227	186	217	138	335	1103
		20.6%	16.9%	19.7%	12.5%	30.4%	100.0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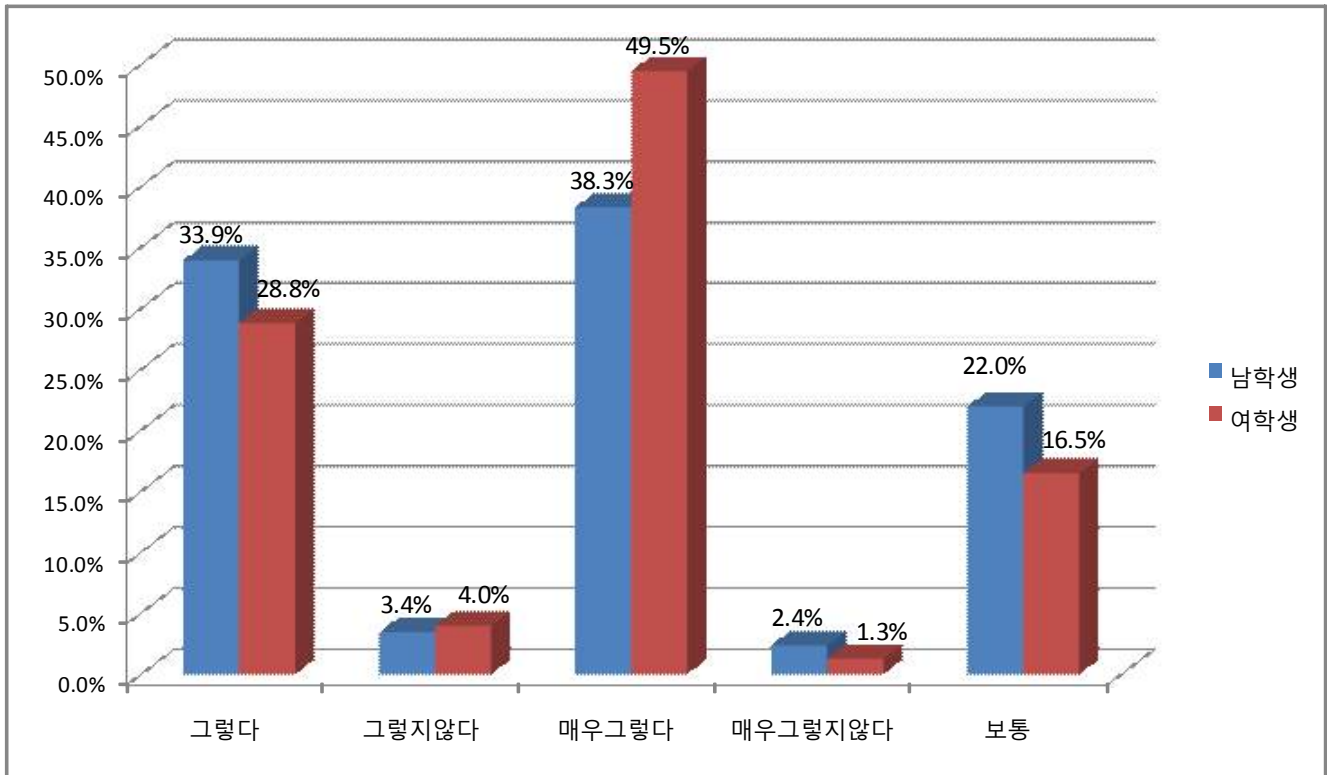
- ‘아동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과 동등하게 대하거나 다뤄져야 한다’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시내지역 21.1%, 농어촌 13.6%, 기타 35.0%가 ‘매우 그렇다’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30.4%가 ‘보통’, 20.6%가 ‘그렇다’라고 응답하였음

### 13. 『아동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』에 대한 의견

#### 종교 선택권리에 대한 성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이 자신의 종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					전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성별	남학생	187 33.9%	19 3.4%	211 38.3%	13 2.4%	121 22.0%	551 100.0%
	여학생	159 28.8%	22 4.0%	273 49.5%	7 1.3%	91 16.5%	552 100.0%
전체		346 31.4%	41 3.7%	484 43.9%	20 1.8%	212 19.2%	1103 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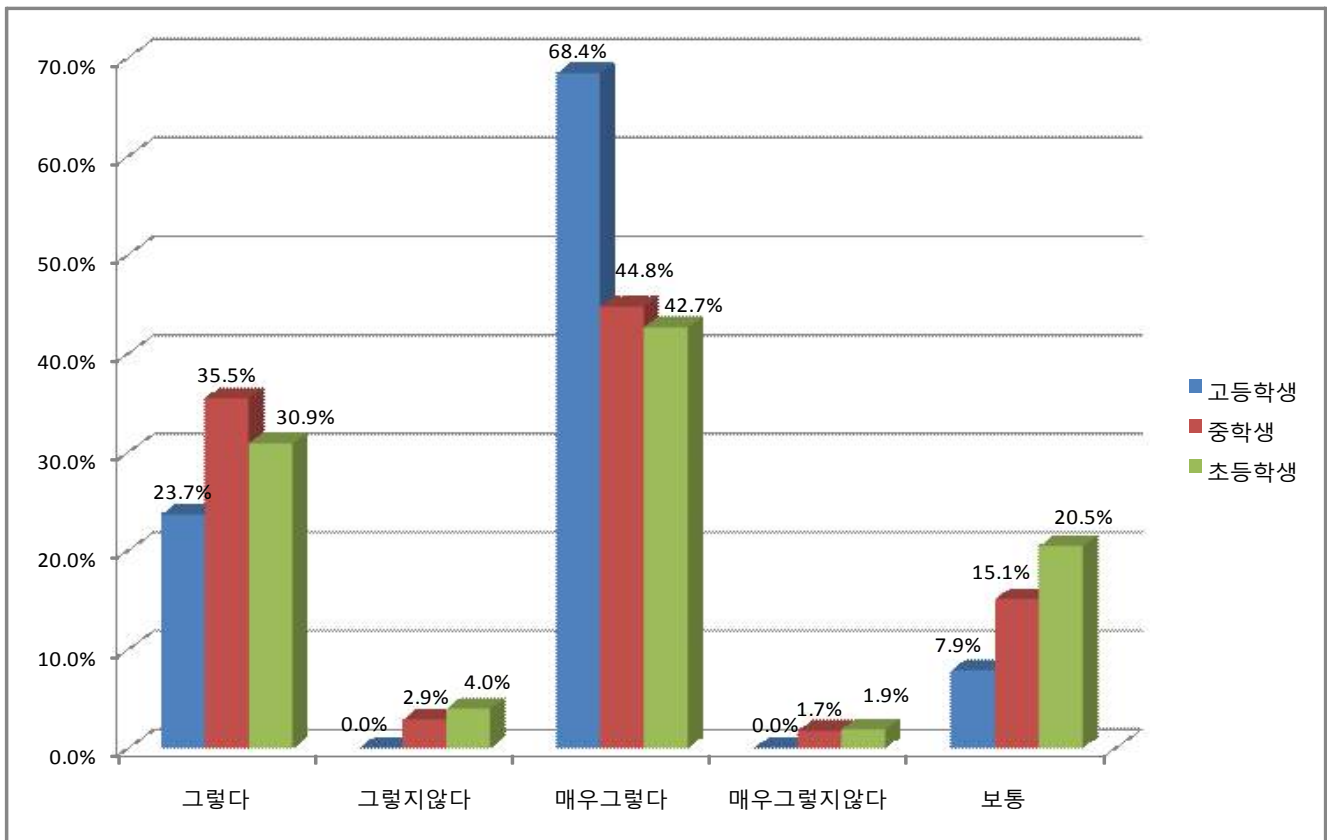


- ‘아동이 자신의 종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’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 38.3%, 여학생 49.5%가 ‘매우 그렇다’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43.9%가 ‘매우 그렇다’, 31.4%가 ‘그렇다’라고 응답하였음

## 종교 선택권리에 대한 학년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이 자신의 종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					전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학년	고등학생	9	0	26	0	3	38
		23.7%	0.0%	68.4%	0.0%	7.9%	100.0%
	중학생	61	5	77	3	26	172
		35.5%	2.9%	44.8%	1.7%	15.1%	100.0%
	초등학생	276	36	381	17	183	893
		30.9%	4.0%	42.7%	1.9%	20.5%	100.0%
전 체		346	41	484	20	212	1,103
		31.4%	3.7%	43.9%	1.8%	19.2%	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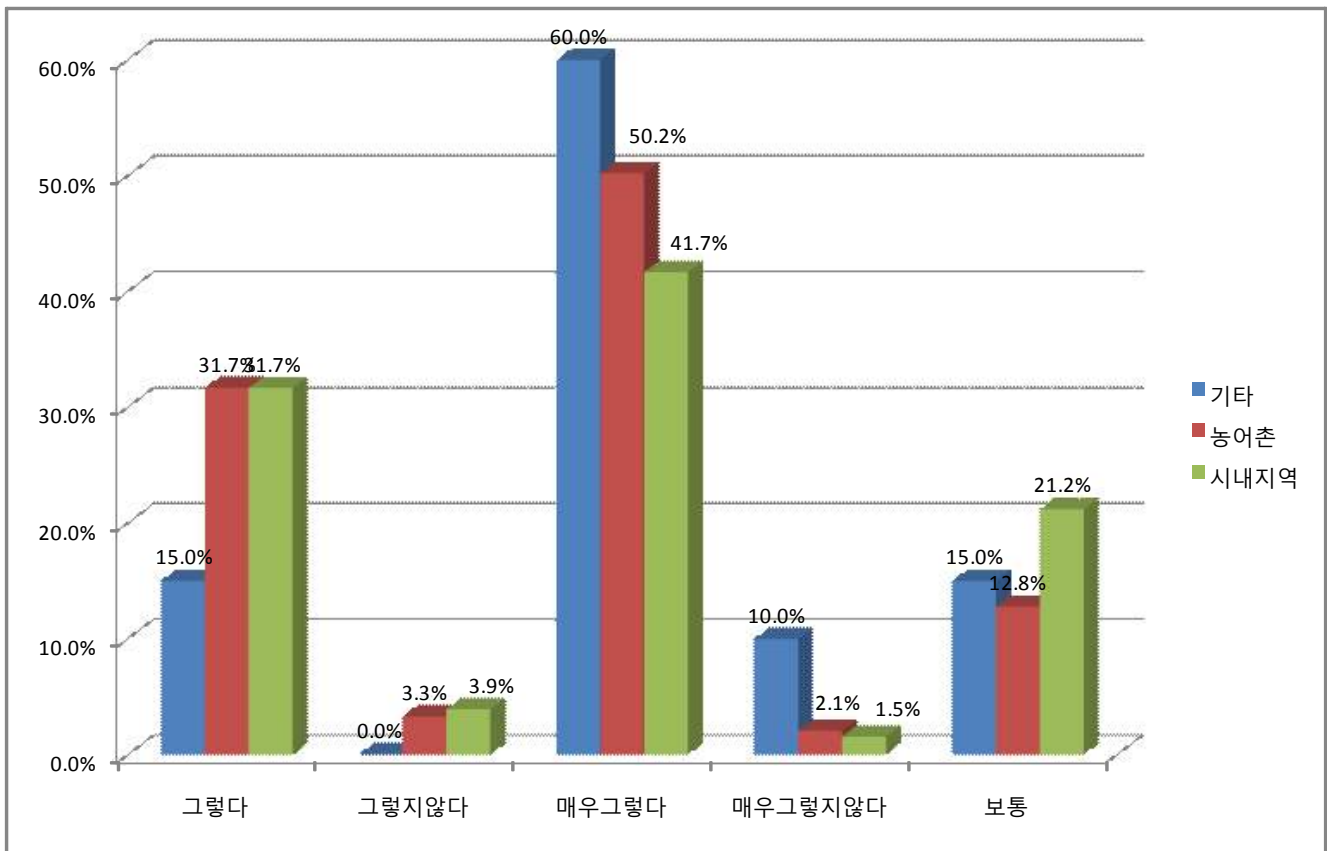


- '아동이 자신의 종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'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고등학생 68.4%, 중학생 44.8%, 초등학생 42.7%가 '매우 그렇다'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43.9%가 '매우 그렇다', 31.4%가 '그렇다'라고 응답하였음

## 종교 선택권리에 대한 학년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이 자신의 종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					전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거주지	기타	3	0	12	2	3	20
		15.0%	0.0%	60.0%	10.0%	15.0%	100.0%
	농어촌	77	8	122	5	31	243
		31.7%	3.3%	50.2%	2.1%	12.8%	100.0%
	시내지역	266	33	350	13	178	840
		31.7%	3.9%	41.7%	1.5%	21.2%	100.0%
전체		346	41	484	20	212	1,103
		31.4%	3.7%	43.9%	1.8%	19.2%	100.0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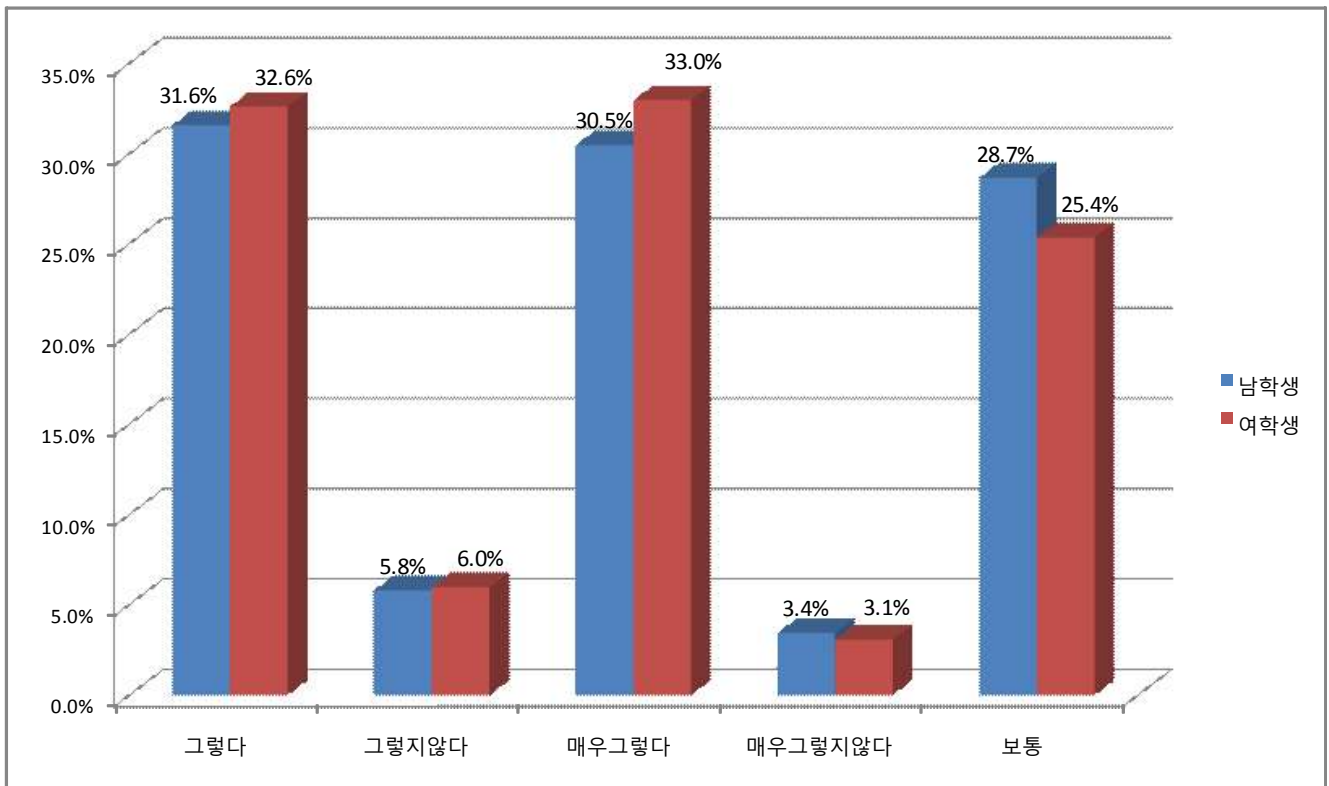
- ‘아동이 자신의 종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’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시내지역 41.7%, 농어촌 50.2%, 기타 60.0%가 ‘매우 그렇다’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43.9%가 ‘매우 그렇다’, 31.4%가 ‘그렇다’라고 응답하였음

## 14. 『아동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접근』에 대한 의견

### 알고 싶어하는 정보접근에 대한 성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					전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성별	남학생	174	32	168	19	158	551
		31.6%	5.8%	30.5%	3.4%	28.7%	100.0%
	여학생	180	33	182	17	140	552
		32.6%	6.0%	33.0%	3.1%	25.4%	100.0%
전체		354	65	350	36	298	1,103
		32.1%	5.9%	31.7%	3.3%	27.0%	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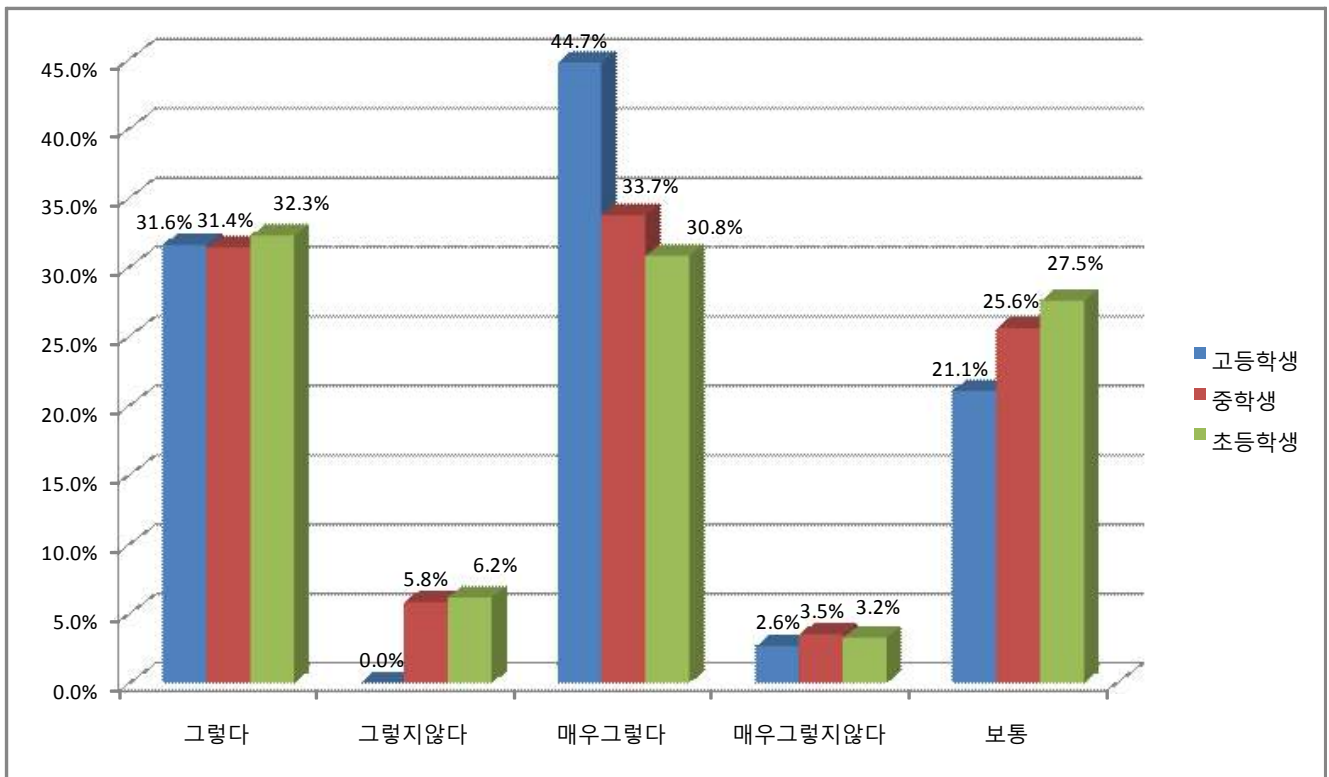


- ‘아동이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’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 30.5%, 여학생 33.0%가 ‘매우 그렇다’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31.7%가 ‘매우 그렇다’, 32.1%가 ‘그렇다’라고 응답하였음

## 알고 싶어하는 정보접근에 대한 학년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					전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학년	고등학생	12	0	17	1	8	38
		31.6%	0.0%	44.7%	2.6%	21.1%	100.0%
	중학생	54	10	58	6	44	172
		31.4%	5.8%	33.7%	3.5%	25.6%	100.0%
	초등학생	288	55	275	29	246	893
		32.3%	6.2%	30.8%	3.2%	27.5%	100.0%
전체		354	65	350	36	298	1,103
		32.1%	5.9%	31.7%	3.3%	27.0%	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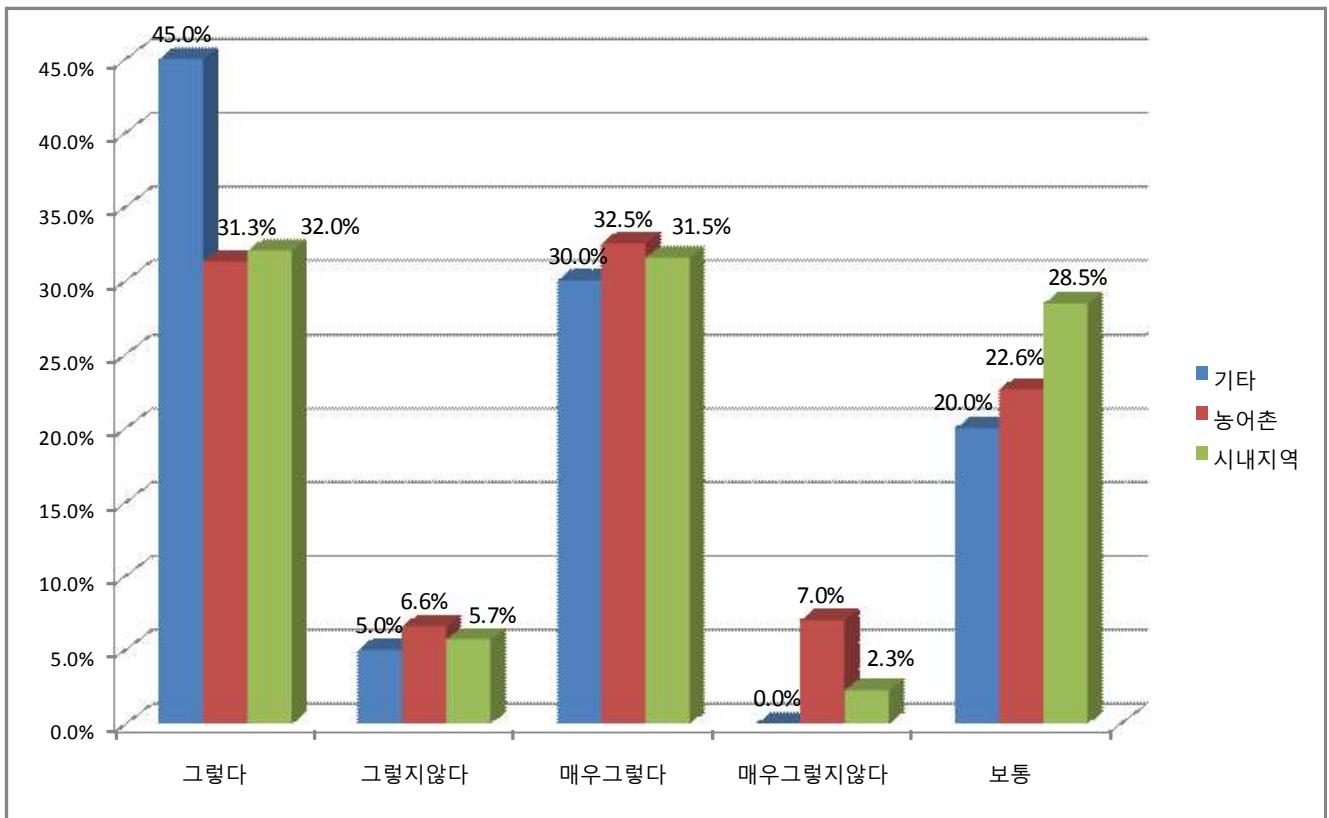


- '아동이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'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고등학생 44.7%, 중학생 33.7%, 초등학생 30.8%가 '매우 그렇다'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31.7%가 '매우 그렇다', 32.1%가 '그렇다'라고 응답하였음

## 알고 싶어하는 정보접근에 대한 거주지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					전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거주지	기타	9	1	6	0	4	20
		45.0%	5.0%	30.0%	0.0%	20.0%	100.0%
	농어촌	76	16	79	17	55	243
		31.3%	6.6%	32.5%	7.0%	22.6%	100.0%
	시내지역	269	48	265	19	239	840
		32.0%	5.7%	31.5%	2.3%	28.5%	100.0%
전체		354	65	350	36	298	1,103
		32.1%	5.9%	31.7%	3.3%	27.0%	100.0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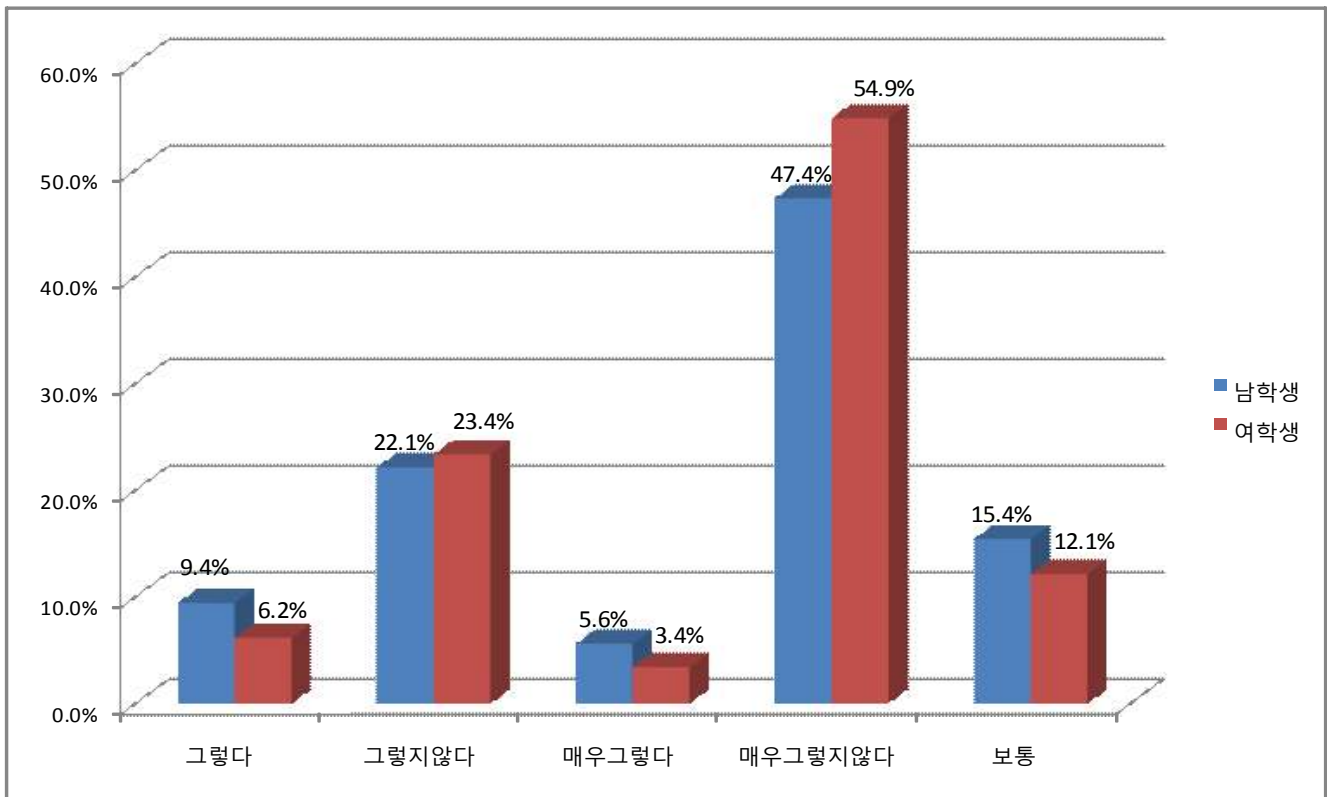
- '아동이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'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시내지역 31.5%, 농어촌 32.5%, 기타 30.0%가 '매우 그렇다'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31.7%가 '매우 그렇다', 32.1%가 '그렇다'라고 응답하였음

## 15. 『아동이 신체·정신적으로 위험한 노동을 해도 괜찮다』에 대한 의견

### 위험한 노동에 대한 성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이 신체·정신적으로 위험한 노동을 해도 괜찮다					전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성별	남학생	52 9.4%	122 22.1%	31 5.6%	261 47.4%	85 15.4%	551 100.0%
	여학생	34 6.2%	129 23.4%	19 3.4%	303 54.9%	67 12.1%	552 100.0%
전체		86 7.8%	251 22.8%	50 4.5%	564 51.1%	152 13.8%	1103 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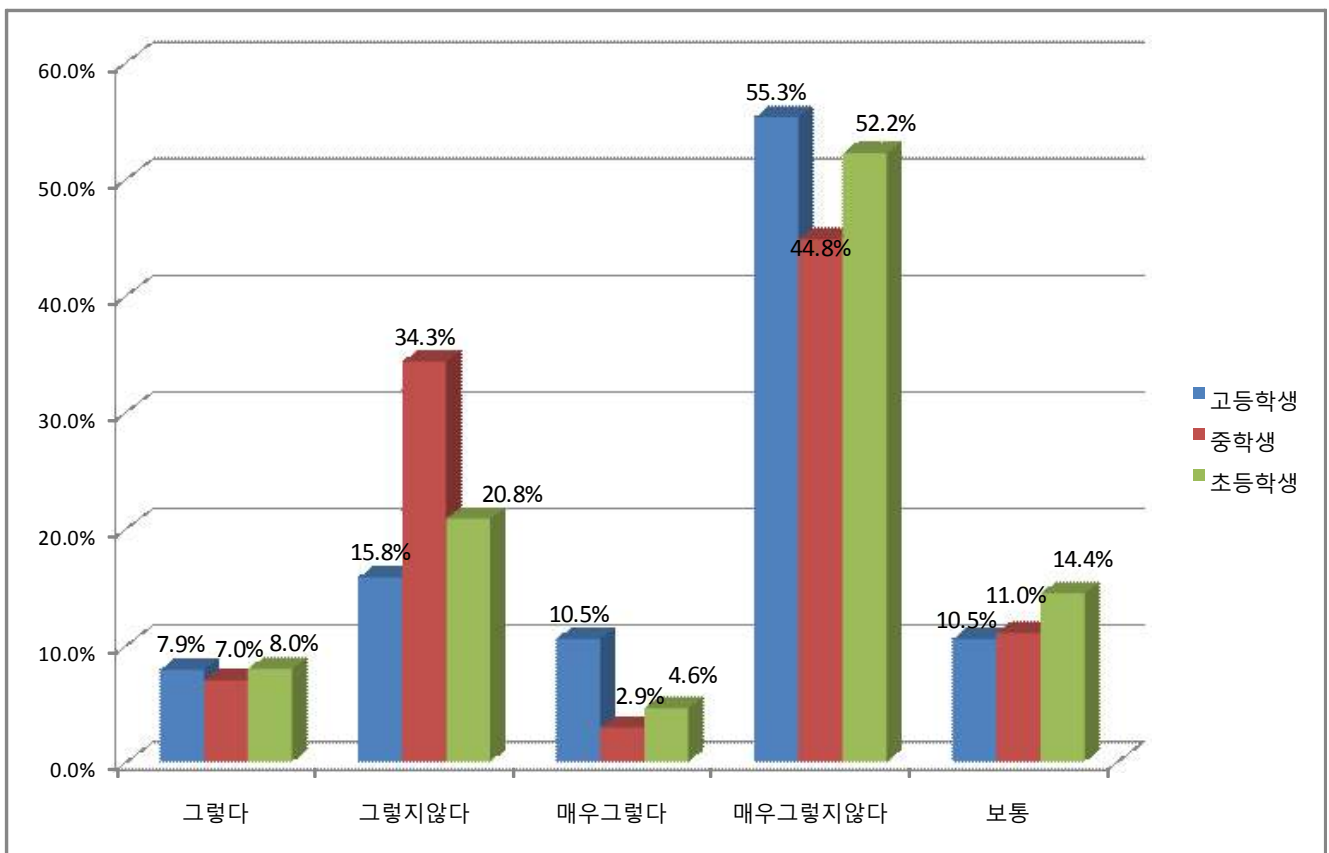


- ‘아동이 신체·정신적으로 위험한 노동을 해도 괜찮다’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 47.4%, 여학생 54.9%가 ‘매우 그렇지 않다’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51.1%가 ‘매우 그렇지 않다’, 22.8%가 ‘그렇지 않다’라고 응답하였음

## 위험한 노동에 대한 학년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이 신체·정신적으로 위험한 노동을 해도 괜찮다					전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학년	고등학생	3	6	4	21	4	38
		7.9%	15.8%	10.5%	55.3%	10.5%	100.0%
	중학생	12	59	5	77	19	172
		7.0%	34.3%	2.9%	44.8%	11.0%	100.0%
	초등학생	71	186	41	466	129	893
		8.0%	20.8%	4.6%	52.2%	14.4%	100.0%
전체		86	251	50	564	152	1,103
		7.8%	22.8%	4.5%	51.1%	13.8%	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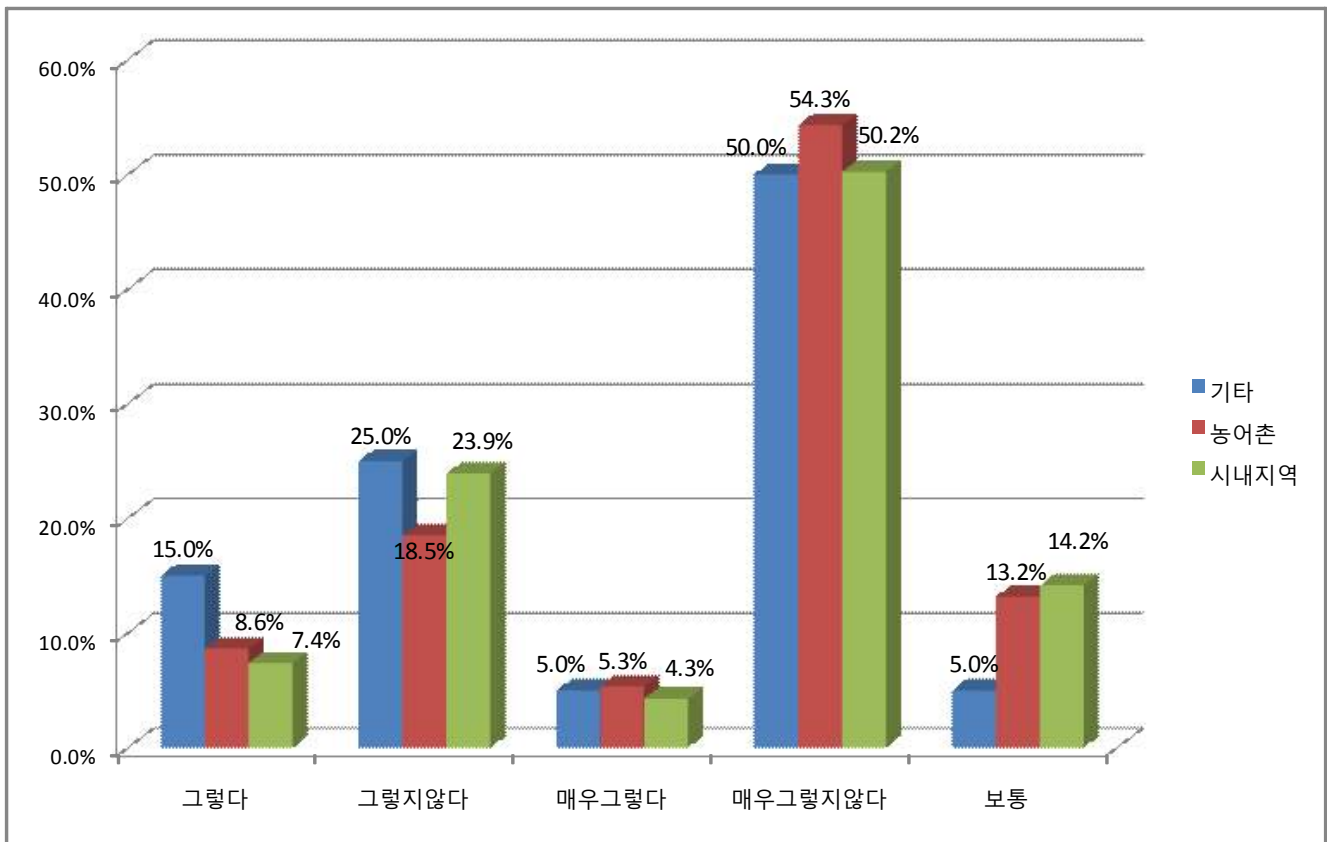


- '아동이 신체·정신적으로 위험한 노동을 해도 괜찮다'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고등학생 55.3%, 중학생 44.8%, 초등학생 52.2% 가 '매우 그렇지 않다'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51.1%가 '매우 그렇지 않다', 22.8%가 '그렇지 않다'라고 응답하였음

## 위험한 노동에 대한 거주지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이 신체·정신적으로 위험한 노동을 해도 괜찮다					전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거주지	기타	3	5	1	10	1	20
		15.0%	25.0%	5.0%	50.0%	5.0%	100.0%
	농어촌	21	45	13	132	32	243
		8.6%	18.5%	5.3%	54.3%	13.2%	100.0%
	시내지역	62	201	36	422	119	840
		7.4%	23.9%	4.3%	50.2%	14.2%	100.0%
전체		86	251	50	564	152	1,103
		7.8%	22.8%	4.5%	51.1%	13.8%	100.0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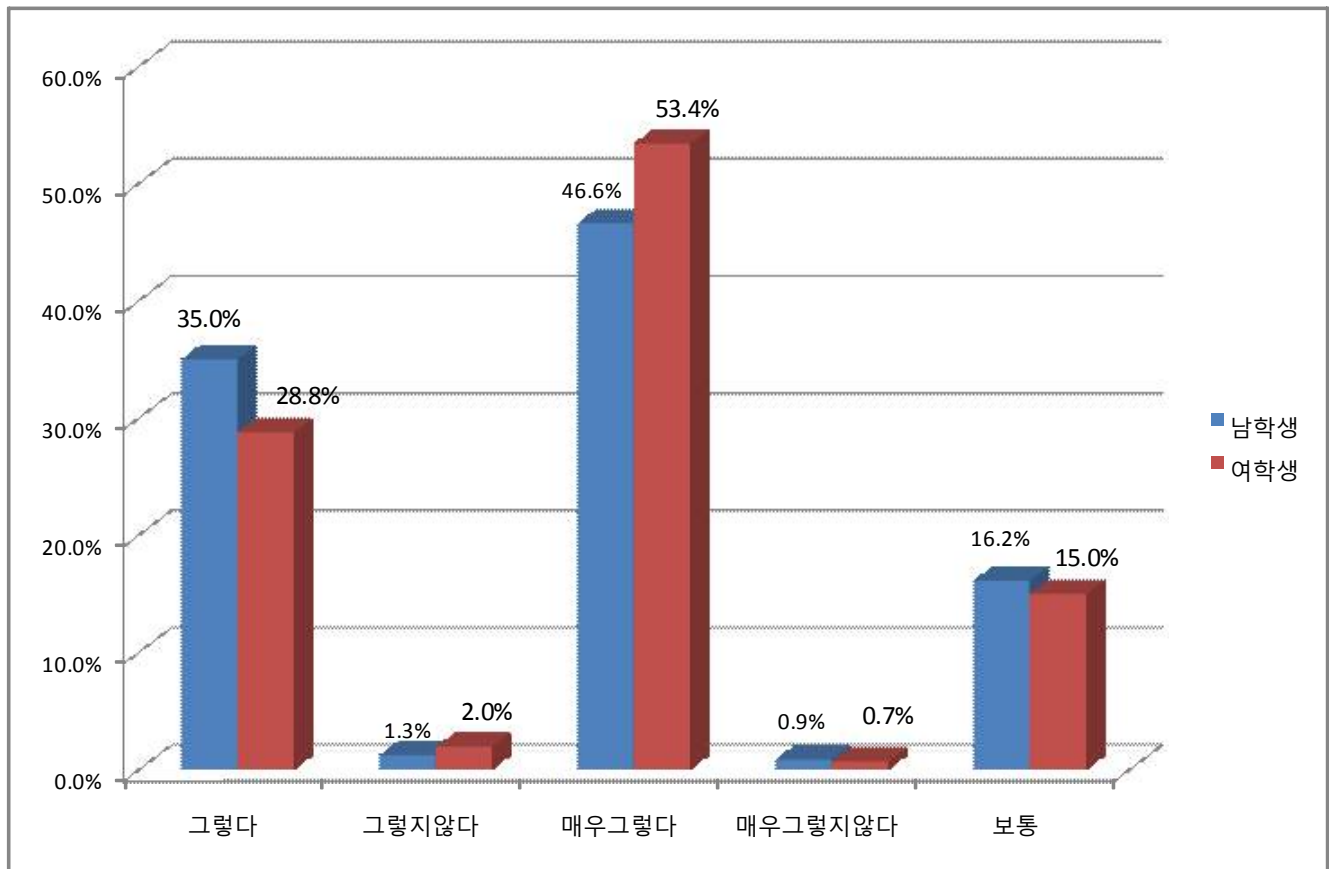
- '아동이 신체·정신적으로 위험한 노동을 해도 괜찮다'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시내지역 50.2%, 농어촌 54.3%, 기타 50.0%가 '매우 그렇지 않다'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51.1%가 '매우 그렇지 않다', 22.8%가 '그렇지 않다'라고 응답하였음

## 16. 『아동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』에 대한 의견

### 아동의 사생활 보호에 성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					전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성별	남학생	193 35.0%	7 1.3%	257 46.6%	5 0.9%	89 16.2%	551 100.0%
	여학생	159 28.8%	11 2.0%	295 53.4%	4 0.7%	83 15.0%	552 100.0%
전체		352 31.9%	18 1.6%	552 50.0%	9 0.8%	172 15.6%	1,103 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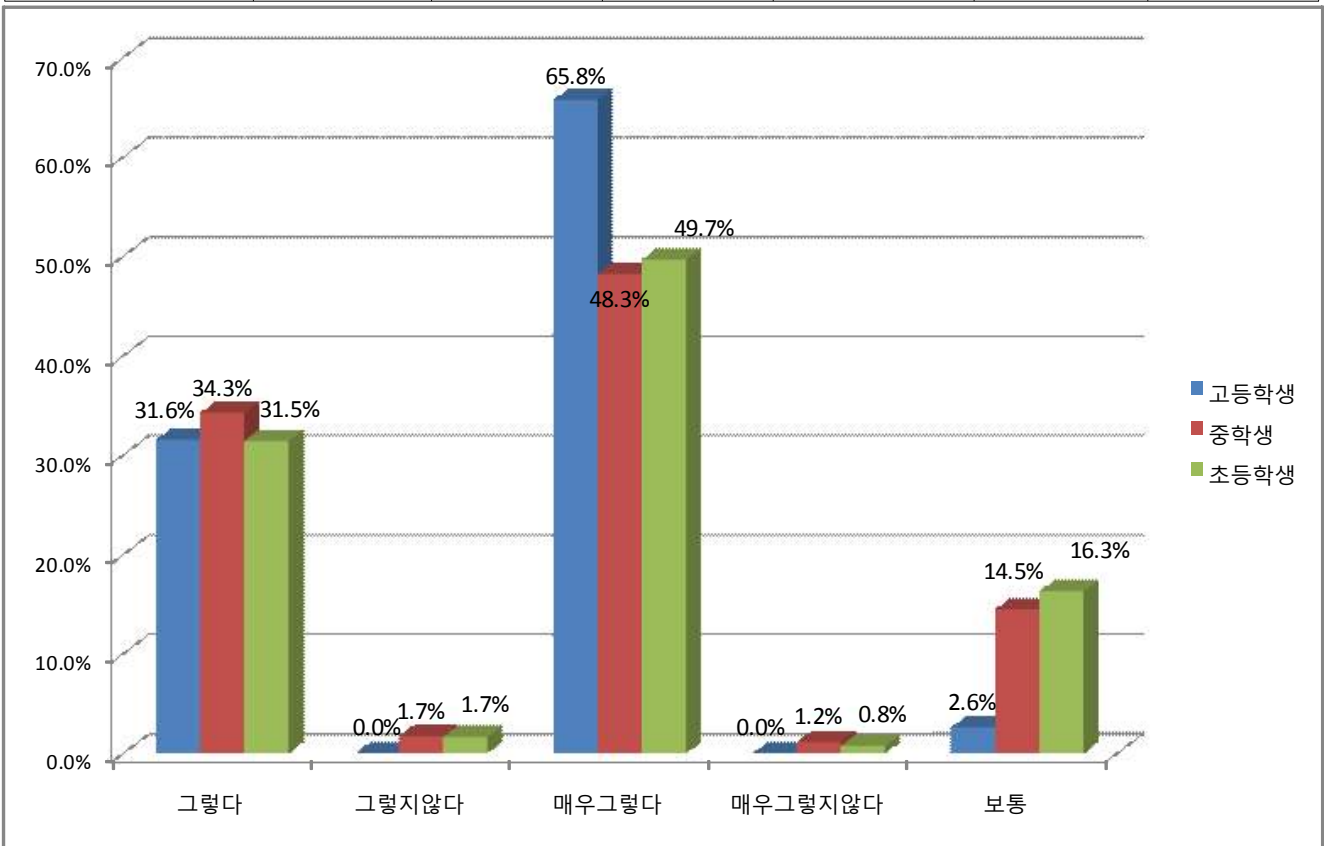


- ‘아동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’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 46.6%, 여학생 53.4%가 ‘매우 그렇다’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50.0%가 ‘매우 그렇다’, 31.9%가 ‘그렇다’라고 응답하였음

## 아동의 사생활 보호에 학년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					전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학년	고등학생	12	0	25	0	1	38
		31.6%	0.0%	65.8%	0.0%	2.6%	100.0%
	중학생	59	3	83	2	25	172
		34.3%	1.7%	48.3%	1.2%	14.5%	100.0%
	초등학생	281	15	444	7	146	893
		31.5%	1.7%	49.7%	0.8%	16.3%	100.0%
전체		352	18	552	9	172	1103
		31.9%	1.6%	50.0%	0.8%	15.6%	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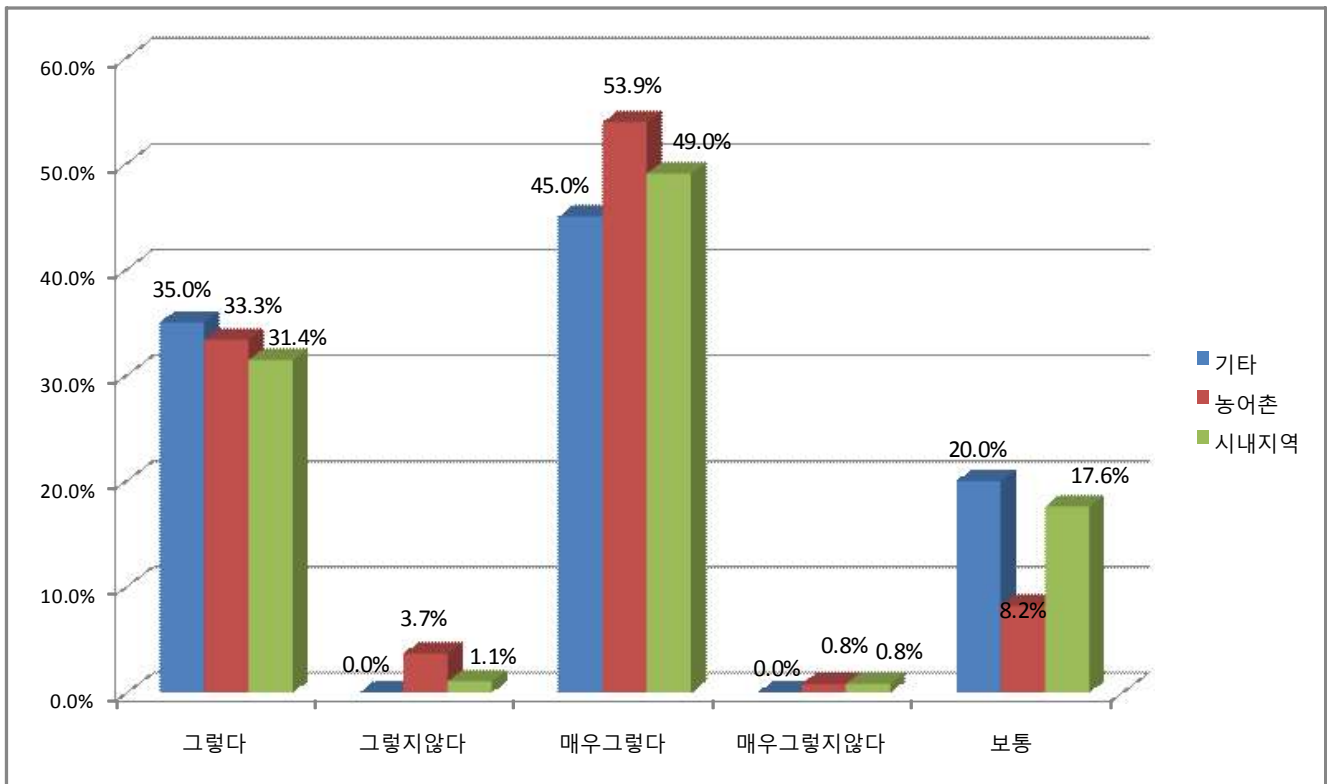


- '아동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'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고등학생 65.8%, 중학생 48.3%, 초등학생 49.7%가 '매우 그렇다'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50.0%가 '매우 그렇다', 31.9%가 '그렇다'라고 응답하였음

## 아동의 사생활 보호에 거주지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					전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거주지	기타	7	0	9	0	4	20
		35.0%	0.0%	45.0%	0.0%	20.0%	100.0%
	농어촌	81	9	131	2	20	243
		33.3%	3.7%	53.9%	0.8%	8.2%	100.0%
	시내지역	264	9	412	7	148	840
		31.4%	1.1%	49.0%	0.8%	17.6%	100.0%
전체		352	18	552	9	172	1103
		31.9%	1.6%	50.0%	0.8%	15.6%	100.0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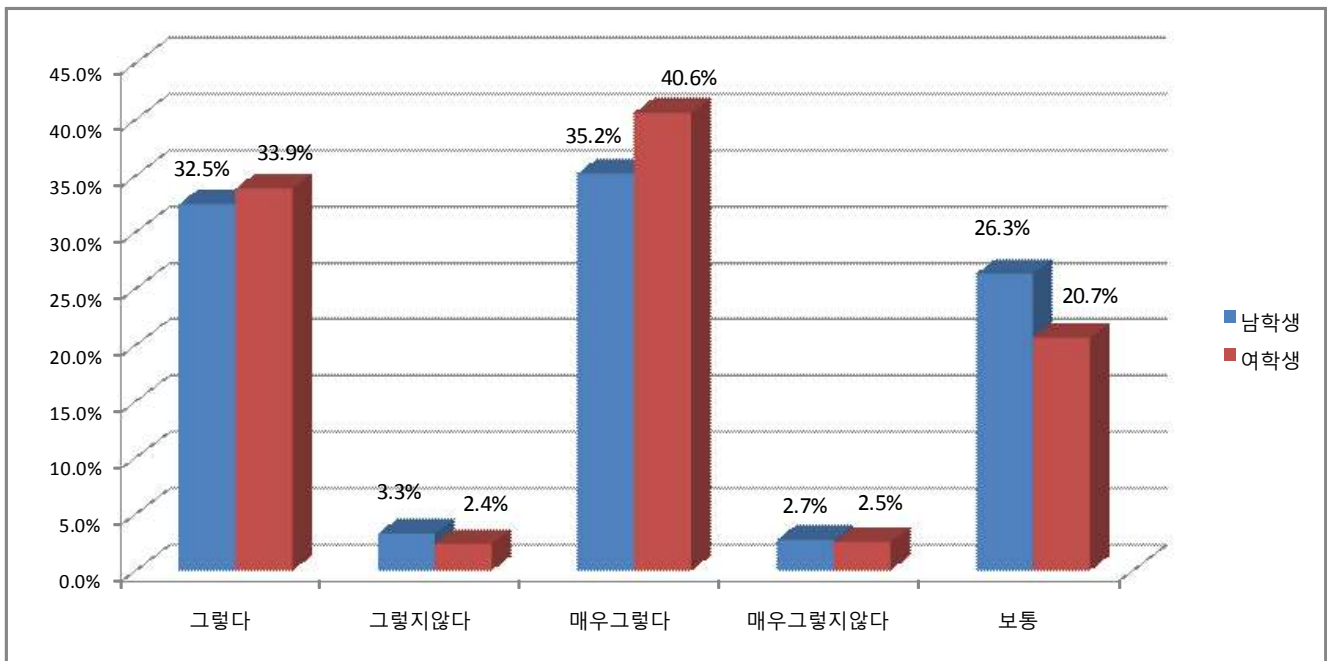
- '아동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'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시내지역 49.0%, 농어촌 53.9%, 기타 45.0%가 '매우 그렇다'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50.0%가 '매우 그렇다', 31.9%가 '그렇다'라고 응답하였음

## 17. 『입양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』에 대한 의견

### 입양과정에 아동의 의견 고려에 대한 성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의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연령 및 성숙단계를 고려하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					전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성별	남학생	179	18	194	15	145	551
		32.5%	3.3%	35.2%	2.7%	26.3%	100.0%
성별	여학생	187	13	224	14	114	552
		33.9%	2.4%	40.6%	2.5%	20.7%	100.0%
전체		366	31	418	29	259	1,103
		33.2%	2.8%	37.9%	2.6%	23.5%	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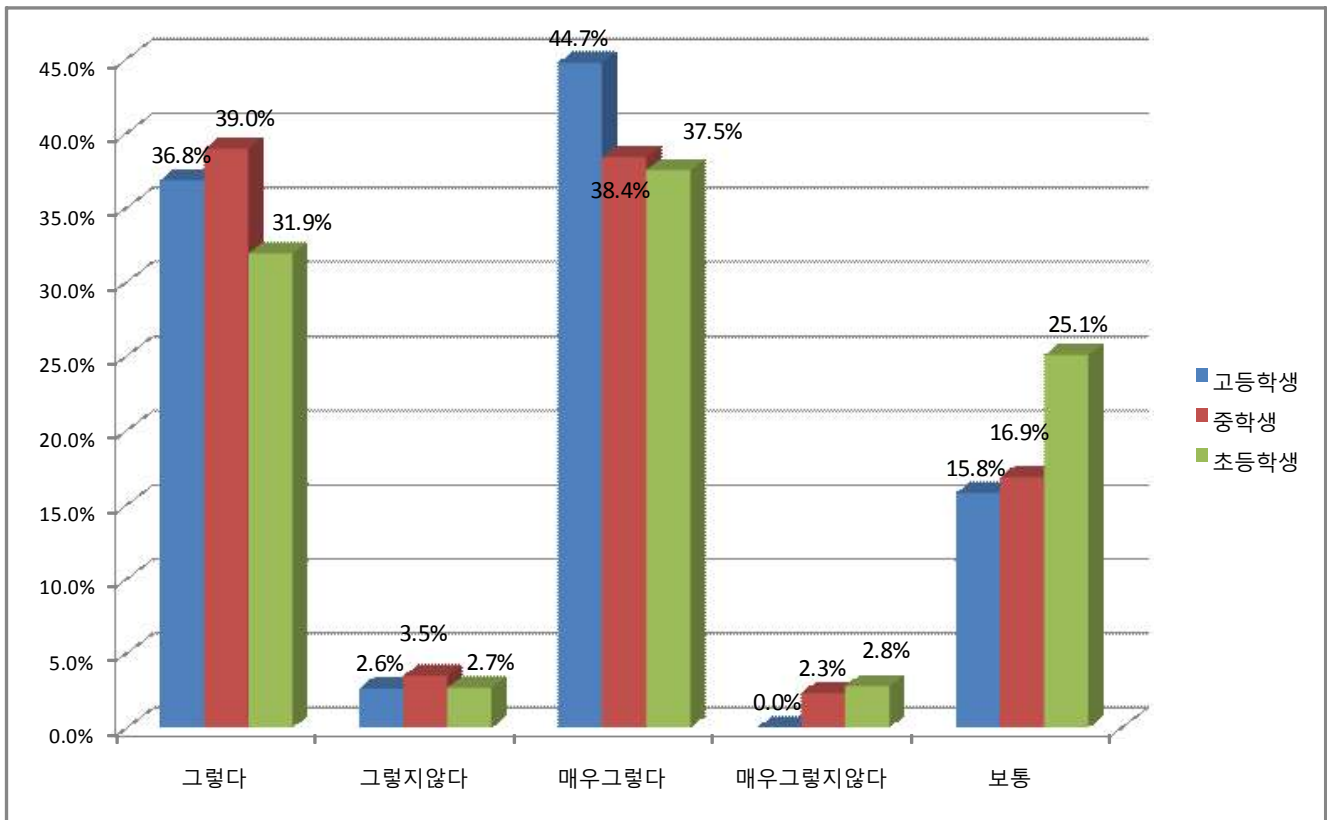


- ‘아동의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연령 및 성숙단계를 고려하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’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남학생 35.2%, 여학생 40.6%가 ‘매우 그렇다’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37.9%가 ‘매우 그렇다’, 33.2%가 ‘그렇다’라고 응답하였음

## 입양과정에 아동의 의견 고려에 대한 학년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의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연령 및 성숙단계를 고려하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					전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학년	고등학생	14 36.8%	1 2.6%	17 44.7%	0 0.0%	6 15.8%	38 100.0%
	중학생	67 39.0%	6 3.5%	66 38.4%	4 2.3%	29 16.9%	172 100.0%
	초등학생	285 31.9%	24 2.7%	335 37.5%	25 2.8%	224 25.1%	893 100.0%
전체		366 33.2%	31 2.8%	418 37.9%	29 2.6%	259 23.5%	1,103 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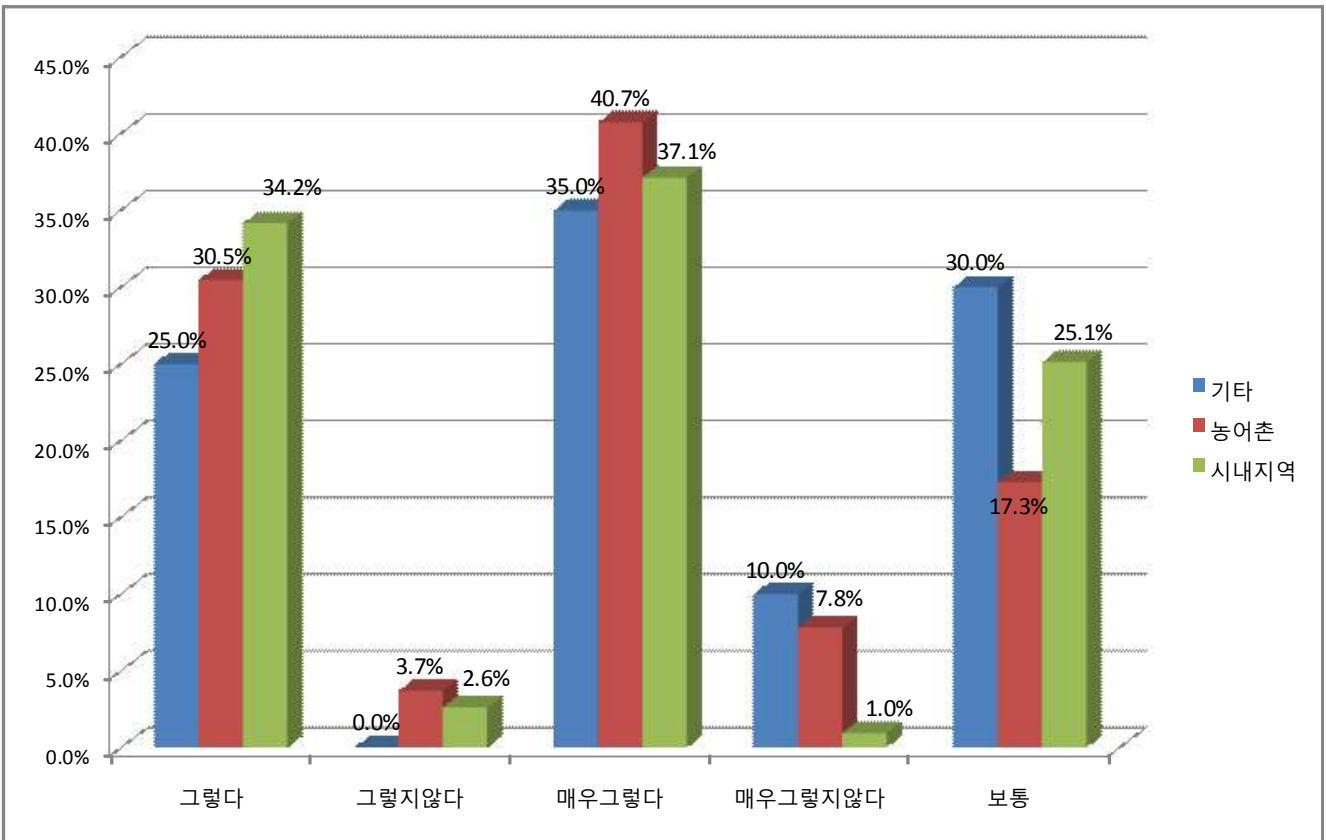


- '아동의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연령 및 성숙단계를 고려하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'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고등학생 44.7%, 중학생 38.4%, 초등학생 37.5%가 '매우 그렇다'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37.9%가 '매우 그렇다', 33.2%가 '그렇다'라고 응답하였음

## 입양과정에 아동의 의견 고려에 대한 거주지별 의견

(단위 : 명, %)

구 분		아동의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연령 및 성숙단계를 고려하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					전체
	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거주지	기타	5	0	7	2	6	20
		25.0%	0.0%	35.0%	10.0%	30.0%	100.0%
	농어촌	74	9	99	19	42	243
		30.5%	3.7%	40.7%	7.8%	17.3%	100.0%
	시내지역	287	22	312	8	211	840
		34.2%	2.6%	37.1%	1.0%	25.1%	100.0%
전체		366	31	418	29	259	1,103
		33.2%	2.8%	37.9%	2.6%	23.5%	100.0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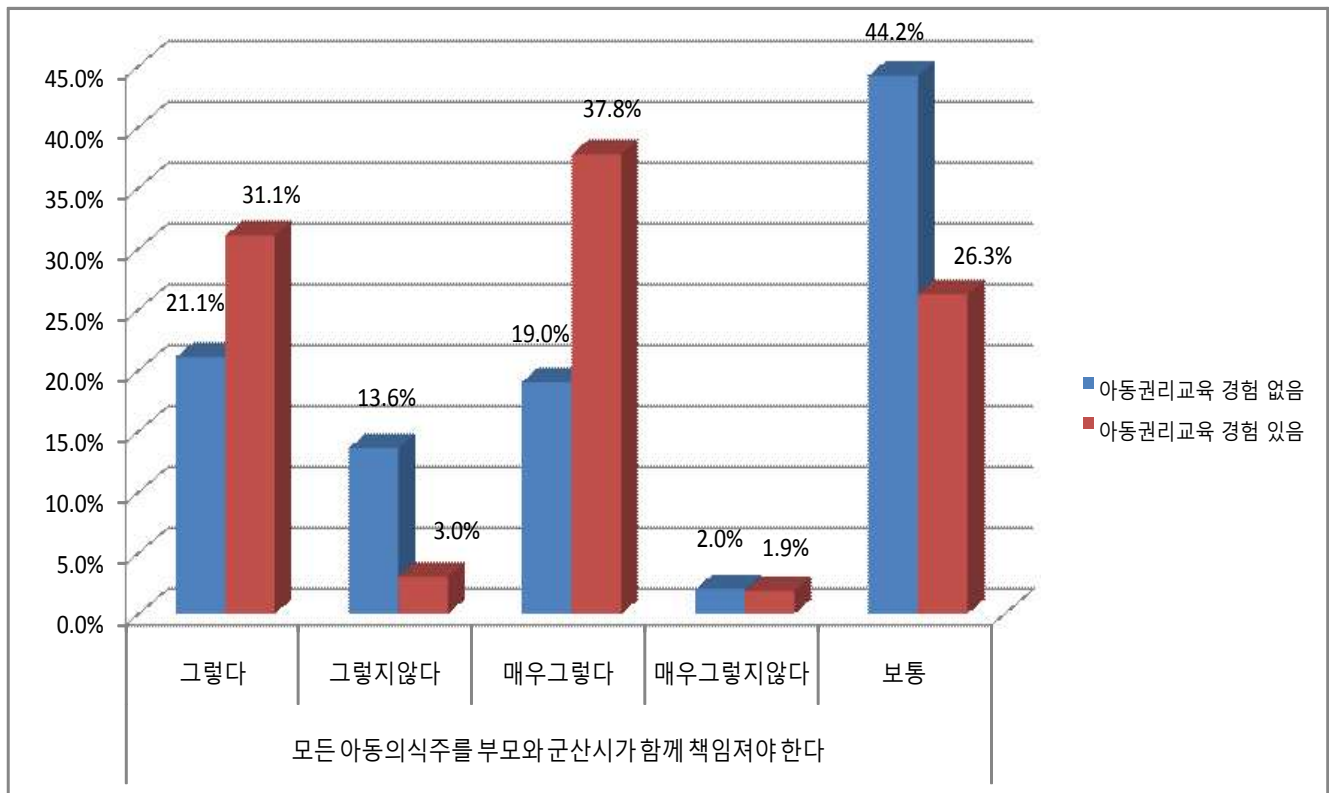
- ‘아동의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연령 및 성숙단계를 고려하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’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시내지역 37.1%, 농어촌 40.7%, 기타 35.0%가 ‘매우 그렇다’라고 응답했으며, 전체적으로 37.9%가 ‘매우 그렇다’, 33.2%가 ‘그렇다’라고 응답하였음

## 18. 아동권리교육 경험여부에 따른 아동권리 인식도 분석

###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을 권리에 대한 인식

-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(인식도 40.1%)보다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(인식도 68.8%)가 '모든 아동의식주를 부모와 군산시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'라고 높게 인식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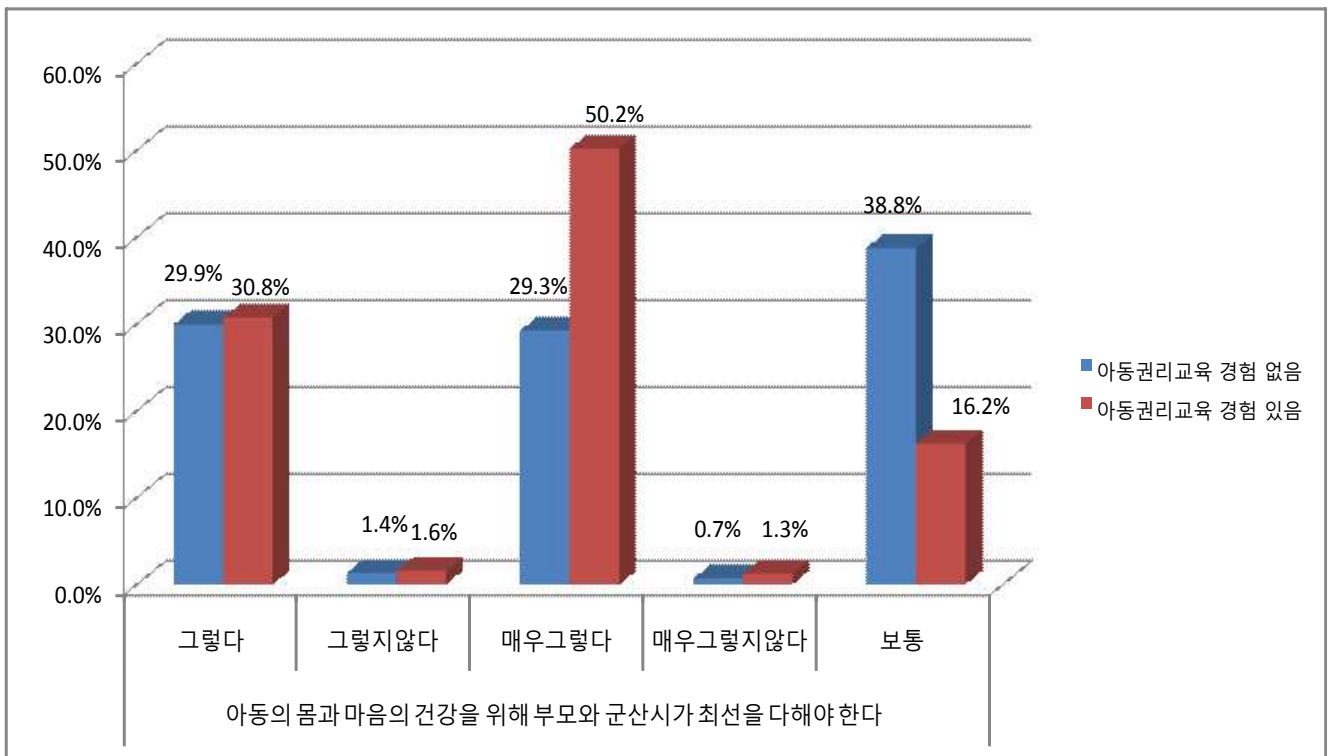
구 분	모든 아동의식주를 부모와 군산시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					전체
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아동권리교육 경험 없음	31 21.1%	20 13.6%	28 19.0%	3 2.0%	65 44.2%	147 100.0%
아동권리교육 경험 있음	297 31.1%	29 3.0%	361 37.8%	18 1.9%	251 26.3%	956 100.0%
전체	328 29.7%	49 4.4%	389 35.3%	21 1.9%	316 28.6%	1103 100.0%



## 몸과 마음이 건강할 권리에 대한 인식

-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(인식도 59.2%)보다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(인식도 81%)가 '아동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부모와 군산시가 최선을 다해야한다'라고 높게 인식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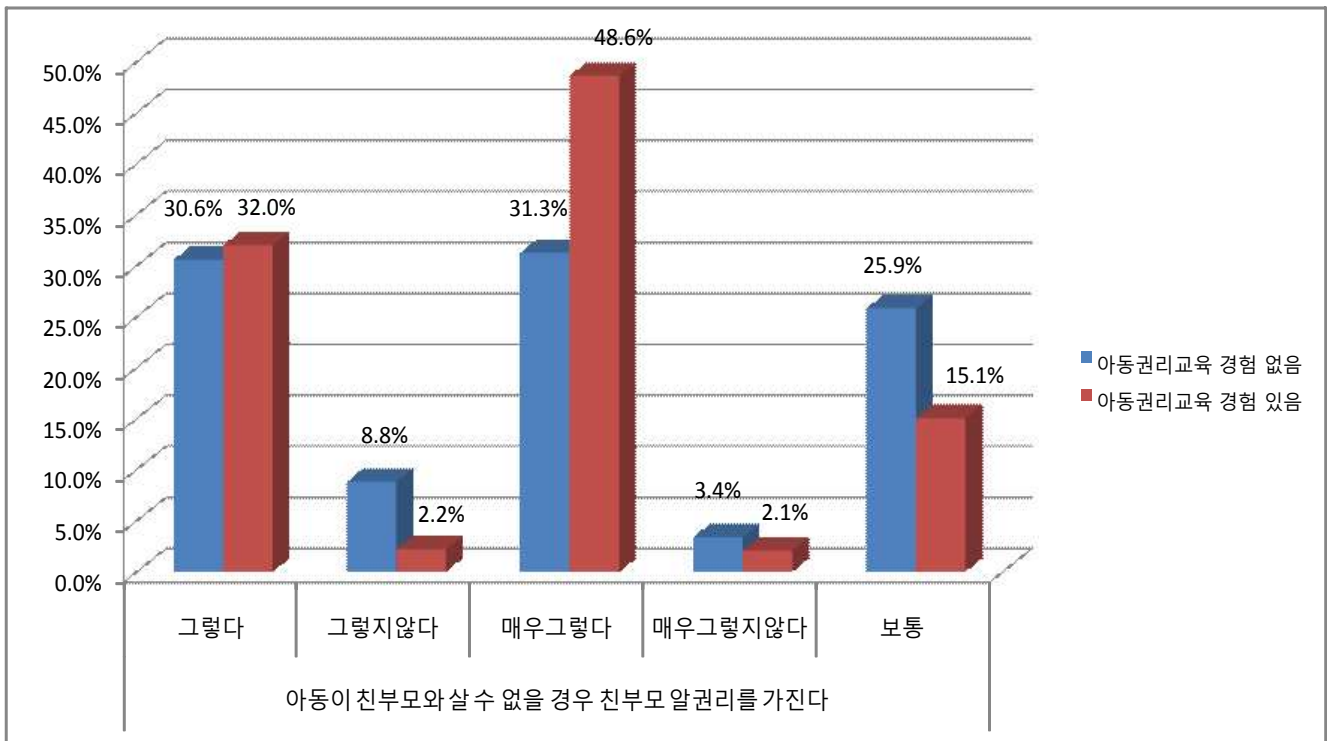
구 분	아동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부모와 군산시가 최선을 다해야한다					전체
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아동권리교육 경험 없음	44	2	43	1	57	147
	29.9%	1.4%	29.3%	0.7%	38.8%	100.0%
아동권리교육 경험 있음	294	15	480	12	155	956
	30.8%	1.6%	50.2%	1.3%	16.2%	100.0%
전체	338	17	523	13	212	1103
	30.6%	1.5%	47.4%	1.2%	19.2%	100.0%



## 🌈 친부모에 대해 알 권리에 대한 인식

-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(인식도 61.9%)보다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(인식도 80.6%)가 ‘아동이 친부모와 살 수 없을 경우 친부모 알권리를 가진다’라고 높게 인식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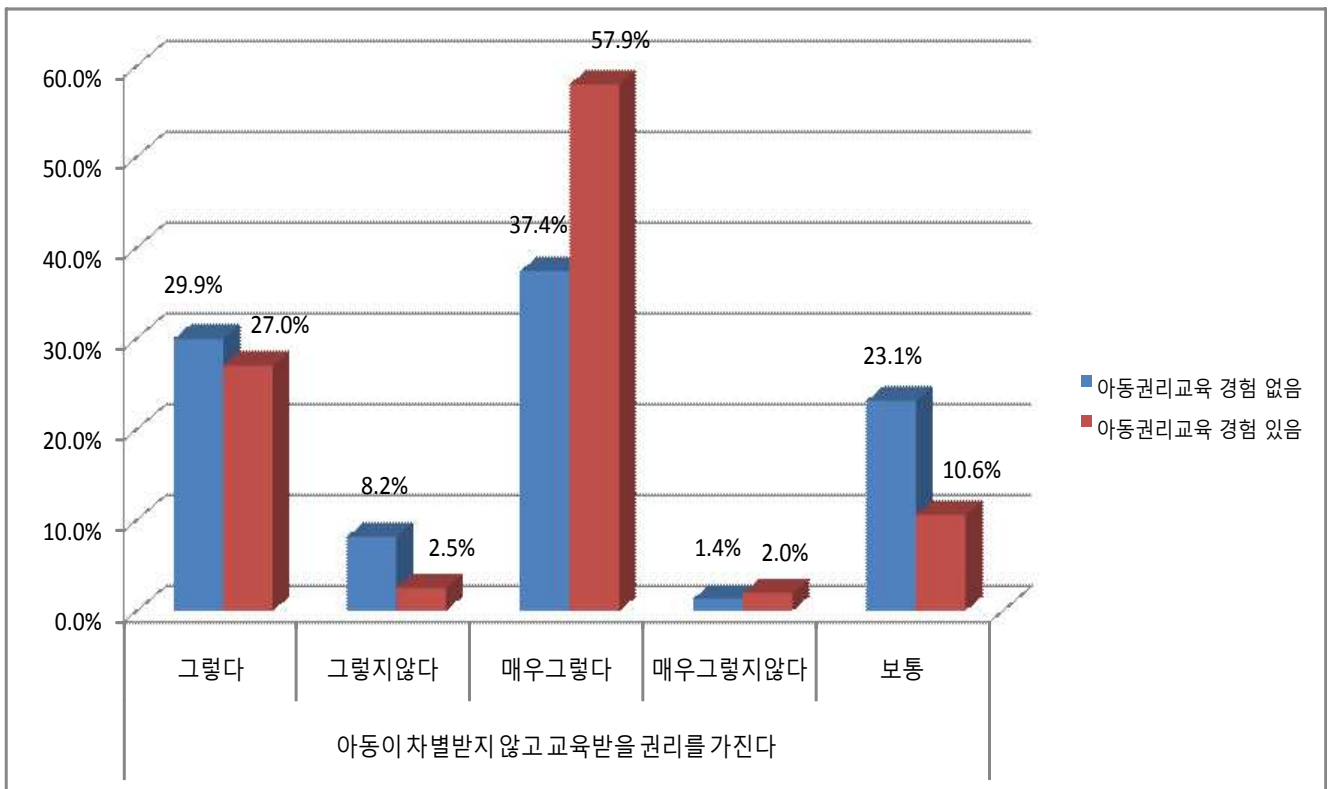
구분	아동이 친부모와 살 수 없을 경우 친부모 알권리를 가진다					전체
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아동권리교육 경험 없음	45	13	46	5	38	147
	30.6%	8.8%	31.3%	3.4%	25.9%	100.0%
아동권리교육 경험 있음	306	21	465	20	144	956
	32.0%	2.2%	48.6%	2.1%	15.1%	100.0%
전체	351	34	511	25	182	1103
	31.8%	3.1%	46.3%	2.3%	16.5%	100.0%



##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인식

-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(인식도 67.3%)보다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(인식도 84.9%)가 ‘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’라고 높게 인식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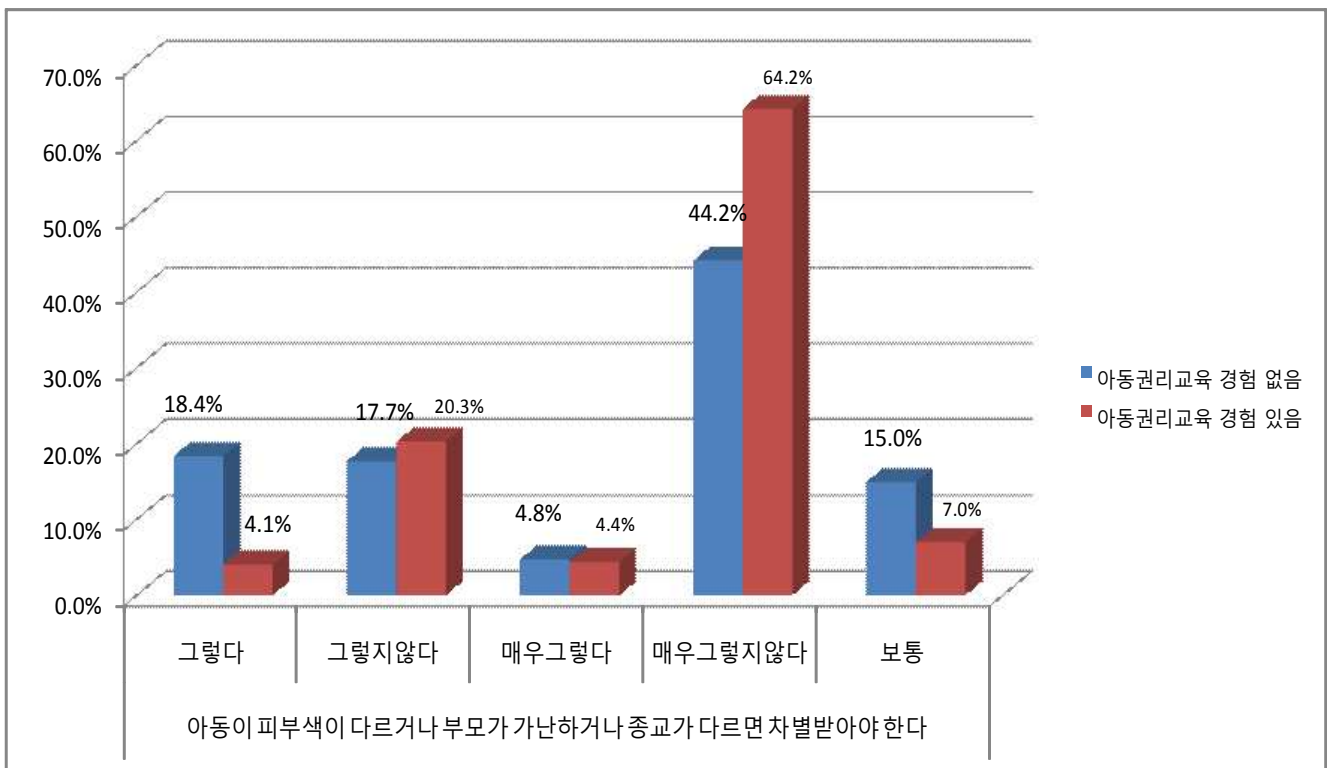
구분	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					전체
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아동권리교육 경험 없음	44 29.9%	12 8.2%	55 37.4%	2 1.4%	34 23.1%	147 100.0%
아동권리교육 경험 있음	258 27.0%	24 2.5%	554 57.9%	19 2.0%	101 10.6%	956 100.0%
전체	302 27.4%	36 3.3%	609 55.2%	21 1.9%	135 12.2%	1103 100.0%



## 피부색·종교·가난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인식

-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(인식도 61.9%)보다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(인식도 84.5%)가 ‘아동이 피부색이 다르거나 부모가 가난하거나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 안된다’라고 높게 인식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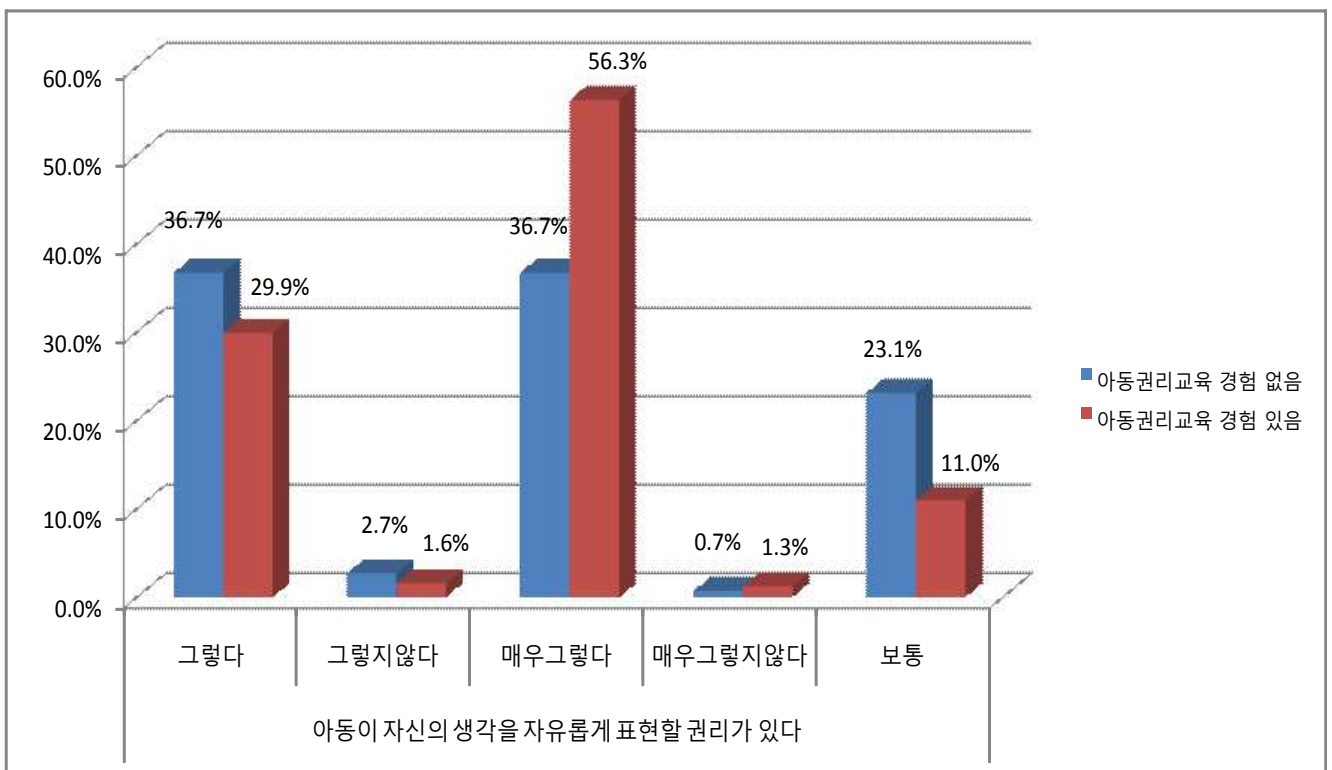
구 분	아동이 피부색이 다르거나 부모가 가난하거나 종교가 다르다면 차별받아야 한다					전체
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아동권리교육 경험 없음	27 18.4%	26 17.7%	7 4.8%	65 44.2%	22 15.0%	147 100.0%
아동권리교육 경험 있음	39 4.1%	194 20.3%	42 4.4%	614 64.2%	67 7.0%	956 100.0%
전체	66 6.0%	220 19.9%	49 4.4%	679 61.6%	89 8.1%	1103 100.0%



##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에 대한 인식

-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(인식도 73.5%)보다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(인식도 86.2%)가 ‘아동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’라고 높게 인식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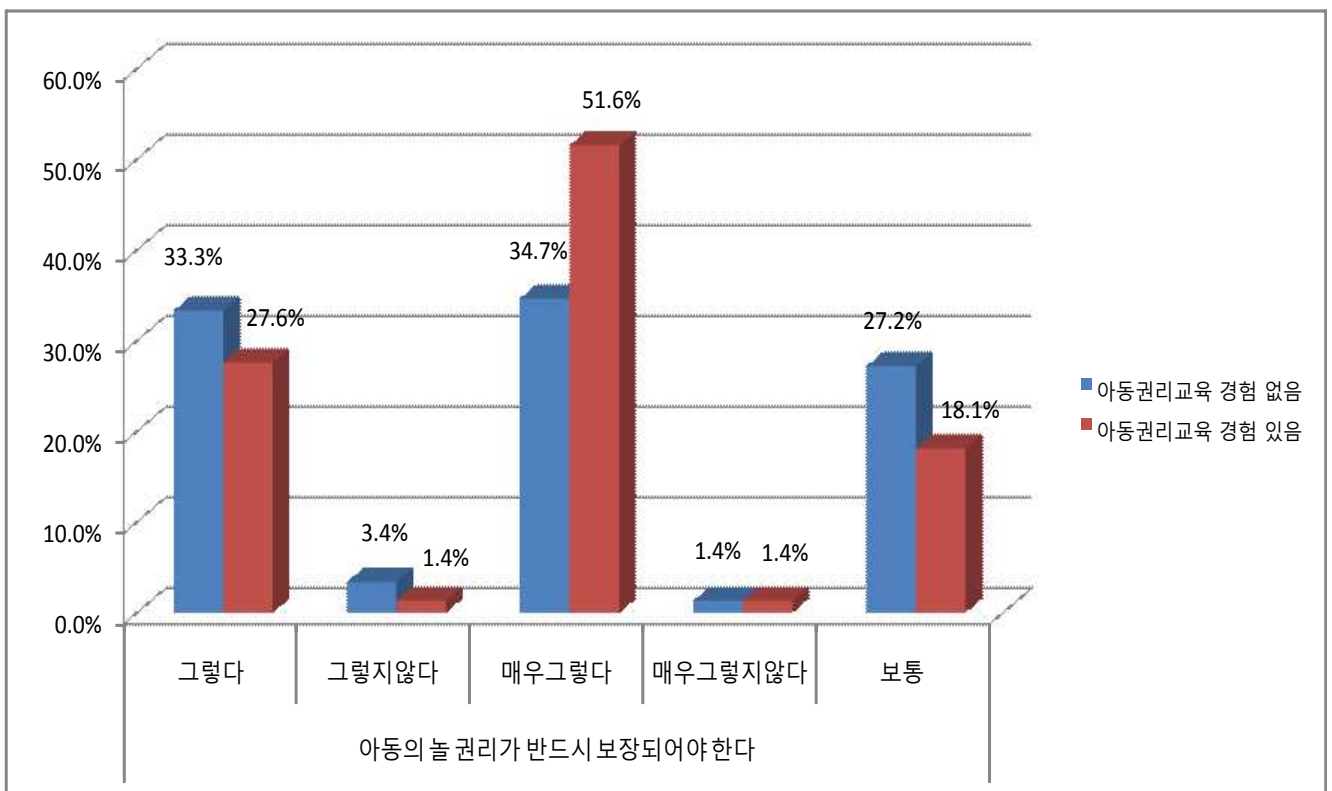
구분	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					전체
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아동권리교육 경험 없음	54 36.7%	4 2.7%	54 36.7%	1 0.7%	34 23.1%	147 100.0%
아동권리교육 경험 있음	286 29.9%	15 1.6%	538 56.3%	12 1.3%	105 11.0%	956 100.0%
전체	340 30.8%	19 1.7%	592 53.7%	13 1.2%	139 12.6%	1103 100.0%



## 🌈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

-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(인식도 68%)보다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(인식도 79.2%)가 '아동의 놀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'라고 높게 인식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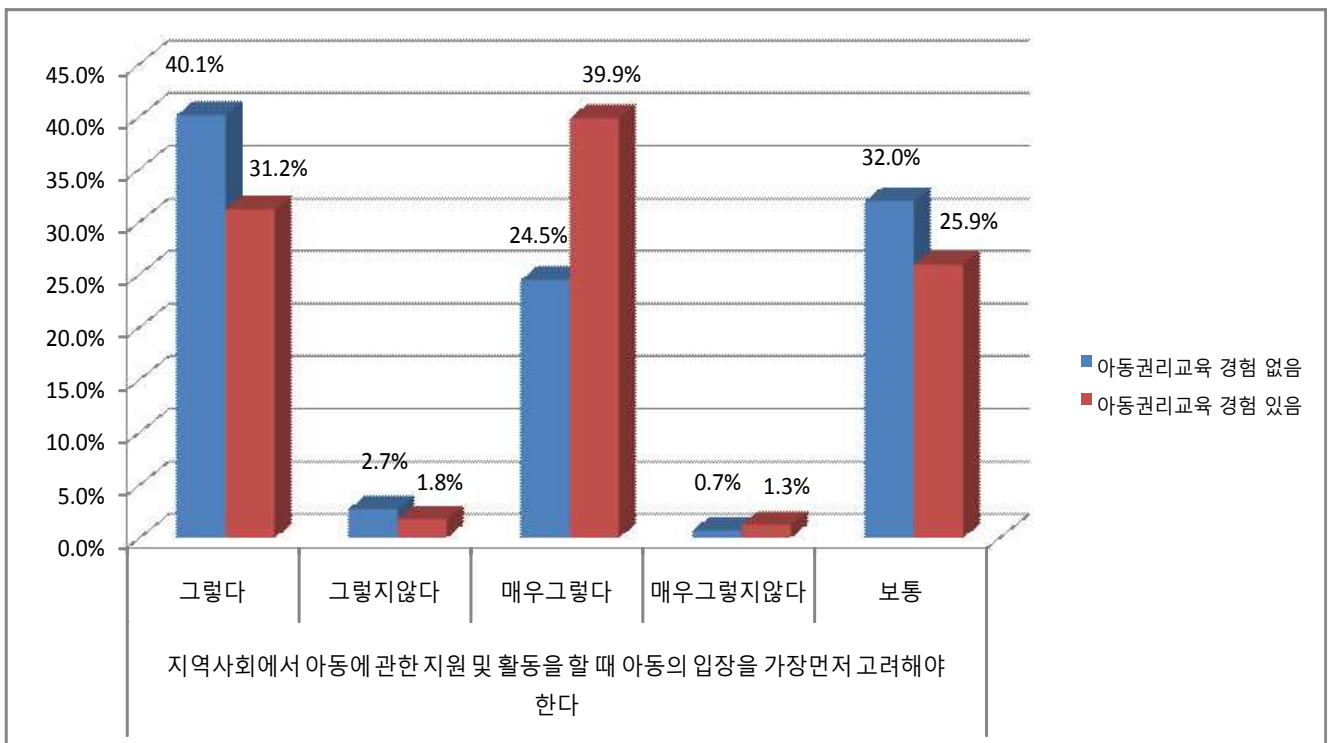
구분	아동의 놀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					전체
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아동권리교육 경험 없음	49 33.3%	5 3.4%	51 34.7%	2 1.4%	40 27.2%	147 100.0%
아동권리교육 경험 있음	264 27.6%	13 1.4%	493 51.6%	13 1.4%	173 18.1%	956 100.0%
전체	313 28.4%	18 1.6%	544 49.3%	15 1.4%	213 19.3%	1103 100.0%



## 아동의 입장을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인식

-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(인식도 64.6%)보다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(인식도 71%)가 '지역사회에서 아동에 관한 지원 및 활동을 할 때 아동의 입장을 가장먼저 고려해야 한다'라고 높게 인식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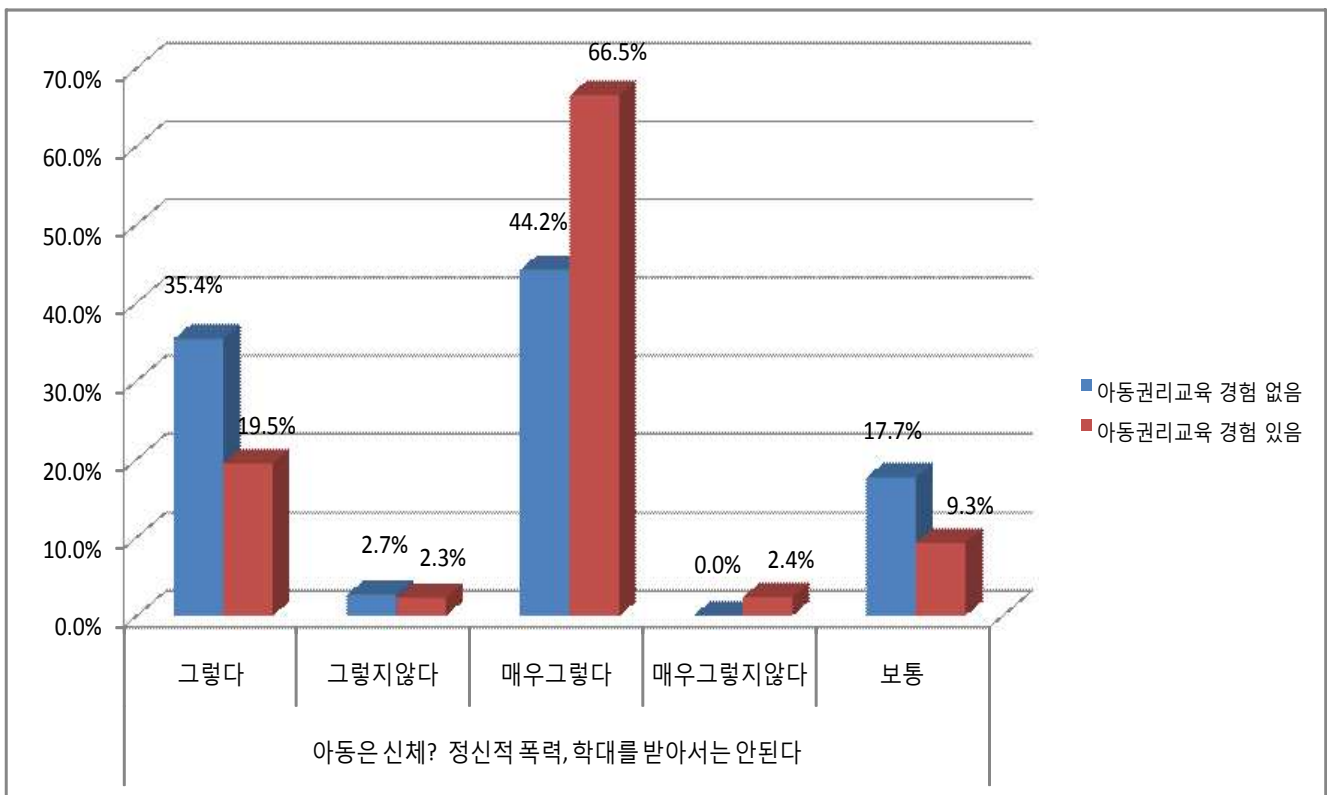
구분	지역사회에서 아동에 관한 지원 및 활동을 할 때 아동의 입장을 가장먼저 고려해야 한다					전체
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아동권리교육 경험 없음	59 40.1%	4 2.7%	36 24.5%	1 0.7%	47 32.0%	147 100.0%
아동권리교육 경험 있음	298 31.2%	17 1.8%	381 39.9%	12 1.3%	248 25.9%	956 100.0%
전체	357 32.4%	21 1.9%	417 37.8%	13 1.2%	295 26.7%	1103 100.0%



## 신체·정신적 폭력,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인식

-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(인식도 79.6%)보다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(인식도 86%)가 ‘아동은 신체·정신적 폭력, 학대를 받아서는 안된다’ 라고 높게 인식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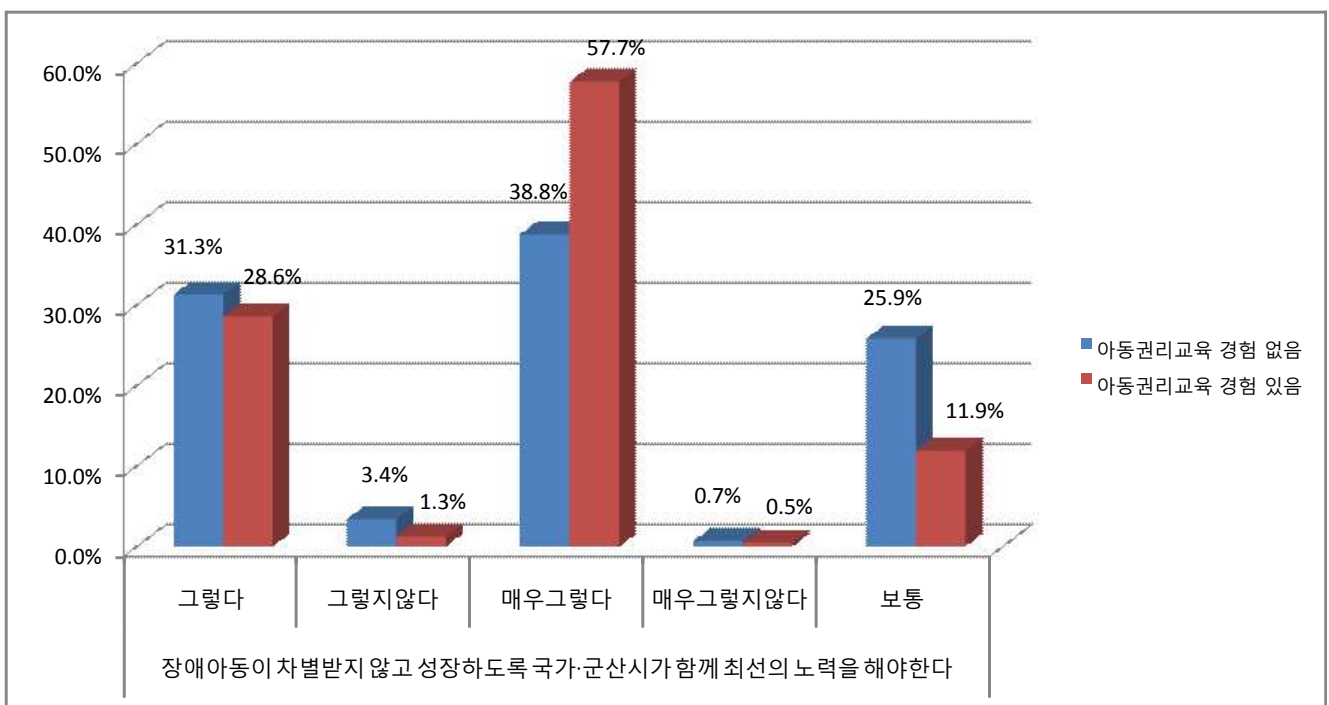
구분	아동은 신체 정신적 폭력, 학대를 받아서는 안된다					전체
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아동권리교육 경험 없음	52	4	65	0	26	147
	35.4%	2.7%	44.2%	0.0%	17.7%	100.0%
아동권리교육 경험 있음	186	22	636	23	89	956
	19.5%	2.3%	66.5%	2.4%	9.3%	100.0%
전체	238	26	701	23	115	1103
	21.6%	2.4%	63.6%	2.1%	10.4%	100.0%



## 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성장할 권리에 대한 인식

-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(인식도 70.1%)보다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(인식도 86.3%)가 '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성장하도록 국가·군산시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'라고 높게 인식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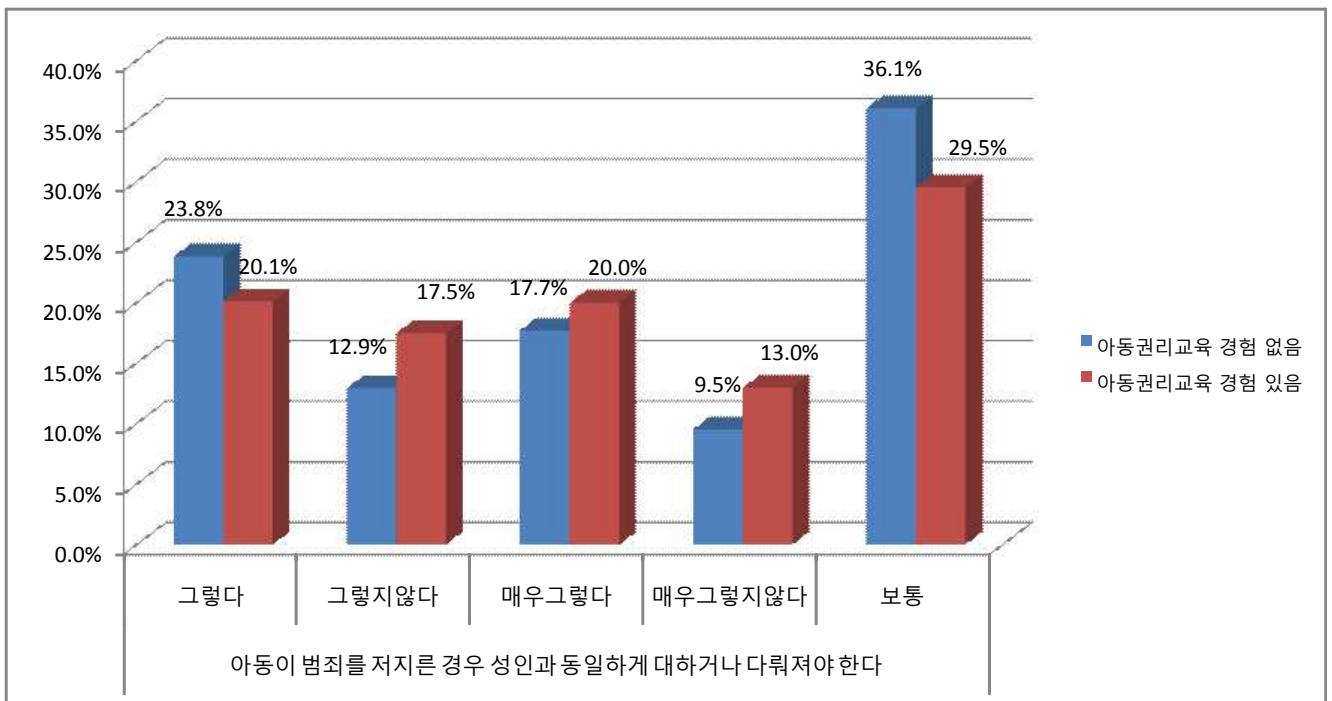
구분	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성장하도록 국가·군산시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					전체
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아동권리교육 경험 없음	46	5	57	1	38	147
	31.3%	3.4%	38.8%	0.7%	25.9%	100.0%
아동권리교육 경험 있음	273	12	552	5	114	956
	28.6%	1.3%	57.7%	0.5%	11.9%	100.0%
전체	319	17	609	6	152	1103
	28.9%	1.5%	55.2%	0.5%	13.8%	100.0%



## 아동범죄자 보호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인식

-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(인식도 22.4%)보다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(인식도 30.5%)가 '아동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대하거나 다뤄져서는 안된다'라고 높게 인식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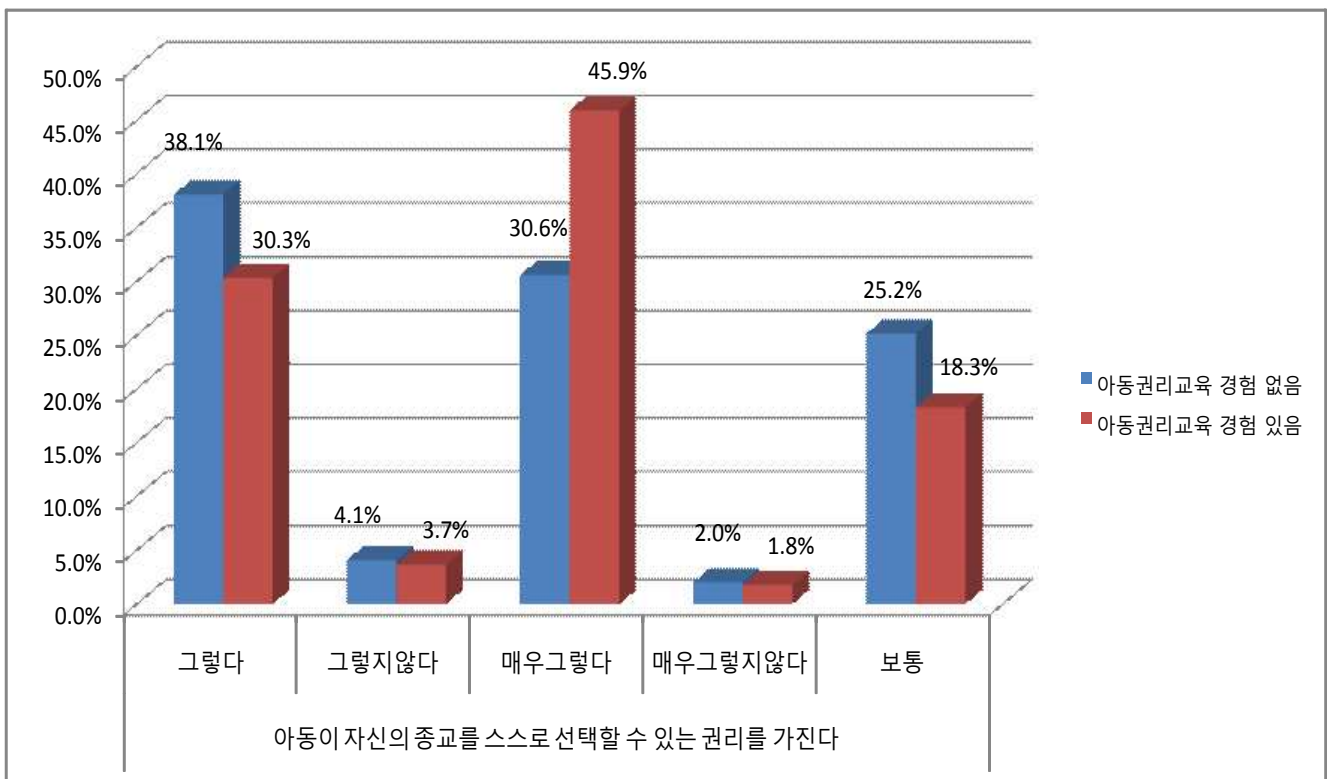
구분	아동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대하거나 다뤄져야 한다					전체
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아동권리교육 경험 없음	35 23.8%	19 12.9%	26 17.7%	14 9.5%	53 36.1%	147 100.0%
아동권리교육 경험 있음	192 20.1%	167 17.5%	191 20.0%	124 13.0%	282 29.5%	956 100.0%
전체	227 20.6%	186 16.9%	217 19.7%	138 12.5%	335 30.4%	1103 100.0%



## 종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인식

-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(인식도 68.7%)보다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(인식도 76.2%)가 '아동은 자신의 종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'라고 높게 인식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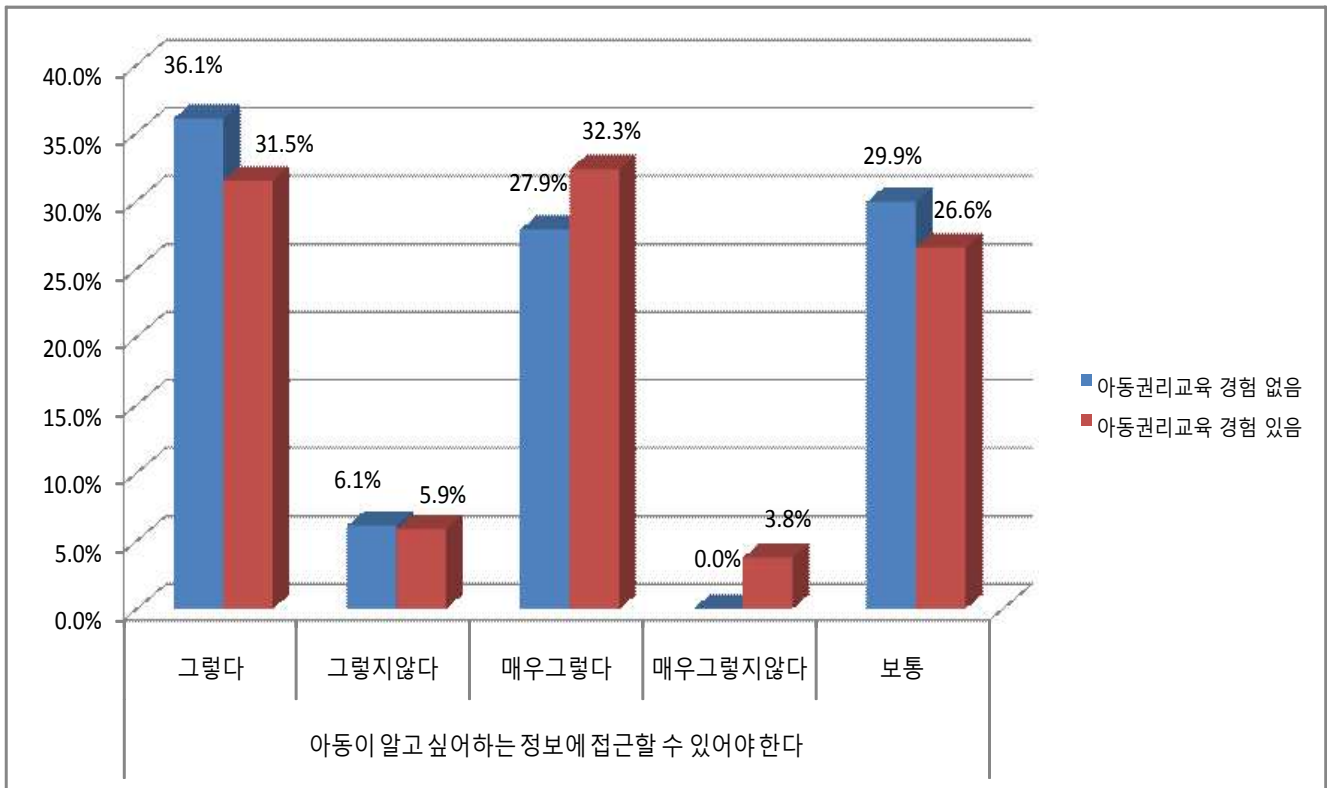
구분	아동이 자신의 종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					전체
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아동권리교육 경험 없음	56	6	45	3	37	147
	38.1%	4.1%	30.6%	2.0%	25.2%	100.0%
아동권리교육 경험 있음	290	35	439	17	175	956
	30.3%	3.7%	45.9%	1.8%	18.3%	100.0%
전체	346	41	484	20	212	1103
	31.4%	3.7%	43.9%	1.8%	19.2%	100.0%



##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

-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(인식도 63.8%)보다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(인식도 63.9%)가 '아동은 알고 싶어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'라고 높게 인식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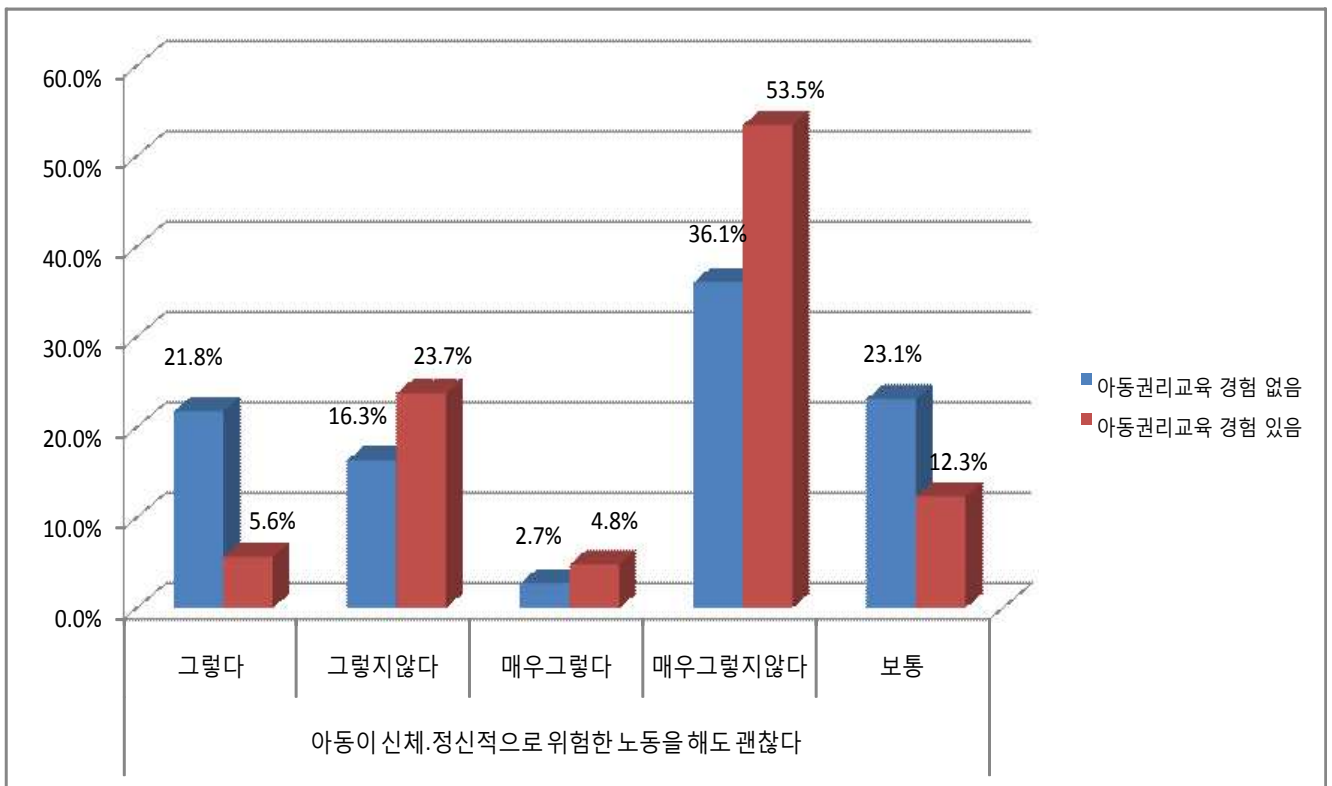
구분	아동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					전체
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아동권리교육 경험 없음	53 36.1%	9 6.1%	41 27.9%	0 0.0%	44 29.9%	147 100.0%
아동권리교육 경험 있음	301 31.5%	56 5.9%	309 32.3%	36 3.8%	254 26.6%	956 100.0%
전체	354 32.1%	65 5.9%	350 31.7%	36 3.3%	298 27.0%	1103 100.0%



## 신체적·정신적 노동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인식

-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(인식도 52.4%)보다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(인식도 77.2%)가 ‘아동은 신체·정신적으로 위험한 노동을 해도 괜찮지 않다’라고 높게 인식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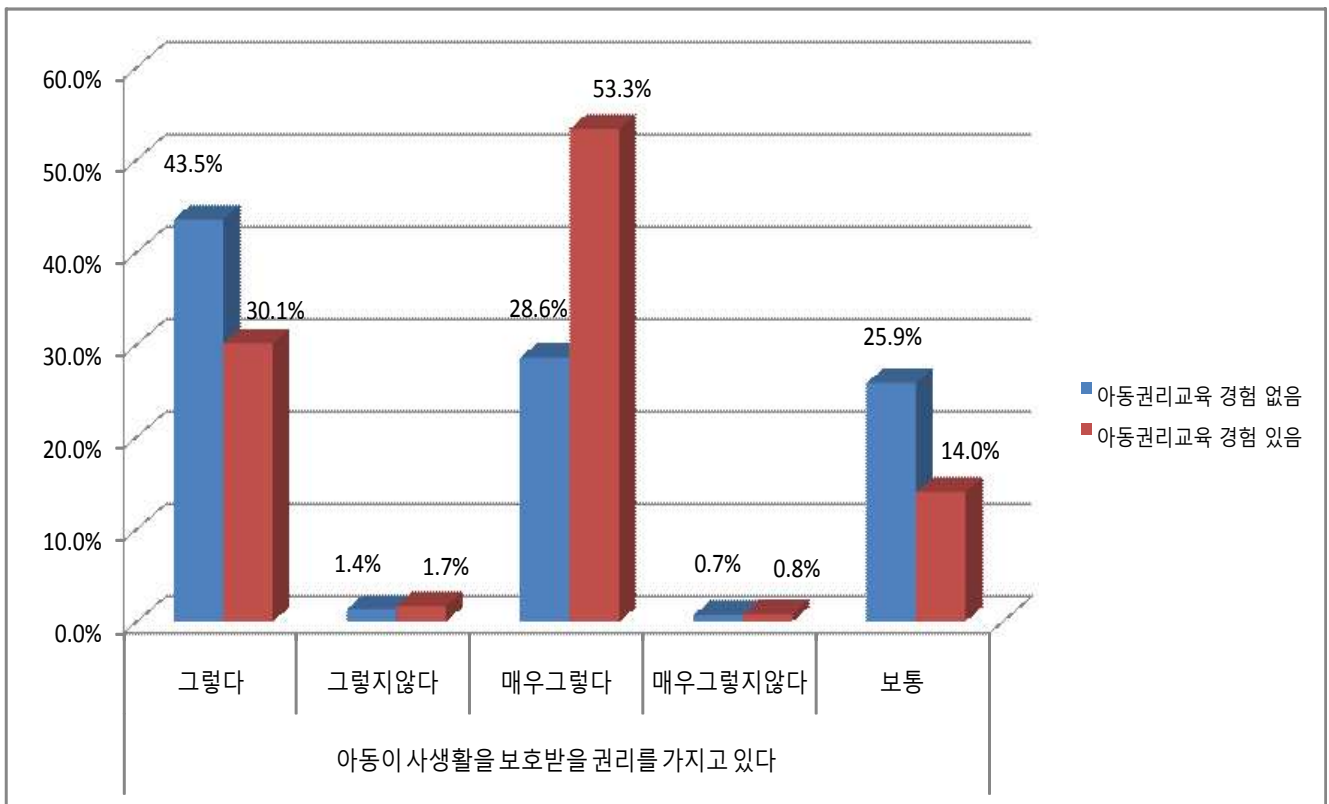
구분	아동이 신체·정신적으로 위험한 노동을 해도 괜찮다					전체
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아동권리교육 경험 없음	32 21.8%	24 16.3%	4 2.7%	53 36.1%	34 23.1%	147 100.0%
아동권리교육 경험 있음	54 5.6%	227 23.7%	46 4.8%	511 53.5%	118 12.3%	956 100.0%
전체	86 7.8%	251 22.8%	50 4.5%	564 51.1%	152 13.8%	1103 100.0%



## 🌈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인식

-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(인식도 72.1%)보다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(인식도 83.5%)가 '아동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'라고 높게 인식하고 있음

구분	아동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					전체
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아동권리교육 경험 없음	64 43.5%	2 1.4%	42 28.6%	1 0.7%	38 25.9%	147 100.0%
아동권리교육 경험 있음	288 30.1%	16 1.7%	510 53.3%	8 0.8%	134 14.0%	956 100.0%
전체	352 31.9%	18 1.6%	552 50.0%	9 0.8%	172 15.6%	1103 100.0%



##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할 권리에 대한 인식

-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(인식도 62.6%)보다 아동권리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(인식도 72.4%)가 아동의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연령 및 성숙단계를 고려하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'라고 높게 인식하고 있음

구분	아동의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연령 및 성숙단계를 고려하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					전체
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아동권리교육 경험 없음	61 41.5%	6 4.1%	31 21.1%	1 0.7%	48 32.7%	147 100.0%
아동권리교육 경험 있음	305 31.9%	25 2.6%	387 40.5%	28 2.9%	211 22.1%	956 100.0%
전체	366 33.2%	31 2.8%	418 37.9%	29 2.6%	259 23.5%	1103 100.0%

